

시로 읽는 성보순례
불국사 다보탑
국보 제20호
통일신라시대 ▶2면

현대불교

죽음은 목숨을 부수고
늙음은 쇠하게 하며
병은 편안함을 부수니
게으름을 즐기지 말라. 〈정법염처경〉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2월 8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877호 2012년 2월 29일 수요일

학교폭력 명상이 답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미래복지포럼…교과부 장관도 언급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학교폭력 관련법이 있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대상 연령이 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으로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수위도 높아져 수법이 잔인해져 악화일로이다. 폭력 동기도 '그냥 장난'인 경우가 많다. 가정해체 등으로 인한 청소년의 인성 파괴가 학교폭력의 원인이라는 지적은 많았지만, 이에 대한 해법은 명확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교명상과 템플스테이를 통해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은 2월 21일 전법회관에서 미래복지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신순갑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무총장이 '왜 학교폭력인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신 사무총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치유를 위한 해법으로 불교적 명상법을 주목 했다. 신순갑 사무총장은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서는 명상 인프라를 갖춘 불교계와 교육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사무총장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명상과 템플스테이 시설 정보를 결집·제공하고 해당 지역 교육청은 이를 활용해 불교시설에서 청소년들을 교육한다면 학교폭력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에 산재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시설들을 학교폭력 관련 서비스별로 나누고 불교 명상프로그램 운용에 기반한 자체 프로세스를 만들어 공교육 시스템에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종립학교 학교폭력 안전지대
학교폭력 불교명상 효과 입증
템플스테이 등 인성교육 필요
생명존중 가치관 심을 때

신순갑 사무총장은 "명상프로그램을 갖고 각 학급별 1인씩 어른이 아닌 중고등학생 또래상담자를 활용한다면 학교폭력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학생 간 상담 외에 재가신도를 활용한다면 이들의 신행활동을 통해 피해자 부모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다는 방법도 제안됐다.

신순갑 사무총장의 발제는 학교폭력의 원인을 제거하고, 피해를 치유하는 데에는 대화를 통한 소통, 상생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불교명상의 효능은 학교 현장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불교식 인성교육과 신행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종립학교의 경우 일반학교에 비해 학교폭력 빈도가 적다.

학교폭력 해법이 불교명상에 있다는 것은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1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명상이나 템플스테이 등 불교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불교계의 실천은 이미 진행 중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청소년 내 꿈 찾기 의지나눔' 프로그램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의지나눔 사업은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들이 소외계층 청소년들과 만나 직업의 세계를 들려주고 다양한 경험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청소년 템플스테이, 문화체험 등 청소년 여가활용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서는 불교계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조계종단 나아가 범불교계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젊은 불자·출가자 감소 등 불교계의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한 기회라는 견해도 있다. 학교폭력 해소를 위한 불교계의 노력이 중생교화의 방편이며, 인재불사이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국경·종교 초월 '학교폭력 예방'

KCRP 성명서 채택
한·일 불교계 공통 화두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천명했다. 이에 대해 한·일 불교계는 학교폭력 해결에 불교가 제 역할을 다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7대종단종교지도자들이 참여하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김희중, 이하 KCRP)는 2월 23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제27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총회에서 KCRP는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가정, 사회,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당부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

KCRP는 성명서에서 "청소년들의 폭력문제가 학교를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는 일로 확대되고 있다. 인간교육의 소중한 배움터인 학교가 병들어 아파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종교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KCRP는 "학교 폭력은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동참해 극복해야 할 시급한 문제이다. 종교인들 각 종단 고유 예식 속에서 학교 폭력 근절에 대한 경각심을 고양시키는 등 7대 종단의 모든 역량을 모아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일본 아시아불교도협회(회장 이바라키 츠오키)는 21일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를 방문해 한·일 청소년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도 학교폭력 문제가 관심사였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회장 정여 스님은 "최근 한국에서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및 자살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고 있다.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파라미타는 청소년 학교폭력문제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불교도협회 이바라키 츠오키 회장은 "일본도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적이 있었다. 양국 청소년들에게 불교의 역할을 제대로 실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기범·이은정 기자



부처님을 따르겠습니다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2월 23일 직지사(주지 성웅). 104명의 행자들이 차가운 아침 안개 속에 뜨거운 입김을 쏟아내며 부처님을 부른다. 목탁소리 한 번에 땅 한 번 끌어안고 옮기는 세 걸음은 멀고도 먼 길이다. 길 위에 선 행자들이 몸과 마음을 씻는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이날의 삼보일배는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11~25일 김천 직지사에서 실시한 제42기 사미·사미니 수계교육 과정 중의 하나로, 부처님출가절(음.2.8)을 앞두고 있어 행자들의 삼보일배가 더욱 간절한 발원으로 다가왔다. 25일 회향식에서 남행자 64명, 여행자 40명이 사미·사미니계를 받았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중국은 티베트 탄압 중단하라"

조계종 중앙종회 상임분과위 성명 발표

"중국은 소신을 단행한 티베트인들의 신병을 양도하고, 주둔 군대의 조속한 철수, 양심수 석방, 승려에 대한 충성 강요 행위 및 강제 이주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티베트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한 스님들의 소신이 잇따르고 있다. 2008~2012년 2월 현재까지 24명의 티베트 승려와 재가자가 소신공양을 한 가운데, 조계종 중앙종회 상임분과위원회가 성명서를 통해 중국의 티베트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상임분과위원회스님들은 '중국정부의 티베트 탄압 중단을 촉구합니다' 제하의 성명서에서 "티베트 스님들과 국민들은 자유와 독립을 위해 소신공양을 하는 등 목숨을 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소신공양한 스님의 법구를 돌려달라는 시위대에게 총격을 가하는 등 반인륜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분과위원회스님들은 "중국 당국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티베트 사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준엄한 사태로 티베트 평화와 자유를 갈망하는 세계인과 함께 중국당국의 탄압 행위를 엄중히 경고한다"며 소신을 단행한 이들의 신병 양도를 비롯하여 주둔 군대의 조속한 철수, 양심수 석방, 승려에 대한 충성 강요 행위 및 강제 이주 정책을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

상임분과위원회스님들은 티베트 탄압 중단 촉구 성명을 3월 종회에서 채택토록 하고, 범불교계가 연대해 지속적으로 평화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분과위원장 대오 스님은 "촉구문 선언 이후 임시중앙종회에서 결의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중국 대사관을 항의 방문해 서한을 전달할 것이다"고 밝혔다.

상임분과위원장들은 3월 임시종회 후 중국 대사관 항의 방문을 위한 날짜를 조율할 예정이다.

교육분과위원장 법안 스님은 "집행부도 중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적극 나서야 한다. UN의 호소문도 필요하며 종단협 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지기를 희망한다. 불교와 인연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동섭·박기범 기자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불기255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 발표

불기 255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로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Peace to our Mind. Happiness to our World)'이 결정됐다.

이 표어는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가 공모를 통해 접수된 368건(198명 응모)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 것으로 안호석 님(경기 김포시)이 응모한 작품이다.

봉축위원회는 "올해 봉축 표어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은 세상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연기의 진리로서 마음의 평화를 이루고 이웃과 세상을 행복하게 하자는 뜻으로,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보살 정신으로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자는 의미를 담아 결정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신상품
LED인등·전구
찬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사 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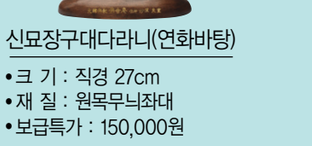
의원면직 박 기 범
면)편집국 취재기자
주 성 원
면)편집국 취재기자
이상 2명, 2012년 2월 24일

877호 CONTENTS

종단 2
화쟁위, 제주 강정마을 방문
지관 대종사 49재 봉행

종합 3
조계종 선거제도 공청회
조계종 승보공양운동

시방세계 5
국제불교학교 미주 연수



출가절 특집 31

諸佛菩薩 腹藏莊嚴具
(부처님 복장점안 장엄구)



후령통 및 13종(65가지) 물목을 담은 물목함
물목함 세트 사이즈 (370X250X100)



후령통 펼친상태



후령통 포장상태

금합 (은합)
후령통 및 오방경,팔엽연화,
사리함,양면원경,오보병 등을
팔엽대홍련지도 위에 펼친 전경

대(80X210) :
금합 350만원 / 은합 300만원
중(60X155) :
금합 300만원 / 은합 250만원
소(50X115) :
금합 190만원 / 은합 150만원

복장장엄이란 부처님을 조상하고, 그 내부에 여법하게 종교적 절차를 거쳐 점안을 거쳐 신앙의 대상으로 나투시게 하는 의례과정입니다. 복장의례에 관한 경전은 조선시대 재구성된 "조상경" 및 관련 경전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총 4차례에 걸쳐 재구성된 복장의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소의경전과 전통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복장장엄 의례 및 과정에 대한 이해는 그리 높지 않아 불교문화를 계승하는 견지에서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유상아트에서는 가장 근래에 재편된 유점사본 조상경을 토대로 하여 후령통과 납입물목을 재정리하고, 의례까지 재현하여 본 '불복장 장엄구세트'를 스님 및 불자님들께 선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복장장엄과 관련한 여러 경전과 유점사본 조상경에서 일치되지 않고 혼돈을 보이는 오방색에 대해서 유점사본의 조상경의 대부분 물목의 색에 오보병을 맞추어 오방위의 색을 통일시켜 재현해 보았습니다. 불복장장엄구의 재현은 불복장장엄 절차를 보다 명확하고 쉽게 재현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고, 이는 한국 불교문화의 올바른 구성이라는 견지에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불복장장엄구의 재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세림스님과 최태선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국 불교문화의 올바른 계승으로 이어지기를 부처님께 기원 드립니다.

불기 2556년 2월 **유상아트** 김 명 환 합장

불 복 장 의 식 문의 010-2685-0361
불복장의식 연구소장 세림스님께서 직접해드립니다.
Daum 다음카페 조상경 복장단 의식 검색하세요.



般若波羅密多心經 금동반야심경
고려대장경의 반야심경판본입니다.
• 크 기 : 28.8cm × 14.6cm
• 재 질 : 표면처리 순금 24K
• 보급특가 : 300,000원



목판반야심경
• 크 기 : 28.8cm × 14.6cm
• 재 질 : 원목무늬, 원목좌대
• 보급특가 : 150,000원



한글반야심경
• 크 기 : 28.8cm × 14.6cm
• 재 질 : 원목무늬, 원목좌대
• 보급특가 : 150,000원



신묘장구대다라니(연화바탕)
• 크 기 : 직경 27cm
• 재 질 : 원목무늬좌대
• 보급특가 : 150,000원

* 법보시용, 감사패, 공로패 대용으로 가치 충분합니다.(단체주문환영)
* 좌대(받침대)에 24K금박으로 원하시는 글씨를 세겨드립니다.

특허출원: 20-2011-006164 yoosang 유상아트 전화 031)314-3542 / 318-3545 HP : 010-4711-3542 홈페이지 www.yoosang.co.kr 경기도 시흥시 계수동 329-2번지 특허출원 : 30-2011-0042460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20호 불국사 다보탑



불국사 다보탑

신 달 자

저기!

거기가 어딘지
온 몸으로 가르키고 있는
국보 20호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고
먼 발치부터 더듬 더듬
몇백 년 발치부터 더듬더듬
정강이 살이 헐어, 헐어도
닿지 못하고
언제나 묵언수행으로
서서
너 혼자 깨달으라고
마음의 뒤축을 높이며
거꾸러지기도 하는
그 순간에도 그 발길 앞에 손을 뻗으며
애오라지
서울에서 경주까지 뻗으며 뻗으며
서울에서 경주까지 다 내 팔이 되어
불손한 마음들을 쓱쓱 잘라내며 다시 뻗지만
아직도 다 읽어 내지 못하는 무지의 이 독법을
툭툭 털어내며
이제는
보려고도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마음으로 터벅터벅 그 서늘한 위엄 앞으로 다가가는데…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中에서

신달자 시인은… 1943년 경남 거창 출생. 1972년 〈현대문학〉으로 등단. 시집 〈오래 말하는 사이〉 〈열애〉 등.

화쟁위 · 종회의원 "강정마을에 평화를"

제주국제평화회의 참석
해군기지 백지화 성명 낭독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와 중앙종회 의원 스님들이 제주 강정마을을 방문해 제주국제평화회의에 참석했다.

제주 국제평화회의는 강정마을회, 주제 포럼C,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제주범대위, 제주해군기지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평화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제주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 연대,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화쟁위원회 등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화쟁위와 중앙종회 지홍 지현 법안 적천 스님, 자성과쇄신결사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은 2월 24~25일 강정마을을 방문했다. 스님들은 24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제주 국제평화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는 '강정을 생명평화마을로,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를 주제로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평화운동가와 전문가, 강정마을 주민들을 포함한 국내의 평화운동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도법 스님은 '강정 마을에 생명평화의 꽃을 피우게 합시다'라는 내용으로 인사말을 전했다.

도법 스님은 인사말에서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경찰과 해군은 구럼비 해변에 펜스를 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강정마을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외면하면 한반도 구성원들이 꿈꾸는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 평화적 해결만이 정답"

이어 지홍 스님 등 종회의원 스님들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 평화적 해결만이 정답입니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스님들은 "중생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동체대비행을 다하지 못한 불교계의 오늘을 참회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갈등과 고통의 멍에를 벗겨줄 주체는 주민도, 활동가도 아니고 바로 정부다"라며 정부의 변화를 촉구했다. 또 "정부는 일방적 공사강행, 사법처리 등 극단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평화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반평화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평화를 깨는 행위이다. 해군기지 백지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평화회의는 문정현 신부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와 강정마을 주민들의 '제주평화선언문 낭독'으로 마무리 됐다.

스님들은 평화회의 참석 후 강정마을로 이동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25일 아침 해군기지 건설 현장인 구럼비 해변을 방문했다.

이에 앞선 17일, 화쟁위원회와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상임대표 퇴휴), 정의평화불교연대(공동대표 이은봉, 최연, 우희종)은 '쌍용차 희생자를 위한 천도재 및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법회'를 서울시청 앞 대한문에서 봉행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지홍 스님이 강정 마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종단협, 유사단체 난립 적극 대처

2012년 정기총회 및 이사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가 유사종단 및 단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매년 부처님오신날 실시하던 기원법회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종단협은 2월 22일 AW센터에서 '제48차 정기총회 및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올해 주요안건과 예산안을 승인했다.

종단협은 특히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올해, 유사명칭 단체가 난립할 경우 불교계의 위상 실추가 우려된다며 관련 규정을 정관에 신설키로 했다.

유사종단 및 유사단체는 종단협에 가입하지 않은 불교계 군소종단들이 회원종단의 명칭을 유사하게 사용하거나 단체를 결성해 회원종단과 본회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종단과 단체를 지칭한다.

이날 종단협은 한국불교종정협의회,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등을 유사단체로 제시했다. 또, 종단협 회원사 간부가 유사단체 및 기구에서 임원활동을 하는 경우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회원 가입을 신청한 정토종에 대해서는 가입을 승인했다.

종단협은 1980년대부터 매년 부처님오신날이면 대통령을 초청해 국가발전을 기원하는 법회를 개최해 왔다. 지난해 현 정부의 불교폄하가 계속되면서 행사를 보류했으나, 올해에도 기원법회 봉행을 유보키로 했다.

박기범 기자

정치와 종교의 바른 길을 모색한다

만해축전 심포지엄

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오현)는 '정치와 종교, 뗄 수 없는가'를 주제로 3월 6일 오후 1시 30분부터 만해NGO교육센터에서 2012만해축전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제1부에서는 '정교유착 어떻게 끊을 것인가? '과학에 묻는다'를 주제로 장대익 서울대 교수가 발제한다.

제2부에서는 사랑의 교회 특혜 시비를 주제로 허진민 변호사가 발제한다.

(02)2278-1141

박기범 기자

"스님 교화 만대에 빛날 것"

지관스님 49재 봉행

조계종 前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49재가 2월 1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49재에는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 최광식 문화체육부장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일본불교 관계자들과 종단 대표, 손학규 前 통합민주당 대표, 박세일 국민생각 대표, 홍준표 前 새누리당 대표 등 2500여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엄수됐다.

49재가 끝난 후에는 불자들이 지관 스님의 사리를 친견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관 스님은 1월 2일 서울 정릉동 경국사에서 지병인 폐질환으로 인해 "무상한 육신으로 연꽃을 사바에 피우고 헛깨비 빈 몸으로 법신을 적멸에 드러낸다"는 사세게(辭世偈)를 남기고 법랍 66년, 세수 80세로 입적했다.

주성원 기자



"부처님 가피를 세계로!" 단일사찰로는 최초로 서울 조계사(주지 토진)가 대학생 해외봉사단을 발족했다. 조계사는 불자들이 대웅전을 가득 채운 가운데 대학생회 해외봉사단 '가피' 발대식을 2월 22일 개최했다. '가피'는 15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조계사 제1기 대학생 해외봉사단으로 조계종 교육조직국장 지견 스님(사진 왼쪽)과 2월22~28일 6일간 캄보디아로 봉사활동을 떠났다.

주성원 기자



선거공영제 등 두고 반응 제각각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개정 특위 공청회
제도 시비 속 비구니 참종권 확대 주장 눈길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소위원회(위원장 법안, 이하 특위)가 (가칭)통합선거법(안)을 대중에 선보였지만 사부대중간 이견만을 확인한 채 끝났다.

특위는 2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선거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특위위원장 법안 스님은 주제발제 '각급 선거제도의 현황 개선방안'를 통해 선거법 제정안 주요 내용 등을 발표했다.

법안 스님은 "금권선거 등 병폐가 심각한 현행 종단 선거 제도를 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강조했다.

통합선거법(안)은 종단 내 주요 선거인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원, 교구종회의원, 본사주지 관련 선거를 통합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 스님은 321명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는 총무원장 선거는 교구본사 주지, 문중 등에 의해 간섭을 받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스님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강화 ▷선거공영제 도입 ▷벌칙강화 ▷교구종회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총무원장 임기를 5년 또는 6년의 단임제로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법안 스님은 이번 선거법 제정안의 핵심을 '선거 공영제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선거 공영제는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행정기관이 선거운동을 관리하거나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제도다.

발제 후 토론자들은 종단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했으나,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선에서 보완하자는 의견과 좀 더 개방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엇갈렸다.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은 "선거법 제정안 대다수의 내용이 종단의 근간인 종헌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세속에서도 대통령 임기의 4년 중임제가 거론되고 있다. 단임제로 바꾸자는 것은 재고돼야 할 것이다"며 단임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선거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교구종회 · 선거벌칙 강화
총무원장 직선제 등 제안

박재현 월정사 종무실장은 "종단은 선거법제정안은 지나치게 국가의 공직선거법을 따라가고 있고, 핵심적 사안에 대해서는 비껴간 흔적이 보여 아쉽다. 선거법은 한번 개정되면 다시 개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세속에서도 대통령 임기의 4년 중임제가 거론되고 있다. 단임제로 바꾸자는 것은 재고돼야 할 것이다"며 단임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박재현 월정사 종무실장은 "종단은 선거법제정안은 지나치게 국가의 공직선거법을 따라가고 있고, 핵심적 사안에 대해서는 비껴간 흔적이 보여 아쉽다. 선거법은 한번 개정되면 다시 개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세속에서도 대통령 임기의 4년 중임제가 거론되고 있다. 단임제로 바꾸자는 것은 재고돼야 할 것이다"며 단임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박재현 월정사 종무실장은 "종단은 선거법제정안은 지나치게 국가의 공직선거법을 따라가고 있고, 핵심적 사안에 대해서는 비껴간 흔적이 보여 아쉽다. 선거법은 한번 개정되면 다시 개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세속에서도 대통령 임기의 4년 중임제가 거론되고 있다. 단임제로 바꾸자는 것은 재고돼야 할 것이다"며 단임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박재현 월정사 종무실장은 "종단은 선거법제정안은 지나치게 국가의 공직선거법을 따라가고 있고, 핵심적 사안에 대해서는 비껴간 흔적이 보여 아쉽다. 선거법은 한번 개정되면 다시 개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세속에서도 대통령 임기의 4년 중임제가 거론되고 있다. 단임제로 바꾸자는 것은 재고돼야 할 것이다"며 단임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박재현 월정사 종무실장은 "종단은 선거법제정안은 지나치게 국가의 공직선거법을 따라가고 있고, 핵심적 사안에 대해서는 비껴간 흔적이 보여 아쉽다. 선거법은 한번 개정되면 다시 개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세속에서도 대통령 임기의 4년 중임제가 거론되고 있다. 단임제로 바꾸자는 것은 재고돼야 할 것이다"며 단임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박재현 월정사 종무실장은 "종단은 선거법제정안은 지나치게 국가의 공직선거법을 따라가고 있고, 핵심적 사안에 대해서는 비껴간 흔적이 보여 아쉽다. 선거법은 한번 개정되면 다시 개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세속에서도 대통령 임기의 4년 중임제가 거론되고 있다. 단임제로 바꾸자는 것은 재고돼야 할 것이다"며 단임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박재현 월정사 종무실장은 "종단은 선거법제정안은 지나치게 국가의 공직선거법을 따라가고 있고, 핵심적 사안에 대해서는 비껴간 흔적이 보여 아쉽다. 선거법은 한번 개정되면 다시 개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세속에서도 대통령 임기의 4년 중임제가 거론되고 있다. 단임제로 바꾸자는 것은 재고돼야 할 것이다"며 단임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실행위원 동출 스님과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직선제와 종단 대중공의의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다. 중앙종회의원 탁연 스님은 비구니 참종권 확대를 강조했다.

동출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는 비구, 비구니 구족계를 받은 사람들이 직선제를 해야 한다. 솔직히 말하면 321명 돈으로 얼마면 되겠는가? 이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총무원장이 되면 또 당선되고 싶을 것이다"라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부처님 당시 승가의 조직운영원리는 공화주의, 평등주의, 비폭력주의였다. 지금 종단에서 이것이 제대로 구현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대중공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탁연 스님은 비구니 참종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스님은 "승가 구성원의 절반이나 되는 비구니들은 총무원장을 포함한 교육원장, 포교원장 및 호계원장, 하다못해 호계위원 선거에서마저도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선거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면 비구니도 비구와 똑같은 산중총회 구성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성철 탄신 100주년 순례

백련불교문화재단 · 불교인재원 공동 주최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스님의 수행 도량을 순례하는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과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은 성철 스님의 수행도량 24곳을 매월 한 곳씩 순례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2월 12일 밝혔다.

불교인재원과 백련불교문화재단에 따르면 이번 순례는 3월 31일 성철 스님 탄신지인 겁외사에서 고불법회를 시작으로 2014년 8월 해인사 백련암에서 회향할 예정이다. 각 사찰은 성철 스님이 머물렀던 연도 순서에 따라 방문하게 된다. 순례는 매월 첫째 주 목, 금, 토요일에 실시되며 순례 회향 후에는 동참회원 및 후원 불자를 위한 기념비와 기념지에 명단을 수록해 보관한다.

순례에는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과 24곳 순례 사찰의 주지 스님이 지도법사로 함께한다.

박기범 기자

■순례 일정과 성철 스님의 수행기간

년도	날짜	사찰명	수행기간
2012년	3월31일	산청 겁외사(생가)	24세까지 기거
	4월26~28일	산청 대원사	1935년
	5월24~26일	합천 해인사	1936년 수계득도
	6월21~23일	부산 범어사	1936년 하안거 1938년 동안거 비구계
	7월 5~7일	양산 통도사 백련암	1937년 동안거
	8월30~9월1일	영천 은해사 운부암	1939년 하안거 1940년 동안거
	9월20~22일	대구 동화사	1940년 오도송
	10월11~13일	순천 송광사	1941년 하안거
	11월 1~3일	예산 수덕사	1941년 동안거
2013년	3월28~30일	서산 간월암	1942년 하 · 동안거
	4월25~27일	보은 법주사 복천암	1943년 하안거
	5월23~25일	선산 도리사	1943년 동안거 1944년 하안거
	6월13~15일	문경 대승사	1945년 하 · 동안거
	7월 4~6일	문경 봉암사	1947년 결사 1943년 하 · 동안거 1949년 하안거
	8월29~31일	부산 기장 묘관음사	1949년 동안거
	9월26~28일	고성 문수암	1950년 하 · 동안거
	10월10~12일	통영 안정사	1951년 동안거
	11월 7~8일	창원 성주사	1952년 동안거 1953년 하 · 동안거 1954년 하 · 동안거
2014년	3월27~29일	남해 용문사	백련암 1955년 하안거
	4월24~26일	대구 파계사	성전암 1946년 하 · 동안거 1955년 동안거
	5월22~24일	부산 해월정사	1964년 하안거
	6월12~14일	서울 도선사	1964년 동안거
	7월 3~5일	문경 김용사	1965년 하 · 동안거 1966년 하안거
	8월28~30일	합천 해인사 백련암	1966년 하 · 동안거 1993년 열반
		금강산 마하연 (미확정)	1939년 동안거 1940년 하안거

조계종, 승보공양운동 전개

출가 · 열반절 맞아 참회발원 정진주간 선포

조계종이 출가열반절(2월 29일~3월 7일)을 맞아 참회발원 정진주간을 선포하고 조계종이 스님들에 대한 존경심을 되새기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출가절(음력 2월8일)과 열반절(음력 2월15일)을 맞아 재가자들이 스님들의 수행 · 전법을 외호하는 21세기 승보(僧寶) 공양운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승보공양운동'은 아름다운 승가공동체 정신회복과 재가자의 보시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관련 사업들은 승려노후복지제도 정착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승보공양운동은 출가열반절 · 백중 승보공양 행사와 승보공양 후원의 밤 개최를 비롯해 상시 프로그램으로 ▷승보공양 기금모금 동참 ▷노스님 간병하기 등이 준비됐다.

캠페인 확산을 위해 조계종은 승보공양의 정신을 설명하는 소책자를 제작하고, 승보공양의 공덕을 설명하는 스님들의 법문자료 배포 등 홍보 및 교육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일련의 사업은 교구 및 사찰 승보공양운동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조직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올바른 신행문화와 참되고 진실한 참회를 통한 일상적인 신앙실천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계기 마련을 위해 승보공양운동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출가열반절 참회발원 정진주간으로 선포하고 승보공양 모금운동 전개와 함께 매일 정진법회를 봉행한다.

출가절 특집 31면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소망교도소 종교편향 시정을"

종평위, 국가인권위 · 법무부 등에 조사 촉구

직원채용 과정에서 특정종교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게 한 소망교회에 대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혜용)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종평위는 2월 17일 국가 인권위원회, 법무부, 소망교도소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27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국내 첫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는 운영비의 90%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소망교도소는 최근 실시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원서에 ▷종교 ▷신급 ▷직분 ▷교회명과 세례연도 등을 기록하도록 했다. 종평위는 이 부분이 특정종교인만을 위한 항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소망교도소가 응시원서를 통해 특정종교 신자를 가려내기 위한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직원 채용시 종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다.

종평위는 이에 따라 관련 기관과 소망교회에 종교편향 여부 조사와 직원과 재소자의 종교자유가 명확히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국영교도소 재소자 중 입소자 선정 절차와 재소자 교화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종교차별 행위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종평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소망교도소가 특정종교에 편향된 응시원서를 배부한 것은 응시자들의 종교자유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종교에 의한 차별 금지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총지종 종령 추대

제11대 효강 대종사



불교총지종(통리원장 지성)이 제11대 효강 대종사의 종령 추대 법회를 2월 14일 총지사에서 봉행했다. 효강 대종사는 1월 열린 총지종 승단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종령에 추대됐다.

제11대 종령으로 재추대된 효강 대종사는 경남 밀양 출신으로 1951년 밀교에 입교해 중앙교육원장, 법장원장, 제5 · 9대 통리원장, 제10대 종령,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및 불교TV, 불교방송 이사 등을 역임했다.

박기범 기자

2012 한 마 음 아 버 지 마 당



"당신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수강생 모집

대 상	아버지면 누구나	인 원	선착순 40명(선착순 마감)
일 정	2012년3월10일(토)~4월4일(토)	수강료	10만원
시 간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3시 / 1주차와 6주차는 오전 10시 ~ 오후 3시까지	마 감	2012년3월4일(일)
		문 의	한마음과학원 031-471-6926~7

※자세한 참가방법 및 절차는 www.hansi.org에서 확인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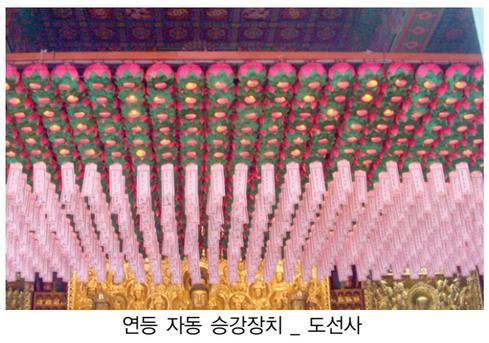
찬덕불교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합니다.

전선(케이블)_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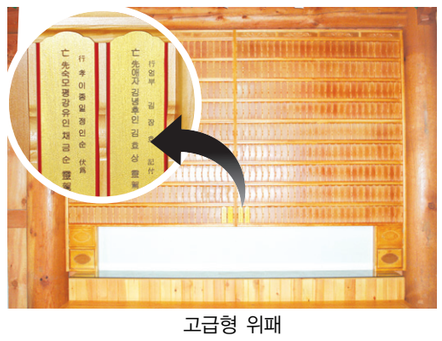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등



팔각접등영가등 만월영가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만 월 등 종 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일 주 문



재17회 포교사 고시 실시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2월 19일 전국 8개 고시장에서 제17회 포교사 고시를 실시했다. 최종합격자는 8월 경 확정된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장 취임

前 불교중앙박물관장 법하 스님은 2월 22일 통도사 성보박물관장으로 취임했다.



BBS 우수포교프로 지원

한국불교 금강선원 총재 활안 스님은 2월 28일 BBS불교방송 사장실에서 BBS우수포교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위한 1000만원을 전달했다.



제5기 승만경 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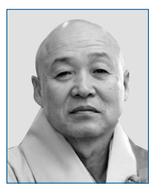
이인자 승만경연구회 회장은 3월 13~5월 1일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에 제5기 '승만경 강좌'를 실시한다.



제17기 국제포교사 선발

배광식 국제포교사회 회장은 3월 18일 제17기 국제포교사 연수생을 선발, 3월 31일~10월 13일 연수를 실시한다.

〈인사〉 약사사 주지에 지준 스님 직할교구 사무국장에 성진 스님





서울 약사사 재산관리인에 前 중앙종회 부의장 지준 스님(위)이, 직할교구 사무처 사무국장에 성진 스님(아래)이 임명됐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월 20일 지준 스님과 성진 스님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자승 스님은 "열심히 주지 소임을 수행해 신도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성진 스님에게는 "직할교구는 인사고과업무가 투명하고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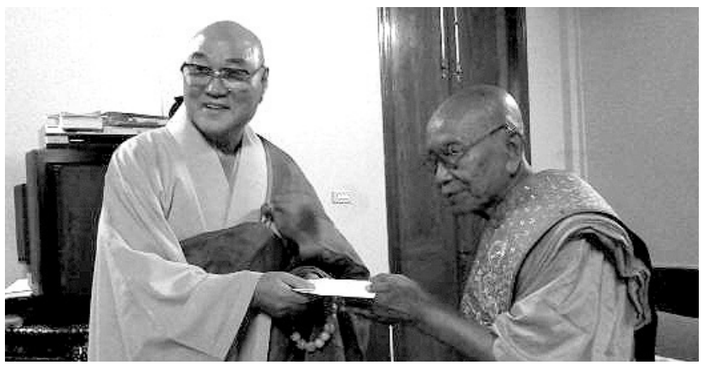
지준 스님은 1966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했으며, 1978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했다. 은사는 법인 스님, 지준 스님은 울산 월봉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극락암 호구선원, 영축총림 선원에서 3안거를 성만했다. 현재 통도사 부주지다.

직할교구 사무처 사무국장 성진 스님은 1993년 통도사에서 청하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했으며, 1998년 통도사에서 청하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했다. 은사는 월성 스님. 성관사 대각선원과 고불총림 선원에서 12안거를 성만했다.

노덕현 기자

"100년 내다보고 돕는다"

월서 스님, 천호희망재단 설립



월서 스님(사진 왼쪽)이 캄보디아 승왕 텝봉 스님에게 교과서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10년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며 사람을 키웁니다. 캄보디아 인재불사는 먼 미래를 내다본 양국관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조계종 원로의원 월서 스님이 2월 7일 캄보디아 승왕 텝봉 스님 초청으로 프놈펜 승왕청을 방문해 캄보디아 벽오지 학교 교과서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교과서 지원은 캄보디아 정부와 승왕청 요청에 의한 것으로 월서 스님은 캄보디아를 돕기 위해 향후 '천호희망재단'을 설립해 재정상태가 열악한 캄보디아 북서부 쁘레아비히어 주와 오도르민쩨이 주 학교 중 매년 1~2개 교를 선정해 교과서를 지원한다.

월서 스님은 1차로 쁘레아비히어 주 쫑산군 소재 레이디 소말리 고등학교에 교과서를 지원했다.

월서 스님은 "은사 금오 스님이 1964년 캄보디아에서 열린 '세계불교도 대회'에 참석한 인연이 깊다"며 이번 지원의 동기를 말했다.

스님은 이어 '10년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며 사람을 심는다'(십년수목백년수인 十年樹木百年樹人)는 고사를 들며 "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는 일이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유대인에게는 '자식에게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배워주라'는 말이 전한다"며 캄보디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캄보디아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텝봉 스님은 "최근 캄보디아 여성들이 한국인과의 결혼이 잦아지고 있다. 한국불교계가 캄보디아 이주여성들에게도 따뜻한 관심을 부탁 한다"고 말했다.

한편, 캄보디아는 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40~50대 남자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 국가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캄보디아는 킬링필드 이후 인구 40%가 14세 미만의 아이들로 구성돼 수많은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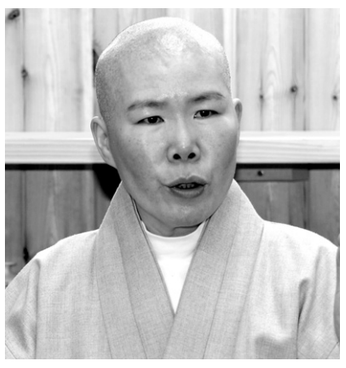
또 도시를 제외한 농촌 지역은 정부 재정 부족으로 교과서가 턱없이 부족하다. 심지어 선생님들만 교과서를 갖고 수업하고 학생들은 책 없이 배우는 실정이다.

월서 스님은 "오늘날 베트남이 동남아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데는 호치민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도 베트남 미래를 위해 27명의 인재들을 러시아에 유학시킨 것이 컸다"며 불교국 캄보디아 재건을 위한 한국불자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후원계좌 011759-01-001326(우체국: 금오선수행연구원)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노스님들 모시고 싶습니다"

'행복한 동행' 준비 중인 홍천 자명사 지명 스님



"소임 없이 한주로 머물던 노스님의 방은 얼음장처럼 찼습니다. 온돌방을 덥힐 형편이 안 되셨다는 말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해 전 추운 겨울 강원도 한 사찰에서 한 노스님을 만난 홍천 자명사 지명 스님(사진)의 말이다.

지명 스님은 노스님에 대한 안타까움을 잊지 못하고 원력을 세웠다. 스님은 홍천 자명사를 요양사찰로 만들고 승려노후복지시설로 꾸몄다.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사단법인 '행복한 동행'을 준비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요양사찰 자명사는 교구본사 단위가 아닌 개별사찰로는 최초이다. 구좌형 요양시설이 아닌 재산이 없는 스님에게는 무보시로 운영되는 시설이다.

"자명사 요양시설은 종단을 초월한 승가공동체입니다. 어느 종단소속 스님이든지 세납65세 이상이면 입소가 가능합니다."

자명사는 3월부터 우선 세납65세 이상의 비구니 노스님들부터 모실 계획이다. 최대 30인을 수용할 수 있는 객실형 요사채가 구비돼 있다. 1인의 개인실 배치도 가능하다.

자명사에는 사리가 봉안된 적멸보궁과 요사채가 있다. 노스님들의 열반 이후 부도를 위한 공간도 300기 규모로 별도로 마련돼 있다.

지명 스님은 시설 문제로 비구니 노스님들부터 입소를 받지만, 비구 노스님들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사부대중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수행공동체를 꿈꾸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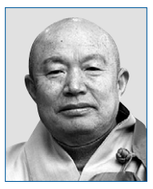
"스님들 개인이 노후대책을 세워야 하다 보니 개별화·사유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것이 승가 내에서 갈등의 불씨이기도 합니다. 노승에 대한 복지대책은 불교계 전체의 과제입니다."

스님은 요양사찰 자명사를 사부대중의 원력을 모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사단법인 출범도 그 일환이다. 특히 스님은 재가불자의 도움을 받아 양·한방 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봉사단 운영과 뜸뜨기와 침놓기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지명 스님은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033) 434-1571

조동섭 기자

순천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 임명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총림 송광사의 새주지로 무상 스님(사진)을 임명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총림은 대중이 많지만 예산이 적어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다. 방장 스님과 어른 스님들을 모시고 잘 소임을 맡아 달라"고 당부했다.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은 "주지 소임을 잘 할 수 있도록 원장 스님이 지켜봐 달라"고 화답했다. 전달식에 이어 무상 스님은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 자비나눔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무상 스님은 성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5년 도견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같은 해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다. 서울 봉은사 주지, 영월 법흥사 주지,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과 학교법인 승가학원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현재 하남 광덕사 주지, 승가학원 이사를 맡고 있으며 지난 해 4월 법규위원장에 선출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제10회 유심작품 수상자 선정

만해사상실천선양회(이사장 오현)는 2월 22일 '제10회 유심작품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시 부문에 이홍섭 시인(터미널.2), 시조부문에 이종문 시인(묵값은 내가 낼게), 학술부문에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만해 한용운 연구)가 선정됐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동국대, 영진위와 영화영상 MOU체결

동국대가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의석)와 영화·영상 미디어 교육협력 활성화에 나선다.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2월 23일 김의석 영화진흥위원장과 동국대 본관 로터스홀에서 '동국대-영화진흥위원회 영화·영상 미디어 교육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향후 ▷전문인력 교류 및 관련 시설기자재 상호협력 △교육사업 프로그램 개발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홍보 ▷협력사업 협의회 구성 등을 추진한다.

한편,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2월 22일 동국대 본관에서 이혜숙 한국병원약사회 회장과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Pharm-MBA 과정, 약학대학 및 약학대학원 장학 및 학술교류 협약을 맺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중앙승가대 제30회 학위수여식 중앙승가대(총장 태원)는 2월 23일 교내 대강당에서 2011학년도 제30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진관·퇴휴 스님 등 2명이 박사학위를, 불교학과 6명 사회복지학과 5명 등 11명이 석사학위를 받는다.
또, 64명이 학부를 졸업했다. 대학원 총무원장상은 진관·퇴휴 스님이, 학부 수석(총무원장상)은 역경학과 정헌 스님이 선정됐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2012학년도 전통범음·범패연구원 신입생 모집안내

불교의식은 불교학문과 더불어 수행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법한 불교의식이 곧 수행의 연속이라는 걸 불제자는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불자라면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의식은 기본이라 하겠습니다. 본 전통범음·범패연구원의 설립목표는 부처님 사상을 기본으로 원만광대한 원력으로 보살도를 실천하여 불조의 혜명을 잇는데 있으며 한국불교의 얼이 담겨져 있는 불교전통의식을 기초부터 상주권공(범음·범패) 과정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전문교육기관입니다.
본 연구원의 신입생 모집은 각종 불교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배우실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승, 속, 종단, 종파에 관계없이 불교전통의식에 관심이 있고 또 불·보살님 전에 지극한 정성으로 올리는 음성공양인 범음·범패와 작법무, 각종 불공, 천도의식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 입 학 안 내 ❖

1. 모집과정 : 범음·범패 과정(상주권공)
2. 입학대상 : 승려, 전법사, 포교사, 재가불자 등 종단에 관계없이 가능함.
3. 교육기간 : 2년 과정(방학 없이 특별휴강 있음)
4. 접 수 처 : 한국불교태고종 광주·전남 종무원
5. 연 락 처 : 총 무 010-2073-5070 / 062-365-5000
종무원 062-375-1820 / 062-381-0944
6.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99-7번지
7. 제출서류 : 입학원서, 수강신청서(이상 본 연구원 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8. 접수기간 : 불기 2556년 (2012) 2월 1일(음 1. 10) 수요일부터
3월 3일(음 2. 11) 토요일까지
(청강생, 편입생 수시접수 가능)
9. 입학식 및 개강일시 : 2012년 3월 9일(음 2. 17) 금요일 오후 12시
※강 주 : 상진 스님 (前 보우승가대학, 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교육원 불교의식반 강주, 現 안정불교대학 범패학과 강주)
※강 사 : 혜광 스님·도원 스님

❖ 강 의 내 용 ❖

	1학기	2학기
1학년	◈ 기초 과정 ◈ 기 초 : 목탁잡고 치는 법, 요령흔드는 법, 삼귀의례, 사홍서원, 천수경, 도량석, 종송(전통범음) 예 불 : 향수해례, 사성례(육성례) 불 공 : 삼보통청의식 축원 시 식 :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시다림 상주권공 : 초할향, 등게, 합장게, 개계, 쇄수게, 복청게 ※ 막바라(요잡바라 기본과정)	상주권공 : 사방찬, 도량게, 참회게, 헌좌게 작 법 : 천수바라, 착복(나비춤), 요잡바라 등 ◈ 천도의식 본 과정 ◈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지장청(상단), 신중퇴공, 관음시식, 구병시식, 시다림
2학년	◈ 천도의식 본 과정 ◈ 봉송, 회향, 공덕게 ▶ 관욕태징, 관욕바라, 화의재바라, 다게작법, 천수바라, 사다리니바라, 욕건이(소리춤), 운심게(소리춤), 가지게(소리), 화청, 축원화청	◈ 시현회 준비 ◈ 〈재채비, 사물다루는 과정〉 1. 실전행사에 대비한 유기적인 의식진행 (법주, 바라지, 목탁, 요령, 태징, 북) 2. 작법 고급과정 (사방유신, 귀경이, 향화게, 법고무, 옴남 등 작법실습) 3. 특 강 : 재학생들의 요구 사항 및 점안의식, 생전예수생칠일재등에 관한 의식실기 및 설명

한국불교태고종 광주·전남 종무원
전통범음범패연구원 원장 호 산 강주 상 진

한국교민은 타종교로… 미국 불교는 급성장

조계종 국제불교학교 제1회 미주연수 성료

9명 비구니 스님들

1월 16일~2월 20일

조계종 국제포교 인재양성 기관인 국제불교학교가 1기생을 대상으로 미국연수를 실시했다. 국제불교학교는 2년제 비구니 특수교육기관으로 국제화시대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불교 포교를 위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불교학교 1기생 9명들은 1월 16일 ~ 2월 20일 36일간 워싱턴DC와 뉴욕 지역의 한국사찰을 비롯한 해외사찰과 타종교의 활동현장을 살펴보고 한국불교의 발전 방향과 해외포교에 대한 원력을 다졌다.

이번 해외연수는 1기 학생들이 1년의 교육과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었다. 미국 수도인 워싱턴DC와 세계의 중심으로 불리는 뉴욕시의 불교사찰 현황을 살펴보고 미국에서의 불교 현주소를 규명하고 향후 한국 스님들이 미국포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기회가 됐다. 또 미국 내에 분포한 타종교와의 대화를 통해 소수종교로서 포교활동 전개에 대한 방안도 모색했다.

연수단은 워싱턴DC에서는 한국사(American Zen College, 주지 고성)에서 3주간 머물렀으며 뉴욕에서는 조계종 해외교구 동부지역 교구본사 불광선원(Bulkwang Zen Center, 주지 휘광)에서 2주간 머물렀다.

이번 연수 인솔자로 다녀온 국제포교학교 전임교수 지정스님의 자문을 받아 미국연수단의 활동을 소개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자국 불교세가 현지 사세(寺勢)

한국사찰을 포함한 대부분의 불교사찰들이 미국 교민을 위한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교민을 위한 활동이 사찰 경제 기반을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영어로 법회가 가능한 사찰들은 현지 미국인을 위한 명상수행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첫날 방문한 한국사의 경우 일요일마다 한인법회를 열어 교포들이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일요 한인법회는 좌선과 〈화엄경〉 강의로 진행되는데 참석 신도수가 60~70명 정도로 미주 한국사찰 중에는 상당히 성공한 경우다.

한인사는 이를 바탕으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외국인을 대상으로 참선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사회에 큰 호응을 받고 있다. 10명 정도의 참석자들 중 대부분이 수년째 주지 스님의 지도를 받고 있다.

한국사에서 얼마 떨어져있지 않은 법주사는 한국불교 양식 보다 현지상황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법주사는 경내를 서예작품과 불상 등으로 꾸민 화랑 느낌이 많이 났다.

법주사를 비롯한 미주지역의 사찰들은 미국사회에서 한인들이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분 주말 한글학교를 운영하는데 그 이유는 세대를 지나며 한국말을 전혀 못하거나 서툰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법주사의 경우에는 지장단을 효행단이라 이름 붙여 한인교포들에게 효사상을 일깨워 주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었다. 페어팩스에 위치한 보림사는 주말법회에 100명 규모의 신도들이 참석하고 있다. 주변에는 종교학과를 설치한 대학에 명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었다.

특이한 점은 불교 교세가 강한 나라일수록 현지교민 중 불자수가 많아 사찰들의 규모가 크다는 점이었다. 사찰의 경제적인 안정으로 활동하는 스님들의 숫자도 훨씬 많았다.

워싱턴 DC의 태국사찰 왓 타이가 그 예이다. 왓 타이는 주말 법회에 보통 1000명이 넘는 신도들이 찾는다. 특별행사 시에는 5000명에서 8000명까지 방문한다.

이 사찰은 주미 태국대사를 비롯해 현지 태국 유력인사들이 신도로 활동하고 있다. 태국의 큰 스님들도 매년 수차례에 걸쳐 왓 타이에서 자국인과 미국인을 위한 정기 수행지도에 나선다. 왓 타이에는 스님 6명과 사미니 1명이 있어 사찰행정, 법회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연수단이 방문한 날 점심공양시간 신도들과 수많은 승용차들의 긴 행렬이 아직도 인상이 강하다.



조계종 국제불교학교 1기생 9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뉴욕 샴발라센터를 방문해 심리학자와 대담을 하고있다.



조계종 해외 교구 동부지역 교구본사 불광선원 일요법회에 연수중인 국제불교학교 학인스님들이 참석했다.



블루클리프 사원 스님들과의 만남

한국사찰 교민 수 비해 불자 적어
미국인들 건강 위해 사찰 찾아

반면 상대적으로 불교세가 강한 나라일지라도 교민수가 적은 사찰들은 그리 넉넉하지 않다. 특히 한국사찰들은 교민 수에 비해 불자수가 적어 사찰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런 상황은 가까운 거리에 한국사찰들이 있으면 서로 민폐가 될 정도였다. 그래서 한국 스님들은 주변에 한국사찰이 있는지 일정 거리를 두고 사찰을 연다고 한다.

미국인 포교 사찰 운영과 별개

미국인 대상으로 사찰 운영의 중점을 둔다면 재정안정에 기여하지 않을까. 현지에서 본 답은 '아직은 아니다' 였다.

그것은 미국인들이 사찰을 찾아 명상프로그램에 참여해도 불자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각박한 현실에서 오는 스트레스 해소나 건강을 위해서 사찰을 찾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사찰에 대한 소속감이 부족해 회비만 겨우 낼뿐 사찰이 잘 운영되는지, 포교를 통해 사세를 왜 확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것이다.

한 한국사찰에서는 미국인 회비가 30년 전과 같다는 것에 놀랐다. 회비가 비싸면 미국인들이 오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인들이 원하는 '휴식공간'으로 사찰과 선센터를 제대로 제공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고가의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인 중에는 불자가 없는가? 그렇지는 않다. 미국에서 불교는 그 어느 종교보다 교세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미국인 수행자들 또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미국에는 불교가 전래된 지 80년이 넘었다. 각 선센터에는 초보수행자들도 많았지만 20~30년씩 수행한 이들도 상당히 많았다.

중요한 점은 오래된 수행자들이 재가 수행자로서 충실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연수단은 이를 보고 향후 미국에서 불교가 반드시 꽃을 피울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티베트 · 일본 · 베트남 현지화 으뜸

연수단이 방문한 워싱턴과 뉴욕에서 미국 현지화가 가장 잘 진행된 곳으로는 티베트 불교 사찰과 일본선불교 사찰, 프랑스 플럼빌리지의 미국 수행센터인 정념수행센터(Mindfulness Practice Center)를 들 수 있다.

이곳들은 사찰운영 전반적인 단계가 이미 미국인들로 구성돼 있을 정도였다. 각기 자국의 문화요소가 있지만 그 내용에서는 미국화가 돼있었다. 티베트 · 일본 · 베트남의 문화와 함께 미국 성향을 반영한 승가의 수평성과 유연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동양 문화가 조직적이고 수직적이라면 미국 문화는 부처님 평등사상과 자비실천

불교사상과 수평적 미국사상 조화
미국사회에서 종교화합 방향 읽다

가르침과 더욱 맞을 수 있는 수평적이고 실천 수행 소통의 화합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그 예는 이들 사찰에서는 생명에 대한 자비심 실천으로 출 · 재가자들이 모두 채식주의를 실천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티베트불교의 현지화로 성공적인 예는 미국 전역에 분포돼 있는 샴발라 명상센터(Shambala Meditation Center)를 들 수 있다. 1970대 트룽파 린포체가 설립한 샴발라 명상센터는 미국인에 맞는 불교명상수행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었다. 명상을 심리치유에 응용하도록 해 많은 미국 심리학자들이 연구차원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틱낫한 스님의 정념수행센터도 미국 전역에 분포돼있었는데 정념(mindfulness) 수행은 미국에서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수행으로 평가받아 많은 일반인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다문화 선진국답게 열린 마음 눈길

이들 중 가톨릭 신자로 수행방안으로 불교를 접하고 있는 이들도 일부 있었다. 다문화 사회인 미국에서 종교는 어떻게 공존하고 있을까.

현지인들은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가톨릭이 종교간 대화에 적극적이지 않는 보수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연수단이 방문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권위를 자랑하는 국립카톨릭성당은 평소 다른 종교들이 법회를 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활짝 열어 놓을 정도로 열려있었다. 워싱턴 정념수행센터(Mindfulness Center) 활동도 기독교 회 건물 안에서 열렸는데 어릴 때부터 '다름'을 인정하는 미국인들의 특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가톨릭 종립의 명문 조지타운대에서 진행된 불교학강의 토론에서도 학생들의 학구열과 이웃종교에 대한 존중은 연수단에 깊은 감명을 주었다.

반면 한국교민 사회에서는 자신의 종교 외에 다른 종교를 인정치 않는 모습이 보여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코리아 타운 마트에서 마주친 한국아이들이 연수단을 발견하고 반가움인지 겉을 맴돌자 대화를 나누었다. 환히 웃으며 더듬더듬 건네는 한국말 사이에 아이들 어머니가 "목사님 말씀 못 들었어?"라며 멀찌감치 달아나버린다.

교민 사회에서는 한국에서 불자였어도 대부분 타종교로 개종하는 이유가 공항에서부터 사회적응을 위한 모든 것을 교회에서 연결해 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민사회에서 첫인사가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일정도다. 그런 상황에서 이웃종교를 갈라 보는 인식에 한국사찰들의 어려움이 느껴졌다.

하진만 아이들은 순수했다. 대단한 설교나 지원을 바라는 게 아니라 힘든 이민생활을 다독여주고 관심과 애정 하나에 감명을 받는 것이다. 미국사회, 해외포교현장에서 불교가 시작해야 할 마음가짐, 또 성장했을 때에 가져야 할 초심을 일깨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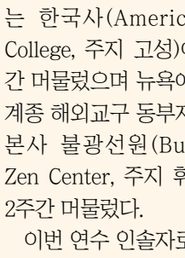
日江스님께서 정리하신 상용의식

책을 내면서...

지금까지 갖가지 의식에 대한 절차나 예법을 기록한 책이 많이 나와 있으나 초심자가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번에 소개하는 각종의식 집은 조예가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의식진행 순서대로 작성하였다. 아무쪼록 본 의법이 법요의식을 진정한 염불로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많이 활용되어 중생계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

편집인 日江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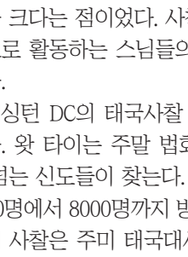
사용하기가 간편하여 스님들에게 최고인기 판매 중!



예경 · 권공의식집

예불에서부터 불공에 이르기 까지 목탁, 요령, 합장표시와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의식 순서대로 되어있어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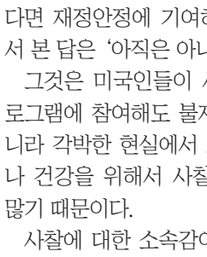
46배판 | 118쪽 | 값 15,000원



불상 점안 의식집

부처님을 모신 후 불상점안 의식은 이 책 한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

46배판 | 59쪽 | 값 9,000원



천도(49)재 의식집

천도재, 구병시식, 지장불공, 관음시식 등 재 의식을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순서별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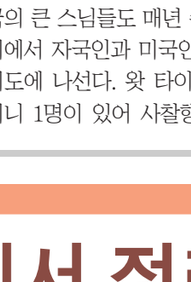
46배판 | 123쪽 | 값 12,000원



고사의식집

가택 평안을 위하여 사용되는 고사의식 집이 알기 쉽게 편집되었다.

46배판 | 130쪽 | 값 13,000원



다비의식 집 (2010신간)

누구나 간절히 기다리던 의식집, 승가다비편과 재가다비편이 입적 후 처음으로 시신을 대하는 순서부터 화장, 매장 등 의식절차가 순서대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하고 세밀한 설명으로 누구나 당황하지 않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58쪽 | 값 15,000원

신간

행복한 운명을 만드는 비결

운명을 지배하는 조상 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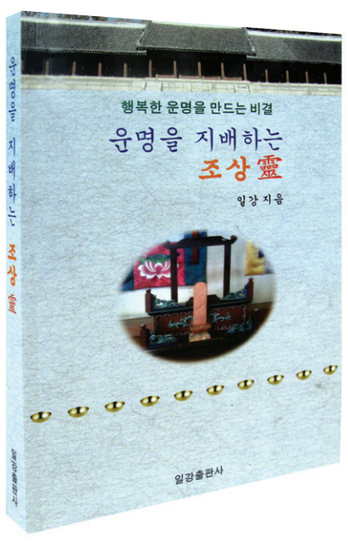
- **구입문의 :** 일강 출판사 02)2237-8543
- 4권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입니다.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67-017536-04-024 / 사단법인 천우종

신간

행복한 운명을 만드는 비결

운명을 지배하는 조상 靈

행복한 삶의 길을 터주는 보물열쇠!
바로 이 책 한권으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 모두가 염원하던 책! 드디어 완성 출간!
- 엄청난 영혼과 운명의 비밀이 담겨있는 책!
- 실제 있었던 체험담이 이 책 속에 들어있다.
- 이 책을 읽고 실천에 옮기면 즉시 소원성취 할 수 있다.
- 바로 조상靈을 만나보고 불가사의한 일을 체험해 보십시오!
- 누구나 한번 읽고 소장해야 할 화제의 필독서!
- 영계(靈界)의 실상을 파헤치고 소원성취의 길로 인도하는 최고의 걸작!
- 종교지도자들이 이 책을 읽고 신도들에게 권해주면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책값 : 12,000원 I 사찰 다량주문 환영

구입문의 : 일강출판사 02)2233-5286, 2237-8543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67-017536-04-024 사단법인 천우종

실버 문화 복지 등 11개 사업 운영

서울노인복지센터 2012년 사업계획 발표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청원)는 2012년 경로 급식을 개선하고 실버 문화인 양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2월 21일 종로구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고품격 급식 등을 포함한 11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2011년 기준 등록회원수가 5만 1800명인 서울노인복지센터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을 매일 2000여 명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명희 부관장은 "정부가 올해 예년보다 저렴한 가격에 쌀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남는 예산을 급식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할 수 있었다"며 "끼니당 500~600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게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관장은 "기존의 단체급식 이미지를 탈피하고 급식의 품격을 높여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센터는 탑골문화예술학교를 통해 실버문화예술인을 양성할 계획이다. 최대 300명을 대상으로 난타 연극 합창 마술 오카리나 등 10개 예술과목을 개설해 교육하고 실버문화공연단을 조직한다.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에 따라 그들의 욕구와 문제에 부합하는 상담사업도 강화한다. 센터는 빈곤 · 건강 · 정서심리 · 가족 · 성 등 노인전문상담을 진행하며 집단프로그램인 '은퇴노인의 길 찾기'를 운영해 어르신들의 우울감 개선과 노인 생애사를 상담할 계획이다.

끼니당 500~600원 더 투자
기존 단체급식 이미지 탈피
고품격 급식, 취업훈련, 세미나 등
노인복지정책 선구자로 나설 것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올해 어르신들에게 고품격 급식을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어르신에게 적합한 취업훈련 직종을 개발하고 고학력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 계획도 마련했다.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해 센터는 취업훈련을 비롯해 사회적 기업운영, 취업알선사업을 강화한다.

지난해 실버바리스타 훈련, 설문조사원 훈련 등을 진행한 센터는 노인 보험, 금융 관련 상품 상담사 등 12개 직종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북카페 삼가연정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서류 준비 중에 있으며, 서울시 고령자기업으로 선정된 '탑리서치'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키 위한 운영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 밖에 센터는 '노인의 성(性)과 사랑' '서울노인복지센터의 기능과 역할'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연구 · 실천하는 노인복지를 구현한다.

센터는 리모델링을 통해 이용공간을 특성화한다. 1층은 갤러리, 도서관, 전문영화관으로 2층은 사회교육프로그램실, 그리고 3층은 공연장과 방송국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청원 스님은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올해 사업방향을 통해 한국노인복지에 어떤 마인드를 제시해줄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이번 주요사업을 통해 노인복지정책 선구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창립 17주년 기념법회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은 2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공연장에서 창립 17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종선 스님, 대오 스님(중앙종회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성웅 스님(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시설장협의회장), 조윤선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불교계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및 조계종직할자원봉사단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종선 스님은 인사말에서 "재단에게 '복지'는 큰 화두이자 숙제다. 사회복지사 48만명 시대에 복지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조성철 회장이 제1부 법회 특별강연자로 초청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 회장은 "사회복지실천가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사회 소외계층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이다. 자원봉사자분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겸손해 하지 말고 당당히 알렸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제2부 행사에서 62개로 구성된 조계종 직할자원봉사단의 화합을 도모하는 봉사팀장 임명식이 진행됐다. 신임봉사팀장은 32명으로 각 팀의 조정자이자 재단과의 중간매개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은 2월 21일 63빌딩에서 '청소년 내 꿈 찾기 의지나눔 4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파티쉐, 학예연구사, 가드너, 공연설비기사, 토피어리강사 등 여러 분야의 종사자들과 만나 진로와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웠다 이나은 기자

이천불교聯, 장애우들 위해 쌀 전달

이천시불교연합회(회장 혜봉, 이하 연합회) 32개 사찰의 스님 · 불자들이 '승가원 장애友 돕기' 행사를 통해 모은 쌀 1408kg와 후원금 125만원을 2월 17일 승가원자비복지타운에 전달했다.

이천시불교연합회 회장 혜봉 스님은 "승가원자비복지타운 장애우들이 남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쌀 나눔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매년 이 같은 행사를 통해 모은 기금을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해 왔다.

승가원자비복지타운 원장 묘전 스님은 "이천시불교연합회 불자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 받았다. "전달해 준 쌀과 후원금은 장애우들을 위해 잘 쓰겠다"고 답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출·재가 함께 불교대중화 노력을'

포교원 · 중앙신도회, '신도임원교육, 재가불자 신년법회' 봉행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가 2012년 한해 전국 교구 및 사찰 신도회 활성화에 주력한다. 중앙신도회는 2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신도임원교육, 재가불자 신년법회'를 봉행했다.

중앙신도회는 이날 행사에서 2012년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주요사업 내용은 중앙신도회 조직체계를 재정비 해 신도회 권리와 의무관계 및 대의성을 확립하고, 단체등록 및 소속단체 교류를 확대 강화할 방침이다.

중앙신도회는 교구신도회의 활성화를 위해 ▷교구신도회 및 단체 창립 지원 사업 ▷고승대덕 수행처 순례단 조직사업의 공동시행으로 전국 조직망 구축 ▷총회에서 교구 및 단체의 대의원 개선 ▷교구신도회 연수교육과 창립교육사업 주관 ▷권역별 지역 간담회 진행 ▷신도시 포교거점 확대 ▷교구신도회 사무소 설치 및 확대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올해에는 신도등록을 30만명으로 배가시키고, 신도멤버십 활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한국불교 세계화와 구호사업을 확대하고, 불자 생활실천 운동 전개 및 신도교육 수행안 등을 개발 · 보급해 신행사업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중앙신도회는 이날 최근 불거진 범어사의 불법선거 의혹 등 불교계에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대해 참회하고 불교계 혁신을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은 ▷종단을 어지럽게 하는 언행에 대해 단호히 배격할 것 ▷교리나 계율 논쟁이 아닌 세속적 사판의 시비를 주장하면서 파당을 형성하는 개인 · 단체에 대해 부화뇌동하지 않을 것 ▷독선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언행을 함부로 해 불교계를 욕먹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출가자와 재가불자들이 존경받고 주류가 되는 교단 풍토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 ▷자성과 쇄신으로 5대 결사를 충실히 수행할 것 ▷종단의 각종 선거에 돈봉투 살포행위를 규탄하고 관련 스님은 산문출송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 결의했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법어에서 "종단의 자성과 쇄신 결사와 더불어 재가불자 신행혁신운동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포교부장 송묵 스님은 "신도 임원들은 새로운 불자들을 이끌고, 이 시대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신도회는 재가불자 신년법회에서 제24대 후반기 회장단 임명식을 진행했다. 선임직 부회장단에는 수석부회장에 이기흥 대한체육회 부회장 · 김성림 불심홍법원 이사, 상임부회장에 손안식 前 전국신도회 사무총장 등이 임명됐으며, 임명직 부회장단에는 이현수 직할교구신도회장 외 8명이 임명됐다.

한편, 포교원은 4월 7일 2012년 포교결집대회를 겸해 '국태민안기원 1만인 계룡산 등반대법회'를 봉행한다. 이은정 기자

지구촌공생회, 국내 저소득 지원나서

100가구에 결연 및 후원…2010년부터 저소득층 지원 본격화



지구촌공생회(이사장 · 월주 스님 사진 왼쪽)가 저소득 가정에 3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불교계 대표적 국제개발구호NGO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가 국내 저소득 가정을 지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구촌공생회는 2월 22일 영화사 설법전에서 저소득 가정 결연 및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결연은 조계종 영화사와 공동주최로 마련됐다. 지구촌공생회는 2010년부터 광진구 내 저소득층 100가구에 후원금 연 3000만원을 지원해 왔다. 이번 행사에는 월주 스님과 자경 스님, 김기동 광진구청장, 권택기 새누리당 광진갑 국회의원, 광진구청 불자모임 반야법우회 민정기 회장과 영화사 신도 150여 명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국가의 원로이자 불교계 큰 어르신인 월주 스님이 광진구에 계시면서 어려운 이웃을 챙겨주셔서 감사드린다. 구청에서도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월주 스님은 "해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영화사 주지 평중 스님의 제안으로 국내 홀몸어르신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사랑과 자비로 우리는 어렵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도와야 한다. 자비가 부처님이고 사랑이 하느님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구촌공생회는 해외원조사업뿐만 아니라 산하 기관은 공생노인복지센터를 통해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광진구청과 연계해 홀몸어르신 식사대접, 칠 · 팔순 잔치 한마당, 송년잔치, 어르신 나들이를 매년 지원하는 등 국내 소외계층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빙의의 시대 증상을 바로 알면 치료법이 보인다!!!



※ 책구입은 인터넷 서점이나 우리출판사(02-313-5047)로 신청하세요.

빙의의 시대

빙의란 무엇이며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또 그 치료법은 무엇인가?
일평생 빙의치료를 공부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사후 영역에 있어야 할 귀신이 인간한테 접신되는 과정과, 귀신을 천도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 등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빙의의 시대 2

〈빙의의 시대〉를 출간한 뒤 수많은 독자와 빙의 환자, 또 그들의 보호자들을 상담하면서 느꼈던 1권에서 못 다한 이야기를 내놓았다.
이 책에서는 귀신에 접신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조기퇴치의 방법, 본인 스스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준다.

귀신 [빙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정신질환 ·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무당 생활이 싫으신 분
- 몸에 통증은 있지만 병원의 진단에는 이상이 없는 분
- 원인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좌골신경통으로 오래 동안 고생하시는 분
- 다른 곳에서 귀신(빙의) 처리를 못하신 분
- 귀신(빙의) 처리를 못할 경우 돈을 받지 않습니다.(환불해드립니다)
- 말기 간암환자

상록정사 빙의의 시대 저자
일광도인 ☎ 02) 743-7679 H·P 010-5040-7679
서울 종로구 숭인동 76번지 롯데캐슬Ⓐ 지동 309호

※ 직접 상담요망, 전화상담은 사절합니다.

“한문경전 오류, 빨리어경전 대조로 보완을”

조계종 교육원 ‘초기불교 교수법 연찬회’ 성료

학인 스님들에게 초기불교의 이해와 교수법에 관해 지도하는 연찬회가 2월 20~21일 이틀간 목동 국제선센터(주지 법정)에서 개최됐다. 이번 연찬회에는 100여 명의 학인 스님들이 모인 가운데 초기불교 전공 교수와 스님들을 초빙해 교육 노하우 및 초기불교를 이해하는 방법론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교수법 연찬회 첫 번째 시간에는 선운사 초기불교승가대학원장 재연 스님이 ‘초기불교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주제로 강의했다.

재연 스님은 먼저 초기경전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역사적 범위에 대해 설명했다. 스님은 “학계에서 말하는 초기불교의 범위는 부처님 열반 후 제자들의 제1차 결집을 거쳐 아쇼카 대왕 재위 시절 목갈리뿟따 띳사(Moggali-putta Tissa; 기원전 3세기 중엽)가 주도한 제3차 결집까지를 통설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한 뒤 “무상(無常) · 고(苦) · 무아(無我)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과 열반 성취를 위한 길을 바르게 익히기 위해서는 초기불교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기불교 교육은 부처님 제자로서의 정체성 확립에도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스님은 초기경전을 가르칠 때, 첫째 경전의 성립과 주요 논쟁의 핵심 및 흐름을 파악하게 하는 것, 둘째 사성제 · 팔정도 등을 유기적으로 이해시키는 것, 셋째 사마타 위빠사나(Samatha-vipassanā) 수행과 관련된 경전들을 선별해 읽히고 내용을 숙지케 하는 것, 넷째 빨리어 및 산스크리트어 사전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문법을 익히게 하는 것 등을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한역 〈아함경〉과 빨리어 경전이 상호 보완자료임을 아는 것 중요
초기불교 교육은 부처님 제자라는 정체성 확립에도 꼭 필요한 과정

재연 스님은 “한문번역에도 오류가 많다. 한문 경전만 보면 안 된다”고 전제하고 “한역 〈아함경〉과 빨리어 경전이 상호 보완자료임을 알고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불교에 관한 모든 논의의 근거를 경전, 즉 일차자료에 두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연 스님 강의에 이어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김재성 교수는 ‘초기경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주제로 초기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입장과 사성제에 입각한 경전 읽기에 대해 설명했다. 경상대학교 권오민 교수는 ‘아비달마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서 아비달마는 무엇이고, 왜 학습해야 하는지를 강의했다. 인도 뿌나大에서 초기불교를 전공한 등현 스님은 ‘초기불교와 대승불교의 관계’로 초기불교의 오온무아(五蘊無我)와 반야심경의 오온개공(五蘊皆空)에 관해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팔리문헌연구소장 마성 스님은 ‘초기불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통해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삼특상(三特相)과 삼법인(三法印)을 조명했다.


선운사 초기불교승가대학원장 재연 스님은 ‘초기불교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주제로 강의했다.

한편, 조계종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초기불교가 당파성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하면 대승불교 및 선불교와 유기적으로 연결 지을 수 있는지 모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빨리 경전 역경(譯經)사업에 힘입어 일반 재가자들 사이에서도 초기불교가 널리 알려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 조계종 교육원은 승가교육 제도개편에 따라 승가대학과 협의해서 초기불교를 교과목으로 편재시키고 학인들을 교육시킬 방침이다. **주성원 기자** jsw@hyunbul.com

“출가자 위의 확립 시급해”

제20차 학술기행 대만불교 참관기

동국대에 구심을 두고 있는 ‘한국불교사연구소’의 제20차 강의기행을 다녀왔다. 한 학기 한 번씩 벌써 10년(2002~2012)째 진행되는 이 학술기행은 그동안 한국불교의 사관과 주체, 주제와 쟁점, 학통과 인물 등을 중심으로 한 강의기행을 넘어 이제는 중국과 일본 및 대만 불교와의 ‘교섭’과 ‘교류’로 이어지고 있다. 종래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과 중국과 홍콩 등은 갈지라도 대만은 정작 비껴가고 말았다. 하지만 최근 대만은 경공업과 중산층을 기반으로 50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외환을 보유한 알짜 부자의 나라고 인도의 4대 불교성지 순례를 대체할 나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의 기행은 4천년 중국 문화유적을 안고 있는 대만고궁박물관에서 시작됐다. 이어 불도유 삼교가 결합된 용산사와 대륙불교의 정신을 잇고 있는 현장사, 현대불교 포교의 이정표를 세워가고 있는 중태선사와 대만불교의 견인차이자 세계불교로 뻗어가는 불광산사 및 봉사와 나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는 자제공덕회와 선법과 정토를 결합시켜 현대불교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는 법고산사 그리고 등신불로 교화하고 있는 자항사와 대만대학을 답사하면서 감동을 받았다.

먼저 중태선사는 임제선풍을 선양하는 유각(惟覺)선사에 의해 대만 4대 사찰 중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도량이다. 연건평 2만 5천 평에 높이 36층, 115미터의 사내에 중앙집중식 구조로 설계한 현대식 사원이다. 각층마다 천백억 화신 석가모니불(1층), 원만보신 노사나불(2층), 청정법신 비로자나불(3층)을 모시고 꼭대기에는 7층 목탑과 도서관을 두고 있다. 미국에 7개의 선 센터를 개설하고 홍콩 방콕 호주 등 전 세계 100여 곳에 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초중고생 900여 명을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불교적 인간의 삶을 살도록 유도하고 있다. 모든 사찰 살림은 출가와 재가 대중의 역량에 맞추어 자급자족하고 있다.

불광산사는 ‘좋은 일을 하고[做好事]’, ‘좋은 말을 하고[說好話]’, ‘좋은 마음을 지니는[存好心]’의 삶의 방식을 통해 인간불교를 펼치는 성운(星雲)대사가 일으킨 도량이다. 반세기 동안 대만불교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전 세계를 향해 교육 복지 포교 봉사 등을 주도하고 있다. 교육기관은 대만 내의 불광대학과 남화대학을 필두로 하여 미국의 서래대학, 호주의 남천대학 등을 경영하고 있다. 불교위성TV, 불교일간지, 불광의료원, 22개의 도서관, 8개의 미술관 등 단일사찰로는 세계 최대의 포교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성운대사는 ‘사람들에게 신심 · 기쁨[歡喜] · 편리함[方便] · 봉사[服務]를’이라는 원칙 아래 인간 세상에 정토를 구현하기 위해 오늘도 설법과 자선사업을 쉬지 않고 있다. 최근에 지은 불타기념관 내에는 인도불교성지를 재현하여 대만을 불교성지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출가자 감소하는 한국과 달리
대만 출가자는 계속 늘고 있어

최근 한국의 불자들은 우리 불교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만불교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있다. 그 타겟은 ‘깨어있는 리더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그것에 기반한 대만 불자들의 불심이다. 대만은 ‘출가자들이 수행자로서의 삶을 잘 살고 있기’에 ‘새로운 출가자와 재가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외국에서 출가후보자를 ‘꿔오는’ 한국불교의 현실과는 크게 상반된다. 우리가 주목하고 배워야 될 점은 바로 이 지점이다. 우리가 소홀히 해 온 것은 모범적인 수행자의 삶이 저변화 되면 새로운 출가자가 늘어난다는 평범한 사실이다. 한국불교계가 우선시 해야할 것은 출가자들이 수행자 혹은 스승으로서의 위의를 확립하는 일이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사회에서 불교의 위상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이번 학술기행의 가장 큰 소득은 바로 이것이었다.

한국불교사연구소 역사철학기행팀



한 학기 한번씩 10년째 진행되고 있는 동국대 한국불교사 강의기행. 일행은 2012년 2월 11~16일 대만불교를 참관하고 돌아왔다.

한 · 일 연구자 인도불교 조명

금강대 불교문화硏, 日 도쿄대 학자 초청강연 및 집중 워크숍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천학)은 2월 18~19일 일본 불교학계의 신진학자 3명을 초청해 금강대에서 초청강연회 및 집중워크숍을 개최했다.

‘인도불교의 마음에 대하여’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다카하시 고이치(日 도쿄대) 특임연구원이 ‘바웃다코샤(Bauddha Kośa)-유가행파의 술어집 작성에 관하여’ ▷호리우치 도시오(日 도쿄대) 연구원이 ‘대승 불설과 비불설’ ▷가토 고지로(日 도쿄대) 연구원이 ‘〈해심밀경〉의 티벳 사본 연구’를 주제발표 했다.

가토 연구원은 〈해심밀경〉의 산스크리트본이 현전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경판 한역경전과 데루게 버전 등 티베트역 경전을 〈유가론〉 성립과 대조해 고찰했다.

〈해심밀경산스크리트(Saṃdhinirmocana-sūtra)〉은 300년 전후에 성립된 대승경전으로 〈심밀해탈경〉이라고도 한다. 다른 경전과는 달리 비로자나불이 인간세계가 아닌 18원만의 화장세계에서 미륵 · 문수 등 지위가 높은 보살을 상대로 설한 보신보토(報身報土)의 설법이다. 〈유가론〉을 많이 인용해 유가행파의 근본경전이다. 하지만 산스크리트 원전은 전하지 않고, 티베트어본과 한역본이 전한다.

현전하는 것으로는 당나라 현장이 한역한 〈해심밀경〉(5권8품)과 북위의 보리류지가 번역한 〈심밀해탈경〉(5권11품)이 완역으로 전한다. 부분역으로는 구나발타라의 〈상속해탈경〉(2권)과 진제의 〈불설해절경〉(1권)이 있다.

이번 행사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가 2007년 선정된 HK사업 ‘불교고전어, 고전문헌의 연구를 통해 본 문화의 형성과 변용 및 수용과정 연구’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김천학 불교문화연구소장은 “이번 행사는 금강대와 日 도쿄대 신진 불교학자들이 학문적 교류를 시작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통도사 은제도금아미타불 보물 지정

신흥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등 15건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양산 통도사 은제도금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등 15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

이번에 보물 지정된 문화재는 ‘보물 제1747호 양산 통도사 은제도금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보물 제1748호 문경 봉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보물 제1749호 속초 신흥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보물 제1750호 경산 경흥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보물 제1751호 서천 봉서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보물 제1752호 고창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보물 제1753호 익산 미륵사지 금동향로’ ‘보물 제1754호 불설대보부모은중경판’ ‘보물 제1755호 양휘산법’ ‘보물 제1756호 김응남 호성공신교서 및 관련 고문서’ ‘보물 제1757호 양산 신흥사 대광전 벽화’ ‘보물 제1758호 포항 중성리 신라비’ ‘보물 제694-(2)호 불조삼경’ ‘보물 제1564-(15)호 이순신 관련 고문서’ ‘보물 제1564-(16)호 이순신 관련 고문서’ 등이다.


보물지정된 통도사 은제도금 아미타여래 삼존상 및 복정유물

한편, 문화재청은 ‘서산 개심사 오방오제위도 및 사직사자도’ ‘서산 개심사 제석 · 범천도 및 팔금강 · 사위보살도’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등 4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암환자를 위한 특별 메시지

천 의 선 도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란 책자를 만천하에 공개 하면서



저는 천의선도 창도자며 대체의학 연구가 삼봉 김영생 스님 입니다. 저는 13세부터 조부님 강요에 못이겨 육경신 정신수련에 입신해서 82세가 된 오늘까지도 인간은 나면서 가는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듯이 가는길은 없을까하는 상염중에 1977년 음력 1월 15일 육경신 정신수련중에 천신의 계시를 받고 너무나 황당무계한것 같지만 천신의 메세지이니 믿고 내 주변에 말기암 환자 몇분에게 은용해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복용시켰더니 3,4개월이 지나 몸이 편안하다 하기에 병원진찰을 받아보니 암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소문에 따라 저를 찾아온 암환자가 180여명이 넘는데 한사람도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전립선, 요실금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시키고, 일주일에 1번씩 4,5차례 기를 넣어 드렸더니 정상으로 회복된 분이 3000여명이 넘는데 재발된분이 한분도 없습니다.

나는 한국의 민중의술을 검증받기 위해 미국 오하이오주 주지사님의 초청을 받고 1998년 7월초에 미국에가서 오하이오주 주립대학 병원에가서 담당의사들의 병증세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면서 환자들에게 의료봉사 활동을 5일간 했는데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나온 환자가 오후에 공원 산책을 혼자서 하고 돌아왔다고 담당의사가 신화같은 기적이라고 함성을 지르며 천의선도 치료법을 전수받았습니다.

7월 14일에는 오하요주 주지사님이 한국의 민중의술이 세계에 으뜸이라고 찬사를 하시며 감사패를 주셨고, 17일에는 콜럼버스 시장님이 명예시민장도 주셨습니다. 2011년 월드코리아에서 세계속의 한국인 자랑스런 민중의술 대체의학 부문 대상도 받았습니다 만은 제 나이가 82세, 나의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 이세상에 전무후무한 천하제일의 천의(天醫) 하늘이 준 의술을 묻어두고 갈순없어 이 세상에 공개해서 한가정에 한사람씩 천하제일의 명의가 있다면 건강한 가정에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되어 일반에 공개하면서 천의선도 대체의학을 전수받을 분 기다립니다. 나의 안내문에 의심이 나거든 강동구 천호2동 333-45 전화 02-568-4955 대가연 통증의원 원장 의학박사 심요택 박사님을 만나 보십시오. 심박사님은 암 환자를 대체의학의 자연요법을 체험해 보시고 신화같은 기적이라고 감탄하시며 시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일반인이 자기 가정을 돌보기 위해 천의선도 대체의학을 전수받는 분에게는 일체 전수비를 받지 않습니다.

책값 50만원에 필요하면 은용해기 35만원, 매선침 100개 내지 150개 구입하면 준비완료.

천하제일의 명의가 되는데 소요시간은 천의선도를 전수 받고 실습시간 육각수를 만드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환신 받는데 10분, 5시간이면 넉넉하고 암환자를 치료 하려면 육경신수련 60일에 하루씩 6회 참석 수련하시면 됩니다. (오방신장의 관습을 벗어나기 위해서 입니다.) 건강을 원하거든 행복을 원하거든 천의선도를 전수받으십시요.

천의선도 태종선사
삼봉 김영생 스님 합장배래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5동 483-39
삼용빌딩 403호

연락전화 : 010 - 4933 - 4528

동국사 삼존불 불자들 곁으로 '더 가까이'

'500년만의 외출– 세상과의 소통' 특별전
2월 23일~6월 30일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이번 특별전에서 일반에 처음 공개되는 동국사 석가여래삼존상 후령통

보물 제1718호 군산 동국사 삼존불의 복장유물 기획특별전이 '500년만의 외출-세상과의 소통'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2월 23일~6월 30일까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마련된다.

특별전에서는 2007년 동국사 삼존불에서 발견돼 보물로 지정된 시주질, 후령통, 다라니 등 불상 내부에 보관돼 있던 조선 중기 경전 및 사리장엄구 등 373점과 동국사 건립 당시의 동국사 설계도, 성불사 소장 불교 경전류 등이 전시된다. 또한 일제강점기 민족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동국사 변천사에 대한 영상물도 상영된다.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인 군산 동국사는 일제강점기 일본 불교의 포교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자원으로 1909년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승려에 의해 '금강사'라는 이름으로 창건됐다. 8·15 광복 후 남곡 스님이 동국사로 개명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기획특별전은 동국사 석가여래삼존상의 복장유물이 최초로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 조상들의 종교관과 예술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널리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획 전시회를 준비한 종걸 스님도 "군산지역 사찰에서 보유한 유일한 보물급 문화재인 삼존불 복장유물 기획 전시회를 통해 군산시민들이 우리 불교전통문화의 우수성을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물 제1718호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群山 東國寺 塑造釋迦如來三尊像 및 腹藏遺物)'은 1650년(조선 효종1년)이라는 정확한 조성시기와 조성주체, 물건 목록 등이 조성발원문에 상세히 기록돼 있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 불상 연구의 기준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불상 조성에는 당대를 대표하는 호연태호(浩然太湖)스님과 벽암각성(碧巖覺性)스님이 불사를 이끌고, 부드럽고 온화한 조각을 구사한 응매(應梅)스님이 조각을 주도했다. 불상은 나무로 틀을 짜고 황토를 입혀 만든 소조불로서 사람의 키와 비슷한 147cm와 160cm 정도의 크기이다.

문화재청도 동국사 삼본불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 세 불상에서 나온 전적물이나 복장물의 기록에서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에 의해 제작됐고, 조선시대 불상양식이 형식적으로 흐르기 전 단계의 소조불상으로서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소개에서 "세 불상에서 나온 복장물은 후령통의 제작기법, 내용물, 재질 등을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석가여래삼존상은 물론 복장물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보살정신 실천하겠습니다"

화엄불교대학 2555학년도 졸업식


화엄불교대학이 9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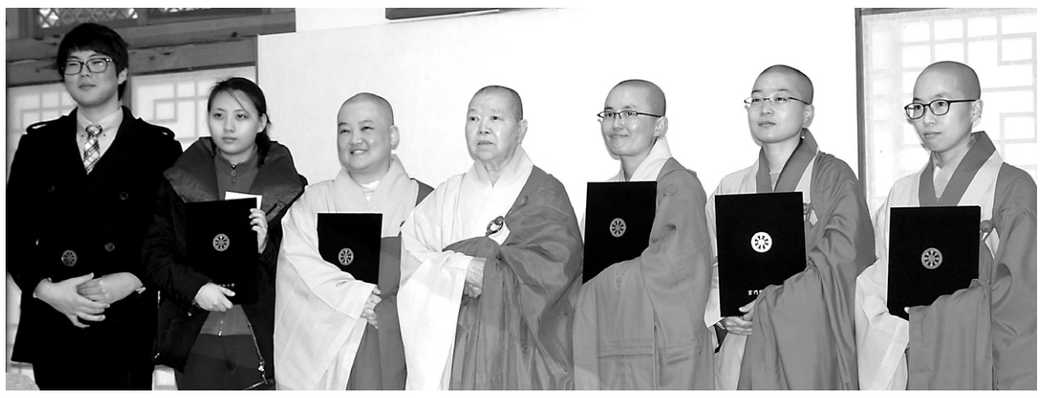
전북의 대표적 불교 재가자 교육기관인 전주 화엄불교대학(학장 원행)의 2555학년도 불교대학 22기 학림원 18기 졸업식이 열렸다.

2월 18일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큰 법당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여러 스님들과 가족들이 참석해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92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이 날 졸업식에는 학장인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과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주지 일원 스님, 금산사 포교국장 제환 스님, 이근재 화엄불교대학 동문회장,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주정기 포교사단 전북 지역단장 등을 비롯한 스님과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지난 1년간 불교기초 교리 강좌와 부처님 경전공부, 실참 수행, 각종 봉사활동 등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게 된 법우들을 격려하고 축하했다.

학장 원행 스님은 졸업사에서 잡아함경의 전도 선언을 인용하며 "화엄불교대학의 졸업생 여러분은 청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얻어 불자로 거듭나게 됐으니 그 가르침에 따라 몸과 말과 뜻이 조화로워야 할 것이다" 며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없애고 모든 선을 선양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대승보살이 돼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한편 졸업식에서는 우수한 활동을 보인 졸업생들에게 공로상이 수여됐다. 공로상 중 총무원장상에는 송민호, 김영하 불자가, 포교원장상에는 문효순, 임익춘 불자가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이사장상은 양호석, 왕준연, 박완자, 임영철 학장상은 김광수, 이동섭, 송순천 불자가 각각 수상했다. 이밖에도 뛰어난 학업성적과 우수한 활동을 보인 불자들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운문사 법계장학금 전달식

국내 최대 비구니 수행도량인 경북 청도 운문사(회주 명성)가 제10회 법계장학금 전달식을 2월 22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명성 스님은 중앙승가대학을 수석 졸업한 현성 스님 등 비구니 스님 4명과 부산대 황수연씨 등 불자 자녀 2명에게 각각 3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명성 스님은 "장학금을 받게 된 것을 계기로 불교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더욱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님은 불교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 2003년 제1회 법계장학회를 만든 뒤 지금까지 스님과 재가불자 62명에게 1억 44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해왔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불광불교종합복지관 만불전 상량식

경북 불교大, 6월 준공식 예정

대구 수성구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의 불광불교종합복지관 도량 정비 불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만불전 상량식이 열렸다.

경북 불교대학은 지하 1층, 지상 1층의 기존 법당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증축하는 상량식을 2월 22일 봉행했다. 준공식은 오는 6월쯤 가질 예정이다.

경북 불교대학 학장이자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은 상량식에서 법어를 통해 "부처님의 가피와 대중의 원력 없이는 큰 불사를 할 수 없다"면서 상량식이 있기 까지 힘을 모은 불자들에게 고마움을 나타냈다.

경북불교대학은 증축 공사가 끝나는 대로 일주문과 범종각도 새로 조성한다는 방침이어서 명실상부한 수성구 지역의 대표적인 도심 포교당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한불교조계종종정協 석정산 대종사 부회장 임명

제190차 월례회



대한불교조계종종정협의회(이사장 석지산)는 2월 16일 대전 유성리베라호텔에서 제190차 월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회장 석월인 스님과 21개 종단의 종정큰스님, 대원불교조계종 종도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날 회장 석월인 대종사는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석정산 대종사에게 부회장 임명장을 수여 했다.

석정산 스님은 부회장 취임인사에서 "그동안 헌신적으로 이끌어 주신 석지산 이사장님과 본회 회장이신 석월인 큰스님을 잘 보필해서 절대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남부지사장 청운 스님**

지역단신

한국전통 등 연구원 창작등 강습회

한국전통 등 연구원 창작등 강습회가 2월 10~11일, 17일~18일 회원 30명을 대상으로 부산양정 청소년 수련원에서 교육을 진행했다. 강의에는 한국전통연구원 대표 백창호 외 직원 4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습회는 부산연합회에서 동참했고, 부산 16개 사찰들도 동참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대구·경북 전법단장 이·취임식 신임 단장에 은적사 주지 허주 스님

대구·경북 전법단 단장 이·취임식이 2월 22일 은적사 룸비니 유치원 법당에서 열렸다. 신임 단장에는 은적사 주지 허주 스님이 취임했다.

대구·경북 전법단은 '이제 법을 전하러 길을 떠나라'는 전도선언의 취지로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 주최로 창립됐다. 취임식에는 단원 스님과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신임 전법단장 허주 은적사 주지 스님은 취임사에서 "부처님께 한점 부끄럼 없이 열심히 수행하고 계신 수행공동체 속에 더 많은 스님들이 동참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구 보현사 신협 제8대 이사장 지성 스님 선출

대구의 대표적 불교전문금융기관인 보현사 신용협동조합의 제8대 이사장에 현 이사장인 동화사 前 주지 지성 스님이 다시 선임됐다.

보현사 신협은 2월 21일 대구향교 대강당에서 제22차 정기총회를 열고 이사장에 지성 스님을, 부이사장에 원각 스님을 선임하는 등 임원진 12명을 새로 선출했다.

지성 스님은 "사회적 약자를 돕고 윤리와 도덕을 바탕으로 협동하는 정신을 보현사 신용협동조합이 선두에 서서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0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쵯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2월중
◆ 개강일시 : 2012년 2월 개강. 매주 (화,목)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영성은 이론과 논리 아닌 체험

인경 스님의 〈수심결〉 특강⑦

영성체험의 장애들

영성과 관련된 장애론은 아직 분명한 학문적인 체계나 공식적인 진단기준이 설정되지 않고 있다. 영적인 장애와 일반 심리학적 장애의 경계선이 모호한 상태이다. 이를테면 분열증의 현상에서 내담자가 어떤 환각상태에 놓여있을 때, 그것이 영적 체험인지 아니면 환각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상상황에서 영성체험에 대한 냉정하고 엄밀한 정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진단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쉽게 주변에서 영성과 관련된 병리적인 이런 상태를 발견할 수 있다. 존 웰우드는 영성에 관한 병리현상을 '영적 우회(spiritual bypassing)'라고 표현했다. 깨달음이란 이름으로 개인적인 성장에서 해

영성 기반한 심리치료사는
내담자의 영적건강 돕는 동반자
세속적 갈망 · 굴복 · 사량은
대표적인 영적 장애

결돼야할 미해결과제들을 회피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들은 개인적인 우울감을 피하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신비한 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것, 자기 문제에 직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더 높은 초월적인 힘에 대한 광적인 믿음, 심리적인 외상으로 인하여 역설적으로 영성에 대해 집착하는 것 등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는 종교단체의 주변에서 쉽게 관찰할 수가 있다. 영적인 건강이란 바로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참되고 건강한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이다. 영성에 기반한 심리치료자는 내담자의 병리적인 상태에서 영적인 건강으로 전환을 돕는 동반자이다.

영적인 건강은 이런 병리적인 상태에서의 영적 자유를 말한다. 마조화상이나 보조국사는 영적 체험을 일상적 경험이라고 하지만, 세속을 살아가는 일반인에게는 결코 쉬운 경험이 아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장애가 있다. 그래서 영성에 기반한 상담자나 심리치료자는 먼저 내담자의 장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작업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서 영성체험 혹은 불성체험과 관련한 과제들을 보조국사의 어록을 중심으로, 필자는 영적 장애로서 세속적 갈망, 굴복, 사량 세 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이런 장애는 내담자의 내면에서 반복적으로 혼재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과도하게 억압해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세속적 갈망

갈망은 일상에서 반드시 부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오히려 현대 자본사회는 이점을 더욱 강화시키는 문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놓았다.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속적 갈망은 반드시 긍정적인 요소만은 아니다. 오히려 갈망은 고통을 재생산해내는 주요한 원인이고, 감각적인 대상에 대한 과도한 애착은 영적 성장을 장애한다. 보조국사는 세속적인 이득에 집착해, 영적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매우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다. 고려사회에 비하면, 심각한 수준으로 현대사회에서 세속적인 갈망은 모든 삶을 과도하게 지배하고 있다. 재물과 욕망의 탐닉은 세속적인 마음의 정형적인 행태이다. 이것은 분명하게 궁극적인 진리를 구하는데, 영적 체험의 장애가 된다. 세속적인 갈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곳에는 영적 관심이 약해진다. 영성에 대한 관심은 바로 궁극적인 관심이다. 궁극적이란 말은 일시적이거나 방편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최종적이고 실질적인 목적에 부합된 가르침[了義]이다.

영성에 기초한 상담자는 먼저 내담자에게 궁극적인 관심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세속적인 열망에서 지치고 상처받는 그 속에서, 현실적인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상과 같은 영적 체험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일반 상담에서는 단순하게 현실적인 적응에 초점이 맞추어진 까닭에 내담자의 영적인 관심을 깊게 탐색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영성에 기초한 상담자는 이점에 마음을 열어두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의도적으로 영적인 과제로서 화두참구를 동기화할 수가 있다.

영성에 기반한 명상상담에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관심에 대한 정확한 평가이다. 내담자의 삶에서 영적인 부분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얼마큼 중요한지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대부분 세속적 갈망과 영적인 관심은 서로 대립적인 상태에서 내담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고, 영적인 관심이 잘못하면 내담자로 하여금 현실문제에 무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혼란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으로, 얼마의 강도로 나타나고, 이것이 내담자의 현실에서 어떤 문제를 야기 시키는지 역시 평가할 수도 있다. 대부분 내담자는 이들의 갈등관계에서 균형을 원한다. 영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욕구에서 상호 어떤 관계나 시간배당을 원하는지, 왜 그것을 원하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시도하고 행동했는지,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성공했는지, 실패했다면 왜 그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점검한다.

굴복

영성에 기반한 명상상담에서 굴복이란 실제로 원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감각적인 갈망이나 아니면 높은 초월적인 힘에로 회피하는 행동을 말한다. 특히 간화선 같은 명상수행은 '무엇이 나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엄청난 갈등, 긴장, 답답함을 초래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 긴장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감각적인 갈망에로 회피하거나, 아니면 보다 쉬운 길로서 힘 있는 절대자란 존재를 상정하여 그곳에 의지

갈망은 고통 재생산하는 원인
영적 굴복은 자기문제 회피
깨달음 크게 방해하는 장애는
화두 분별하는 사량분별심

하는 경향이 있다.

이점과 관련해 보조국사는 언급한 불건강한 상태에 대해 '퇴굴(退屈)'이란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물러나서 굴복하다는 의미이다. 굴복은 자신의 내면에 본래 존재하는 영적인 상태의 공적(空寂)과 영지(靈知)를 체험하지 못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가리킨다. 이것은 자기 내적인 성찰을 방해하는 요소이다. 자기 문제를 반성적으로 성찰하기보다는 보다 높은 힘에 의존함으로써 자기문제로부터 회피하는 병리적인 현상의 일부라는 점이다.

보조국사가 함께 정혜 닦기를 권하며, 지금 정법은 없고 말법의 시대이니 아미타불의 정토업을 닦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한 보조국사의 대답은 이렇다. 첫째로 시대는 바뀌지만 심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로 바뀌는 것은 궁극적인 가르침이 아닌 방편들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변하지 않는 심성이란 궁극적인 본성으로서 영성이고, 이것은 정혜의 닦음을 통해서 체득할 수가 있다. 이런 본질적인 과제를 뒤로 하고, 말법이라고 하여 보다 힘 있는 존재로서 아미타불에 의지해 정토업을 닦는 것은



불성 · 영성은 구한다고 구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내게로 다가오는 것이다.

물러나 굴복하는 퇴굴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굴복은 영적 본성에 대한 관심을 버려두고, 다른 힘에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힘에 대한 믿음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다른 외적인 강한 힘에로 도망가는 일종의 회피이다. 이점은 불교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다. 보조국사가 보기에는 염불에 의한 정토업을 닦는 일은 본래의 심성을 닦는, 궁극적인 관심이 아닌 방편적인 가르침으로 본 것이다. 인간의 근본적인 심성에 대한 관심이 바로 궁극적인 붓다의 가르침이기에, 이것은 염불이 아니라 정혜로 인하여 체득된다는 입장이다. 〈수심결〉에서의 굴복은 신통변화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면서 궁극적인 영성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신통변화는 거의 모든 종교단체에서 나타나는 신이한 기적과 같다. 마치 만화 속에서 나오는 인물처럼, 물 위를 걷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고, 일어날 사건을 미리 알고 하는 초감각적인 현상을 추구한다.

하지만 이것 역시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회피이다. 본질적인 과제도 아니고 주변적인 일이고, 삿된 길이다. 신통변화의 능력은 세속적인 욕망에 분명하게 이용할 것이고, 설사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도 여전히 그곳에는 고통 · 한탄이 있을 뿐이고, 궁극적인 깨달음은 없다. 신통변화에 대한 관심은 고통소멸의 길이 아니고, 깨달음의 길이 아닌 영적인 굴복이다.

사량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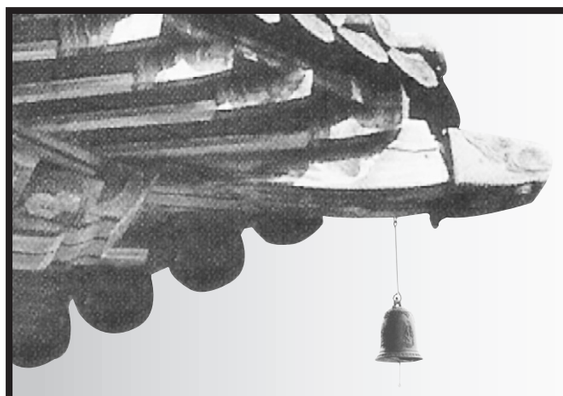
사량분별은 화두에 대한 논리적인 해답을 찾는 경우로서 깨달음을 방해하는 가장 자주 빈번하게 발견되는 장애이다. 예를 들면 무자화두를 참구할 때, 이것을 사량으로 분별하여 이것은 절대의 무라든지, 아니면 있음과 없음의 중도라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분별하는 행위는 병통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점은 이미 대혜종고가 언급한 바가 있다. 보조지눌은 이것을 〈간화결의론〉에서 십종선병으로 명명했다.

선학자인들 어찌 십종선병(十種禪病)이 화엄의 법계연기와 같음을 모르겠는가. 그런 까닭에 경산(徑山) 대혜선사(大慧禪師)도 말하였다. "평소에 지견(知見)이 많아 증오(證悟)를 구하는 마음이 앞서 장애가 되므로, 자기의 정견(正知見)을 드러내지 못한다. 그러나 이 장애도 밖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또한 별도의 일도 아니다" 그러니 어찌 따로 가려 구별[揀]하지 않겠는가. 이른바 십종병이란 깨달음[證悟]을 구하는 마음이 근본을 이룬다. 이미 이러한 장애가 밖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어느 곳에서 왔겠는가.

여기서 깨들음이란 경험적인 체득을 말한다. 영성체험은 일종의 경험적인 과정인데, 자꾸 논리적인 이해로서 그것을 구하려 하는 것은 바로 장애가 된다. 이런 장애가 바른 지견을 드러내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현대인들의 가장 빈번하게 자주 발견되는 장애이다. 무엇인가 구하려는 마음이 바로 장애가 돼서 본래의 영성, 불성, 본래면목을 체험해 체득하지 못한다. 불성, 영성은 구한다고해서 구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내게로 다가오는 것이다.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이해는 거추장스럽고 신성하고 거룩한 영성체험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방해만 되는 것이다. 경험은 내게서 드러남이지, 언어적인 개념으로 파악해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명상상담연구원장



빙의(귀신병) · 신병 · 퇴마 천도재 전문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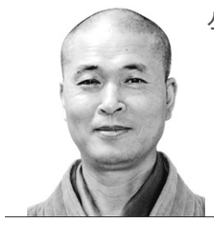
매월 지장재일은
무보시 천도재

우울증, 공황장애, 수험생 집중력증가,
약물게임중독, 전생체험

- 교육생수시모집 -
최면술, 퇴마술, 기공술, 자극요법술

한국빙의 · 퇴마 · 최면연합회본부
한국근본불교조계종총무원 / 송림사 주지 현오 합장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89-13번지 상담전화 02)357-4554 / 010-5656-3915
NAVER DAUM 에서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화명동 소재
◆ 화명지하철역 1분거리 ◆ 3층 50평
◆ 가액 : 전세 2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1천만원
010-9229-3801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저 들오리가 어디로 날아갈까

학승이 물었다.
"노스님의 가풍은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병풍은 찢어졌어도 골격은 남아있어."

問 如何是和尚家風 師云 屛風雖破骨格猶存

선사는 비유를 들더라도 없는 말을 지어내 하지는 않는다. 이 질문을 했을 때 조주의 관음원에 실제로 병풍이 오래되어 너덜너덜 찢어진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조주 스님은 스스로 가난하게 살고 시골 노인처럼 살기를 원했다. 그래서 신도들에게 단 한 번도 구차하게 편지 쓴 일이 없다. 선상(禪牀)이 부러지자, 장작개비로 묶어서 사용했을 정도였다. 이를 사람들이 새로 만들어 드리려 하면 한사코 거절했다. 그런 살림이다보니 병풍이 오래되어 찢어진 상태 그대로 서있었던 것이다.

병풍이 찢어졌지만 골격은 서있다는 것은 늙은 자신에 비유한 것이다. 비록 몸은 늙어 허술하고, 이빨이 다 빠져 하나만 남았지만, 정신만은 분명하게 서있어서 아직은 선(禪)을 가리킬만하다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조주의 가풍이었던 것이다.

최근 큰 스님들이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이 그 행적을 기리는데, 지나치게 외형적인 것만 크게 부각하려는 경향이 있다. 평생 누더기 옷을 입고, 이쑤시개를 여러 번 쓰고, 검정 고무신을 신었고, 암자에 단청하지 않고 산 것이 뭐 그리 청빈한 삶이었단 말인가, 이것 또 다른 쪽에서는 배부른 자의 취향이었다는 비판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진정 큰 스님이 당장 세끼 밥걱정을 단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더란 말인가? 당시 젊은 스님들은 열화와 같은 포교일념으로 도시 한 가운데서 나쁜 공기 마셔가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병들어가며 피땀 흘리고 있는 와중에 큰 스님들은 기와궁궐에서 호의호식하고 살았는데 무엇이 그리 청빈한 삶이었다는 것인가?

게다가 이렇다 할 인재를 길러 놓지도 못했는데, 무엇이 그리 자랑스러워 일반인도 생각지 못할 초호화분묘를 만들어놓는단 말인가? 천태종 뒷산꼭대기에 올라가 보라. 초라한 개창주 분묘가 사람을 압도한다. 죽은 후에도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는가.

학승이 물었다.
"불천(不遷:옮기지 않음)의 뜻이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네가 말해보아라. 저 들오리가 동쪽으로 날아갈 것인가, 서쪽으로 날아갈 것인가."

問 如何是不遷之義 師云 你道這野鴨子飛從東去西去

원래 만물이 나온 '그곳'은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다. 그러하니 당연히 어디로 옮김도 없는 것이다. 만물이 그곳에서 나왔다고 하기도 하고, 그것이 만물로 옮겨졌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무 것도 옮겨진 것은 없다. 이 말을 알아듣는다면 진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이다.

조주 스님은 불천에 대해서 "저 들오리가 어느 쪽으로 날아가겠느냐, 동으로 가겠느냐, 서로 가겠느냐? 그것에 대하여 네가 전혀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불천이다"라고 말했다.

이 불천에 대해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덕산탁발화'에 대한 깨달음도 일어나야 한다. 하루는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도 치지 않았는데 방장 덕산 스님이 발우를 들고 식당으로 가고 있었다. 설봉 스님이 그것을 보고 덕산 스님에게 물었다. "종도 치지 않았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덕산 스님은 고개를 숙이고 방장실로 되돌아갔다. 이 일을 두고 예로부터 말이 많다. 그때 덕산 스님이 뭐라고 한 마디 쯤은 했어야 했는데, 왜 말없이 되돌아갔단 말인가 하고 반문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돌아가는 것이 옳다. 거기서 무슨 말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하고 덕산 스님을 옹호하기도 한다.

덕산 스님의 사제 암두 스님이 저녁 때 이 말을 듣고, 덕산 사형이 근사한 한 마디를 몰랐던 것이라고 평했다. 이 말을 전해들은 덕산 스님이 암두에게 물었다 "자네라면 그때 뭐라고 하겠나?" 그러자, 암두 스님이 덕산 스님 가까이 다가가 귓속말로 뭐라고 한 마디 했다. 그후 덕산 스님의 설법이 확 달라졌다. 여기서 또 하나의 화두가 생겨났다. 그때 암두 스님이 덕산 스님 귀에 대고 뭐라고 말했을까? 이를 '암두밀화' 화두라고 한다.

옛 선사들의 말 향기가 참 멀리도 간다. 그런데 이 두 화두에 쇠기를 박아버릴 한 마디가 있다. 나에게 그것을 묻는다면 다음과 같이 말하겠다.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봄빛을 받아본 적이 없다." 무불선원 선원장



주성원 기자의
기초 교리 〈3〉

자기와의 약속…지키겠다는 마음 중요

계의 의미와 오계

불 · 법 · 승 삼보에 귀의한 재가불자는 다섯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금기 사항이 있다.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 것[不殺生] ·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 것[不偸盜] · 부부이외의 상대와 성관계를 갖지 말 것[不邪淫] · 거짓말 하지 말 것[不妄語] · 술을 마시지 말 것[不飮酒] 등의 오계(五戒)가 그것이다. 재가자는 삼보에 귀의 한 뒤 오계를 받음으로써 정식 불자가 된다.

계(戒)는 산스크리트어로 쉴라(śīla)이다. 쉴라에는 습관, 성격, 품성 등 여러 가지 뜻이 있으나 계를 지칭할 때는 '도덕적 행위'를 뜻한다.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 행위는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나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속박', 즉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말한다. 따라서 계를 지킨다는 것은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맹세이다.

불교에서 계의 종류는 다양하다. 계는 크게 출가계(出家戒)와 재가계(在家戒)로 나뉘는데, 출가계는 출가한 비구 · 비구니 스님들이 지켜야 할 계로, 수백 가지가 넘는다. 이에 비해 재가계는 불교에 귀의한 재가자들이 수지(受持)하는 계로, 출가계보다 개수가 현저히 적다. 그 대표적인 계가 바로 오계이다.

부처님은 재가자들에게 자기 자신과 타인을 위해 오계를 받아 잘 지키도록 권했다. 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초기 빨리어 경전과 〈아함경〉에 다음과 같이 남아있다.

1. 불살생계는 살아있는 생명, 즉 사람, 축생, 어류, 곤충류 등 어떠한 중생도 죽이지 않는 것이다. 직접 자기 손으로 죽여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 죽여서도 안 된다.

2. 불투도계는 주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물건을 움직여서는 안 되고, 훔치는 것도 안 되며, 훔치려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육근(六根)을 다스려 못하게 하는 것이다.

3. 불사음계는 잘못된 성행위를 하지 않고, 자기 배우자외의 이성에 대해 음란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4. 불망어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인데 말을 함에 있어 때에 따라 침묵하거나 진실을 말한다. 때에 따른 다는 말은 상황에 맞는 자세를 취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진실이라도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침묵한다. 그러나 진실이고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상대가 불쾌하게 여겨도 그것을 말한다.

5. 불음주계는 술과 같이 부주의의 토대가 되는 것을 마시지 않는 것을 일컫는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취하게 만드는 것은 마시지 않는다. 술에 취하면 계를 지키기 어려워지고, 결국엔 인사불성이 돼 해로운 상황으로 내몰린다.

이러한 다섯 가지 멀리함이 오계이다. 불 · 법 · 승 삼보에 귀의해 믿고 따르는 불자들은 최소한 이 오계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수계(受戒)를 받고도 술과 부정한 것을 끊지 못해 계를 어긴다면 문제가 되지만, 가족부양을 위한 희생과 생계유지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유연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에서 재가자들이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계를 어기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고(苦) 속에서 살아가는 중생들이기 때문이다.

어디까지나 '계'는 스스로와의 약속이다. 실수로 어겼다 해도 바로 뉘우치고 다시 발심해 계를 지켜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⑧

온 세상에 욕망의 불길이 타고 있다 〈장로니게〉

불, 불이 났다. 불이야! 불이야! 이런 소리를 듣고서도,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태연자약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숟가락을 든 채로, 맨발로 뛰쳐나와서 달려갈 것이다. 불을 끄기 위하여 달려갈 수도 있고, 한 몸의 안전을 위하여 불구덩이를 벗어나려는 몸짓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불이 났다고, 불이야! 불이야! 외쳐대는 소리를 듣고서도 꿈쩍도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중생들이 있다. "온 세상에 욕망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 온 세상은 불타고 있다. 온 세상은 잿더미가 되었다. 온 세상은 요동치고 있다." (시수파찰라 비구니, 〈비구니의 고백(장로니게)〉, 민족사, 261쪽) 이런 다급한 외침을 듣고서도 들은 채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일부의 사람들만이 그런 것은 아니다. 어쩌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지도 모르겠다.

불이 난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그 불난 집(火宅) 안에서 어린애들처럼 소꿉장난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화택의 비유'는 대승경전인 〈법화경〉 등에서 등장하고 있으나, 이미 초기경전에서부터 말해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부처님 역시 "탐욕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 미움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 어리석음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라고, 어느 산정(山頂)에서 말씀하지 않았던가.

불이야! 외치는 소리를 듣고서도, 태무심하게 잠이나 자려는 사람들은 정말로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다. 소방관들이 온다고 해서 다시 살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불이 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소방관들이 온다고 한들 그 지시에 따라서 대피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왜 인정하지 못할까? 불이 난 사실을 일러주는 스승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스승들이 부른 노래의 여운(餘韻)이 우리 귓가를 맴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일까? 실제 이 질문은, 어쩌면 언제나 자본주의일 수밖에 없는 한 세상을 살아남아야 할 우리들에게는 절박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욕망이 있기에 내 삶 역시 있다. 욕망을 버리라는 것은 삶을 포기하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이런 절규는 결코 영화나 연속극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 오히려 우리들이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 삶의 원동력은 상실되고 말 것이라는 점을 말이다. 원하는 것, 이른바 소원은 욕망과 어떻게 다르다는 말인가. 욕망의 추구를 통한 자기실현, 이것이 삶의 의미라고 생각되는 오늘날 "온 세상에 욕망의 불길이 타고 있다"면서, 그 욕망의 불길을 끄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불타오르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

오히려 욕망을 긍정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타이완 불광사의 성운(星雲) 대사는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욕



망을 긍정한다. 자본의 축적을 향한 노력은 나쁘지 않다고 말한다. 다만 그러한 축적된 자본을 나눌 줄 알아야 함을 덧보탤 뿐이다. 그런 성운대사도 스님들에게는 무소유를 요구한다. 실제로 불광사의 스님들은 '사유재산의 축적'이 용인되지 않는다.

그렇다. 언제나 자본주의일 수밖에 없는 인류사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간은 욕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욕망의 추구가 아무리 선하다고 하더라도, 욕망의 전차가 달려가야 할 선로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니겠는가. 탈선하는 순간, 하늘 높이 욕망의 불길이 치솟는다.

돈을 버는 것은 좋다. 다만 그 과정에, 그 수단에 '길'이 있다는 것이다. 그 '길'을 벗어날 때, 불길이 하늘 위로 치솟게 되리라.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사수(死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 많기에, 우리가 사는 오늘의 세상 역시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온 세상은 불타고 있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영남전통범음 · 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 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2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1년)

가. 초급과정(2개월) ■ 송 주 : 도량석, 종송등
■ 예 경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권 공 : 삼보통청, 상단 • 중단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신중작법39위,104위),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김법운 스님, 월봉 스님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 입 학 식 : 2012년 3월 8일(목요일) 오전 11시
■ 개 강 : 2012년 3월 8일(목요일) 오후 1시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종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1804-5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자혜불교대학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53)581-0232 / 053)581-0233
054)974-2605 / 011-544-26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 육 과 정

(1) 초 · 중급과정
◆ 조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욕바라, 천수바라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게
◆ 49재, 천도의식

(2) 상급과정 - 초 · 중급 이수자에 한함
◆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신중작법, 욕건이
◆ 다게나비춤작법, 운심게작법
◆ 가지게

■ 강주스님 : 교무국장 성우
◆ 교육시간 : 초 · 중 급 - 목요일 오전 10시 ~ 1시
상 급 -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개강일시 : 2012년 3월 8일(목) (수시모집가능)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포함),
3개월 30만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1매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연 락 처 : 054)975-4339

▣ 접수처 및 강의장소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 (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123-1번지 HD빌딩 2층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

부처님의 그림자조차 신성한 대상으로 삼아

영지(상)

불교에서는 부처님 진신 사리를 모신 탑과 부처님을 형상화한 불상을 삼보 가운데 불보(佛寶)라 하여 존숭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불보인 탑과 불상은 그 자체가 예배의 대상이며, 심지어 그림자까지도 성보의 개념으로 확장해 공경한다. 이런 불영숭상(佛影崇尙)은 세인들에게 신이적 내용을 전달해 종교적 감동을 주려는 초기불교의 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영숭상의 예는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는 물론 불교가 전파된 여러 지역 불교 사찰에서 발견된다.

대표적 사례로는 인도 바이살리에 있는 대림정사 터 네모난 못 람꾼드, 미얀마 바간에 있는 쉐지곤파고다 영지, 일본 교토의 킨카쿠지(금각사)와 우지의 뵤도인(평등원)에 조성된 영지 등을 꼽을 수 있다.

람꾼드는 원숭이가 부처님의 목욕을 위해서 판 욕지라고 하는데, 이 못에는 지금도 아쇼카 석주와 스투파가 비치고 있어 지난날 온전했을 당시의 잔상을 살필 수 있다. 쉐지곤파고다에 만든 영지는 특이한 형태로, 파고다 전면 바닥에 직경 10cm 가량의 구멍을 만들고 그곳에 물을 채워 파고다 꼭대기 장식인 티(hti)가 비치도록 했다. 왕이 머리를 뒤로 젖히지 않고도 물에 비친 파고다를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하니 영지가 분명하다. 일본의 경우 영지의 기능을 가진 지당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데, 건물이 투영되는 경우가 많다. 킨카쿠지는 금각이, 뵤도인은 봉황당이 비치고 있다.


일본 우지 뵤도인의 영지


인도 바이살리 대림정사의 영지, 람꾼드


미얀마 바간의 쉐지곤파고다에서 볼 수 있는 영지


쉐지곤파고다의 상부형태

불영숭상, 신이적 내용으로 감동
인도 바이살리 대림정사 터 대표적
비치는 대상따라 명칭 다양
신라 때부터 불영지 존재 확인


불영사 불영지에 비친 부처바위

우리나라도 불교가 도입되면서부터 부처님, 탑, 산 그림자가 비치는 투영못을 사찰에 조영했으니 이것이 바로 영지이다. 영지는 비치는 대상에 따라 불영지(佛影池), 탑영지(塔影池), 산영지(山影池)라고 부른다. 불영지와 탑영지는 근본불교지역 영지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산영지는 새로운 개념이다. 산영지는 우리나라에 오래전부터 있어온 산악숭배사상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영지가 언제부터 우리나라 사찰에 조영됐는지 구체적 기록은 없다. 그러나 몇몇 사찰에 전해지는 사적기나 설화에 영지 관련 내용이 있어 실제 영지의 기능을 가진 지당이 사찰에 조영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울진 불영사(佛影寺)는 진덕왕 5년(651) 의상대사가 창건한 절이다. 이 절의 창건연기는 고려 공민왕 19년(1370) 유백유(柳伯儒)가 지은 〈천축산불영사기(天竺山佛影寺記)〉에 실려 전해진다. 〈천축산불영사기〉는 불영사에 대한 최초의 기문으로 1611년까지만 해도 원문이 절에 보관돼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소실됐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기문의 내용이 〈조선사찰사료(朝鮮寺刹史料)〉하권 강원도부에 전해진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영사 부처바위


일본 교토 킨카쿠지의 영지

의상법사가 신라의 수도 경주(東京)에서 해안을 따라 단하동(丹霞洞) 해운봉(海雲峰)에 올라 북쪽을 바라보니 마치 서역의 천축산과 같은 형세의 땅이 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맑은 물 위에 부처님 다섯분의 형상이 비쳐 인연 깊은 곳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부근 금탑봉 아래 폭포에 독룡이 살고 있어 법사가 독룡에게 설법하고 이 땅을 보시할 것을 청하였으나 용이 따르지 않자 법력으로 쫓아냈다. 용은 분하여 산을 뚫고 돌을 부수며 떠났는데 법사가 못을 메워 사찰을 창건했으니 남쪽에 청련전(青蓮殿)을 짓고 무영탑(無影塔) 1좌를 세워 비보한 뒤 천축산 불영사라 하였다.(후략)

기문의 내용을 보면, 의상법사가 부처님 다섯분의 형상이 물 위에 비치는 것을 보고 절을 세웠다는 것이다.

부처님 그림자가 비친 못은 지금까지도 불영지로 불리고 있다. 이것을 보면, 이미 신라 때부터 부처님의 그림자가 비치는 못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처님 그림자조차도 신성한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무병장수의 꿈 마침내 현실화!!

명의(名醫), 부활하다!

익생양술대전(益生養術大全) –전통천연물의학大백과–


2012년 최신간

권혁세(한국민간요법연구회장)저/ 전3권/ 4×6배판/ 컬러판/ 양장본/ 3,600쪽/ 통케이스入/
출간홍보 보급가 32만원(정가 40만원)/ 신용카드 가능

세상 수많은 질병에 대한 천혜의 해법, 모두 찾았다!

어쩌면 밟고 지나쳤을 작고 소박한 그러나
현대의학의 방향을 틀게 한 놀랍도록 절묘한 가치가 숨어있는
이 땅의 각종 약초들을 명쾌히 총괄 도해(圖解)화 했으며
이를 활용한 질병별 처방 및 약성에 따른 다양한 이용법 등
전통요법 5천년 정수를 총정리, 실용화를 꾀해 집대성함으로써
장구한 세월의 터득이 응축된 경탄할 치유력의 천연의술을
누구나 손쉽게 가용(家用)토록 함은 물론
한계를 넘는 또 다른 생명과학 도약의 발판이 되게 한
우리 시대 가장 가치 있는 기념비적 위업의 하나!

곁에 두는, 가장 지혜로운 주치의! 난치·불치의 벽을 혁파해온 위대한 명의!!

1권 약초 편
그 자체로 혹은 응용으로, 수많은 치료법 및 신약의 획기적 질료가 되어온 1천 종류 약초의 사진 및 생태·특징·채취취급요령·효능·성미·독성·사용량·사용부위·범위·용법 등을 총체적으로 규명 정리, 완성도 높은 본초학 도감으로 꾸몄으며 각 권과 연계 활용케 함.

2권 처방 편
각 질병의 원인·증상 설명과 함께 의료문명의 지향점에 이미 놀라우리만치 닿아있는 이상적 치료법으로 구명(究明)되며 마침내 인류의학의 희망으로 부활한 전통민간요법 질병치유사상 최고의 처방을 약재별로 제시(1천여 질병, 22,600여 처방), 택해 쓰도록 함으로써 만인을 위한 저비용 고효율의 실용성을 아울러 꾀함.

3권 조제 편
양생 및 병리 연구의 선각자들을 비롯 민가, 의가(醫家), 사찰 등에 비전되며 체험자에게 균형잡힌 건강장수를 실현시켜온 각종 주침(약술)·탕전·약차·식이 요법 등, 재료별 약리성에 근거한 정교한 생리활성 과학이었던 다양한 응용 치유법의 진수 2,600여종 조제법 및 비방 총망라.

"소중한 이에게 선물하세요. 천금으로도 살수 없는 가치를 발합니다"

▶"현대판 동의보감 익생양술이 나왔다" –중앙일보–
▶"국내 최초의 제대로 된 방대한 본초학 교본이자 한의사들이 토종약초를 이용해 난치병 을 치료할 수 있는 귀중한 유산을 담고 있다" –한방과 건강–
▶"그의 익생양술에는 건강에 관한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 –일간스포츠–
▶"명실상부한 전통약초요법대전으로서 민간이나 학계에서 그 활용가치가 지대할 것이다" –장일무(전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장·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방방곡곡을 도는 끝없는 채집 기록 비교분석 검증…한 연구가의 60여년에 걸친 비범한 집념과 공력의 산물인 본 대전은 인류 숙원인 무병장수를 향한 수천 년 지혜와 연구 노력의 집약판이라 할 만 하며, 향후 또 다른 질병치료 및 신약·기능식품 등의 개발에 매우 요긴한 단초가 될 것" –김남훈(한국의약신문 발행인)–
▶"생명을 낳고 문명을 기른 자연과 전통이란 근원에서 해법 또한 찾아낸 괄목할 모범사례로서, 약용 동·식물·광물 등 주변의 천연소재에 내재된 각각의 독특한 약리성을 이용한 뛰어난 예방·치료법을 일반 가정에서도 폭넓게 공유토록한 점, 정밀한 기술적 검증이 가능해진 현대에 이르러 오히려 인류가 보완을 거듭해 도출한 최선인에 이미 선착(先着)한 점단적 의료였음이 밝혀지고 있는 전통 천연물요법들이 한 불굴의 정신에 의해 정립됨으로써 작금의 현대의학이 처한 난제(難題) 및 한계 극복을 위한 대체보완의학 연구 등에 기여도가 클 동력을 마련했다는 점에, 널리 이로울 성과물" –조호현(출판인)–
▶"고도의 면밀함을 요하는 참으로 지난했을 대역사(大役事), 아마도 이후 어떤 노작(勞作)도 이에 미치기는 힘들 것" –김형석(약초연구가)–
▶"쉽고 간단한 처방이면서도 경이로운 치유력을 보이는 천혜(天惠)의 의술, 그 소박한 그러나 위대한 생명활성 지혜들을 완전 복원해냄에 따라 건강 장수하는 이상적인 삶의 보편화를 우리 당대로 앞당기는 일대 전기가 될 것" –전통의학신문–
▶"천하의 명약이 꼭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것은 아님을 전통민간요법은 증명하고 있다" –권혁세(저자)–

◈ 전화하시면 우송해 드리며 대금은 수령 검토 후 송금하시면 됨.('알라딘'에서도 판매 중) 문의전화 02-2618-0700, 070-8811-5775 학술편수관

‘일심을 근본으로 힘쓰라’ 차향기로 전한 가르침

법음과 차향 어우러진 쌍계사

하동 쌍계사라는 절 이름을 들으면 동시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몇 있습니다. 먼저 파릇한 녹차의 새순과 그윽한 차향기가 떠오릅니다. 쌍계사 일원은 우리나라에 녹차가 처음으로 재배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조영남의 노래 ‘화개장터’와 더불어 십리 벚꽃길이 떠오릅니다. 더하여 유유히 흐르는 섬진강 깊은 물길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봄기운을 느끼기에는 이르지만, 지리산을 돌아 화개장터가 가까워질수록 거기에는 이미 봄이 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벚꽃들이 어린 눈을 뜨고 따사로운 봄바람에 하염없이 흔들리고 차 밭에서는 새싹들이 그야말로 참새 혓바닥만치 돋아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예감도 없이 하품처럼 늘어뜨린 기대는 썰렁한 화개장터와 물이 마른 계곡을 지나는 동안 차가운 바람을 맞고 말았습니다. 아직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지 않으면 오지 않는 것이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과 겨울입니다. 먼 곳에서 미리 전령을 보냈을 테지만 그마저 알아차리지 못한 채 들뜬 마음으로 쌍계사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웃 산의 절도 옥천(玉泉)이라 일컬었으므로 이름이 겹쳐져서 백성들의 귀를 미혹하게 할까 염려하였다. 같은 이름을 버리고 달리하려 한 즉, 마땅히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좇아야 하는데 그 절이 자리한 곳을 살펴보게 하니 동구(洞口)에 두 시냇물이 마주 대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제액(題額)을 내려 쌍계사라고 하였다.”

쌍계사 대웅전 아래 홀로 서 있는 ‘진감선사대공영탑비문(眞鑒禪師大空靈塔碑文)’의 후반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역사에 있어 깊은 학문과 걸출한 문장으로 따를 자가 없는 고운 최치원이 찬했습니다. 쌍계사가 ‘옥천사’라는 이름으로 창건 된 것은 진감선사(774~850) 이전의 일이지만, 중국으로 건너가 조계선풍의 적손이 되어 귀국한 진감선사에 이르러 쌍계사는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정강왕이 절 이름을 직접 지어 준 것은 진감선사에 대한 존경심의 표시였고 이후 대통을 이은 왕들도 쌍계사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물론 진감선사의 덕화가 신라의 하늘을 덮을만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진감선사 대공영탑의 이수 중앙에 선명한 전액

옷깃을 여미고 일주문과 금강문 천왕문 팔영루를 거쳐 오릅니다. 경사진 길이지만 각 문들을 지나는 동안 아주 자연스럽게 상승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팔영루 오른쪽 옆을 돌아가니 별천지인 것처럼 절의 중심공간이 드러납니다. 높다랗게 우러러 보이는 대웅전은 건물자체가 가부좌로 앉은 부처님 같습니다. 범패와 선 그리고 차 재배의 발원 도량인 쌍계사는 그 존재만으로도 우뚝한 역사입니다.

옆면이 보이는 진감선사대공탑비(국보 제47호)를 먼저 살펴봅니다. 세월의 무게와 전란의 광기를 이기지 못해 금이 가고 탄환 자국이 선명한 몸돌이 철제 보호 장치에 의존해 서 있습니다. 887년에 세웠으니 2012년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1125년을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귀부도 몸돌도 이수도 완전하진 않지만, 그 거친 시간을 버텨 온 것만으로도 무한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감선사대공영탑’ 최치원 사산비의 하나
범패와 차 재배 발원지 ‘우뚝한 역사’

눈에 보이는 탑비의 존재감만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비가 담고 있는 문장은 최치원의 사산비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문이 진감선사와 그의 시대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지만, 신라 말의 여러 정황을 전하는 확실한 기사들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쌍계사 홈페이지에서는 이 탑의 제원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의 높이는 3m 63cm, 탑신의 높이는 2m 2cm, 폭은 1m, 귀부와 이수는 화강암이고 비신은 흑대리석이다. 현재 비신의 우측 상부에 크게 흠락된 부분이 있고 또 균열이 상당히 심하다. 중앙에 높직한 비좌를 마련했는데 4면에는 운문이 있고 상면에는 비신에 맞게 구멍이 뚫어져 있다. 귀두는 짧고 추상적인 동물의 머리로 표현되어 신라 후기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수는 양측을 비스듬히 자른 오각형으로 4면에 쟁주하는 용이 있고 전면 중앙에 방형으로 깊이 판 제액이 마련되어 있으며 비문의 자경은 2.3cm, 자수는 2423자이다.”

몸돌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글자들이 참으로 정갈합니다. 글자와 글자 사이에서 천년이 넘는 세월의 바람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진감선사는 문성왕 12년(850)에 입적했습니다. 문인들을 불러 놓고 “나는 이제 가려한다. 너희들은 일심으로 근본을 삼아 힘써 노력하라. 탑을 만들어 형상을 보존하지 말고 명(銘)으로써 행적을 기록하지도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때문에 그의 제자들은 난감했습니다. 존경하는 스승을 흠모하는 마음을 어찌 표현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러나 스승의 지엄한 당부를 아침나절의 이슬로 만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진감선사가 입적하고 36년 후에 헌강대왕이 ‘진감’이라는 시호와 ‘대공영탑’이라는 탑호를 내려 부도를 모시고 탑비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최치원은 왕명을 받들어 비문을 찬하며 이러한 사정을 빠짐없이 다 기록했습니다. 고승의 비문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중요한 역사의 증명입니다.

종루를 지나 금당(金堂)을 향해 계단을 오릅니다. 그러나 금당으로 들어가는 대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육조정상탑을 참배하고 싶었지만, 잠긴 문을 열어달라고 청하고 싶은 마음을 접고 호두봉 꼭대기에 있는 진감선사부도(보물 제380호)를 향합니다.


쌍계사 뒤 오두봉 꼭대기에 서 있는 진감선사의 부도

국사암 200m 전방에서 갈림길이 나오고 불일폭포 가는 길로 접어들어 산모퉁이 두엇을 지나 좁은 길을 버리고 길인 듯 아닌 듯한 비탈을 오릅니다. 100m쯤 올라간 곳에 부도가 있습니다.

이 땅에 범패를 처음으로 들여와 불교음악의 창시자가 된 진감선사의 부도. 바람이 불면 느리게 춤사위를 연출하는 노송 두 그루가 호위하듯 서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늘을 찌를 듯 훤칠한 키의 적송 두 그루가 가지를 안으로 숙여 부도를 덮고 있는 기이한 모습에 놀랍니다. 비나 눈이 와도 부도는 이 소나무로 인해 몸이 젖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도는 단아합니다. 기단에서 상대석에 이르기까지 연꽃무늬가 적절히 배치되어 숭고함을 더했고 비례를 잃지 않은 탑신과 옥개석의 조화가 선사의 풍모를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높은 봉우리에 말없이 서서 저 아래 절에서 울리는 목탁소리 염불 소리를 다 들으며 천년 세월을 지키고 있습니다. 진리에는 말이 필요 없어서, 말 없는 곳에서 말 없는 곳으로 중생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진감선사는 중국 땅에서 구법여행을 다니다가 도의선사를 만나게 됩니다. 먼저 귀국한 도의 선사는 이 땅에 선문을 열어 말없이 전해 온 부처님의 보배를 별처럼 박아 두었습니다. 진감선사 역시 범패를 들여왔고 선지를 드높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법향을 축내지 않고 있습니다.

진감선사의 부도 앞에 서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2009년 1월 1일 도의선사의 은거도량인 진전사를 찾아갈 때의 마음과 3년이 지나 진감선사의 도량에서 찬바람을 안고 서 있는 이 마음은 같은가 다른가? 같다면 무엇이 같고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가?

진전사에서 쌍계사까지. 70여 사찰의 부도밭을 쏘다니며 수많은 선지식들을 만났고 그 유훈의 지고한 기상에 홀로 식은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부도밭은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성성하게 살아 있는 또 다른 설법전임을 외쳤습니다. 부도밭을 정성스럽게 단장하고 흩어진 부도와 탑비를 정비하는 몇몇 사찰을 보며 솟구치는 존경심을 주체할 수 없었던 기억도 새롭습니다. 부도밭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빨리 바뀌어야 합니다. 역대 조사의 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공간을 외면하면 한국불교의 내일은 없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부도를 ‘승탑(僧塔)’이라고 공식화했습니다. ‘부처님의 사리(법신의 상징물)를 모신 탑은 불탑이고, 스님의 사리를 모신 탑은 승탑이다’ 이런 논리인가 봅니다. 거기에는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선불교에서 조사는 부처님입니다. 조사들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부처와 조사라는 관념 속의 허상마저 처단해 스스로 부처의 당체를 입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활달한 기상으로 수행하고 깨달음의 삶을 살다 간 조사들을 굳이 ‘스님’이라는 이름에 예속시켜 승탑이라는 이름을 고정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학자가 아닌 기자의 입장에서는 불탑과 승탑을 구분 짓는 그 자체가 탑 위에 탑을 쌓는 일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어 ‘감성으로 가는 부도밭 기행’을 마무리 하는 지리에서 넋두리 해 보는 겁니다.

여기가 종착점은 아닐 것입니다. 꼭 갔어야 할 곳을 못가기도 했을 것이고 갔으되 눈이 어두워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한 곳도 많을 것입니다. 틈틈이 더 발품을 팔아 이 기행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지난 3년 이 연재에 관심을 가져 주신 독자 제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



글 · 사진=임연태(시인 · 본지논설위원) mian1@hanmail.net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사찰스님 20%할인)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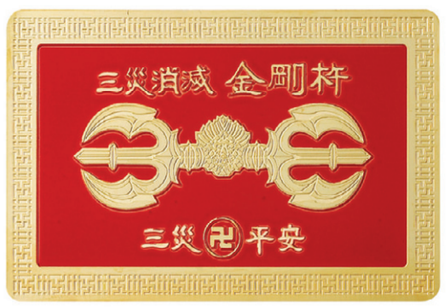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뭍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2012년 나가는 삼재조심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제일 힘든 나가는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0년 드는 삼재 2011년 묵는 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나가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사찰스님 20%할인)
전 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곳곳에서 사회와 국가를 움직여 온 불심

⑥ 대불련이 배출한 각계 인사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大佛聯)가 2013년 창립 50년을 맞는다. 1963년 창립된 대불련은 대학생 불교단체로 그동안 배출된 동문만도 수십만 명에 이른다. 대불련 출신 동문들은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진출해 사회와 국가를 움직이는 '중심세력'의 하나로 성장했다. 대불련 50년을 앞두고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불련 출신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본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정치계

19대 총선 앞두고 저마다 출사표

정치계에서는 19대 총선을 앞둔 박세일 국민생각 대표(서울대 67학번)를 빼놓을 수 없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중학생 시절인 1960년대 불교와 인연을 맺은 후 직접 불교관련 책을 찾아 읽고 법문을 들으며, 3000배, 참선 등 실참실수하는 생활을 몸으로 익혔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김영삼 정부 당시 정치와 연을 맺어 정책기획수석을 지내면서는 청와대 불자모임인 청불회를 만들기도 했다.

박 이사장은 2006년부터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신당 국민생각을 창당해 대표로 4월 총선을 준비중이다.

안홍준 새누리당 국회의원(부산의대 69학번)도 눈길을 끈다. 안 의원은 할머니를 통해 불교를 접했다. 안 의원은 대학시절 부산지역 대불련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안 의원은 국회의원 불자모임 '정각회'를 6년만에 되살려 정각회 부회장을 맡기도 했다. 현재 제18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19대 총선에서 경남 마산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 등록 중이다.

이밖에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을 역임한 성재도 한국역사문화연구소 이사장(부산대 76학번)은 대불련 부산지부장, 6월 민주항쟁 불교대표 상임집행위원, 청와대불자회 사무국장 등 활발한 불교활동을 펼쳤다. 현재 19대 총선 경남 진주에서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로 등록중이다.

여익구 민족문화정책연구소장(동국대 67학번)은 제16대 대선 당시 불교계 인사로 노무현 후보의 문화특보를 맡기도 했다. 여 소장은 민청학련 사건 당시 5차례 수감되기도 했다. 81년 대불련 사무총장, 85년 민중불교운동연합 의장을 지내며 재가불교 사회운동의 대부역할을 했다. 현재 한국남동발전 감사다.

중앙대 재학 당시 대불련을 통해 불교계 민주화운동에 나선 최연 정의평화불교연대 공동대표(중앙대 74학번)도 있다. 최연 대표는 1980년 대불련 대의원회 의장, 조계종 중앙신도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현재 불교문화연구원장으로 19대 총선에서 용인 처용 지역 출마 예정 중이다.

이용부 前 문화부 종무실장(동국대 64학번)은 재임 시절 중앙승가대를 정식 대학 설립 인가를 받는데 큰 공헌을 하는 등 불교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동국대 불교학과 재학 시절 대불련 창립에도 기여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사찰문화연구원 고문 등을 맡고 있다.

김영국 前 민주통합당불교특위위원장은 대불련 회장을 지낸 바 있다. 김 前 위원장은 조계종 제32대 집행부에서 종책특보를 맡기도 했다. 현재 민주통합당불교특위위원장을 맡았지만 조계종과의 관계로 인해 탈당한 상태다.

법조계

주요보직 맡아 승가 외호 앞장 서

법조인에는 김동건(서울대 65학번) 법무법인 바른 대표가 있다. 김 대표는 사시 11회 출신으로 제주지방법원장, 수원지방법원장, 서울지방법원장 등 굵직한 자리를 두루 거쳤다.

법조인 불자모임인 서초반야회장을 지내며 불자법조인들을 이끌었다. 현재 불교포럼 상임대표를 맡아 불자네트워크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법불회 법조인은 전창렬(서울대 61학번) 법무법인 한덕 대표 변호사와 박준수 변호사가 있다. 전 변호사는 10·27법난 당시 스님들을 삼청교육대로 보내려는 군부를 설득해 스님들을 흥국사에서 자체적으로 참선 수행하도록 완화역할을 하기도 했다. 박준수 변호사(서울대 61학번)는 법조인으로서 불자 법조인을 위한 신행조직 '자각터'를 만들어 신행활동을 이끌었다.

이 밖에 박홍우 의정부지방법원장(서울대 72학번)은 사법연수원 다르마법우회에서 연수생들을 지도했으며 현재 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 불광사 불광장학회 이사, 서울대 총불교학생회 동문회장 등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대불련 출신인 이기범 변호사(서울대 74학번·사시 25회)가 2011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에서 퇴임해 서초동에 법률사무소를 마련했다.

경제계

현대기아차 등 사회 각분야 활발

명호근 대불련 총동문회 총재(서울대 61학번)는 서울대 법대 61학번 대학시절 법대 불교학생회인 법불회 활동을 하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를 창립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졸업 후 서울대 총불교학생회를 설립했으며, 서울대 총불교학생회 초대 동문회장을 역임했다. 명 회장은 쌍용양회 대표이사 사장 및 부회장, 한국양회공업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신기이엔티(주) 회장이다.

이밖에 한국석유공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아태 에너지 고문을 맡고 있는 신호철(서울대 61학번) 고문은 대불련 초대회장을 역임했다.

대불련 출신 중 재계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이는 백효흠 북경현대자동차 사장(경상대 70학번)이다. 중국에서 현대차 열풍이 이어진 데는 북경현대자동차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전역의 현대차 판매망을 이끌고 있는 백효흠 사장은 1977년 현대차에 입사해 자동차 영업에서 신화를 써온 인물이다. 백효흠 사장은 대학시절 대불련 중앙회 부회장 직책을 맡은 바 있다. 계엄령 선포 이후 유신 정국 속에 화랑대회를 개최를 추진하기도 했다. 또 윤제철(서울대 66학번) 삼정회계법인 고문은 현재 대불련 총동문회 회장을 맡고 있다.

학계

대불련 동문 최다 분포

학계는 대불련 총동문회 회원 중 가장 많은 수가 분포하고 있다. 학창시절 대불련 활동이 불자 지도교수와의 관계가 돈독했기 때문이다.

최근 본각연구원을 개원한 고준환 경기대 종신명예교수(서울대 61학번)는 대불련 학계 1세대다.

고 명예교수는 서울대 법대 1학년 때 당시 조계종 종정 청담 스님의 마음법문에 감화돼 불교에 귀의해 법불회 활동을 하며 대불련 창립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다. 동아일보 기자로 1974년 유신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서 자유언론 실천에 나서 해직되기도 했다.

이후 고 명예교수는 졸업 후 10년 만에 다시 전공서적을 펴고 공부를 재개해 결국 박사학위를 취득해 교수의 길을 걷는다. 30년 교수 생활에도 고 교수의 불교사랑은 계속돼 1988년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창립, 초대 회장으로도 활동하며 불교 '청년화'와 '지성화'에 기여했다.

치과 보존학의 국내 권위자인 배광식 서울대 치대 교수(서울대 68학번)도 대불련 출신이다. 서울사대부고 보리회와 대불련 서울지부 연구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제포교사회 회장, 불이회 회장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어순아 성신여대 교수(성신여대 72학번)는 1973년 성신여대 불교학생회를 창립하고 초대회장을 지냈으며 자신이 창립한 성신여대 불교학생회의 지도교수를 맡기도 했다.

이밖에 48세 나이로 최연소 총장이 대화제가 되기도 했던 성기태 전 충주대 총장은 동국대 불교학생회 출신으로 대불련 11년차 회장을 역임했다.

언론계

파사현정 구현 앞장

김규칠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서울대 63학번)은 서울대 법대 재학 당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초기 멤버로 구도부에서 활동했다.

김 이사장은 서울대 신문대학원을 나와 1971년 외무고시에 합격 후 외교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다. 이후 KBS '심야토론', EBS '하나뿐인 지구' 등 TV 프로그램 진행자로 활약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불교방송(BBS) 사장 등을 거쳐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고려대 불교학생회 활동을 한 김차수 동아일보 보도본부장(고려대 81학번)과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장(고려대 86학번)도 있다.

종교·문화예술계

동문회 활동 신심 출가로 이어져

관음종 총무원장으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도 맡고 있는 홍파 스님(동국대 63학번), 태고종 총무원 부원장을 역임한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중앙대 79학번)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문화예술계에서는 목조각장 중요무형문화재로 경기 여주 목아박물관장으로 있는 박찬수 관장(동국대 68학번), 최이곤 천지아트 대표(전북대 71학번) 등이 대불련 활동을 했다.

대불련 총동문회 주요 인사 (학번순)



소속	학번	이름
정치·법조계	서울대 61학번	전창렬 법무법인 한덕 대표
	서울대 61학번	박준수 변호사
	서울대 65학번	김동건 법무법인 바른 대표
	서울대 67학번	박세일 국민생각 대표
	부산의대 69학번	안홍준 새누리당 국회의원·경남 마산 예비후보
	서울대 72학번	박홍우 의정부지방법원장
	서울대 74학번	이기범 변호사
	중앙대 74학번	최연 민주통합당 용인 처용 예비후보
	부산대 76학번	성재도 민주통합당 경남 진주 예비후보
	부경대 77학번	이영호 민주통합당 해남완도진도 예비후보
경제계	서울대 61학번	명호근 신기이엔티(주) 회장
	서울대 61학번	신호철 아태 에너지 고문
	부산대 61학번	옥치담 GG텔레콤 대표
	고려대 61학번	이채영 창암물류 대표
	한양대 64학번	최인석 신호교역 대표
	중앙대 64학번	황귀철 주식회사 전홍 전무
	서울대 66학번	윤제철 삼정회계법인 고문
	동국대 67학번	여익구 한국남동발전 감사
	경상대 70학번	백효흠 북경현대자동차 사장
	중앙대 70학번	서성태 인터롤 대표
	명지대 70학번	이정우 실크리버 컨트리 클럽 이사
	서강대 70학번	하금성 미창개발 대표
	서울대 72학번	김경헌 선재한의원 원장
	서울산업대 74학번	최성규 정토종합건설 대표
	서울대 75학번	이종기 리쿼리움 술박물관 관장
	동국대 77학번	이희선 출판 미들하우스 대표
학계	동국대 60학번	오형근 동국대 명예교수
	서울대 61학번	고준환 경기대 명예교수
	동국대 65학번	김선근 동국대 명예교수
	동국대 67학번	조용길 동국대 명예교수
	서울대 68학번	김효율 인천대 교수
	서울대 68학번	배광식 서울대 치대 교수
	동국대 68학번	곽만연 동아대 교수
	경상대 70학번	김상현 동국대 교수
	한양대 70학번	전보삼 만해기념관장
	서울대 71학번	성태용 건국대 교수
	서울대 71학번	신병철 충북대 교수
	고려대 72학번	김복순 동국대 교수
	성신여대 72학번	어순아 성신여대 교수
	외국어대 73학번	성기서 서원대 국장
	전남대 73학번	조기정 목포대 교수
	성신여대 74학번	김여주 성신여대 교수
	성신여대 74학번	최은숙 프랑스 루아브르대학 교수
	전북대 75학번	한광수 우석대 교수
	경북대 76학번	박경희 수원과학대 교수
	강원대 79학번	김경진 충주대 교수
언론·문화·종교계	서울대 63학번	김규칠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고려대 81학번	김차수 동아일보 보도본부장
	고려대 86학번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장
	대불련 지도법사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
	동국대 63학번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중앙대 79학번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
	동국대 68학번	박찬수 목아박물관장
	전북대 71학번	최이곤 천지아트 대표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사찰등록 !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탁 혜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재소자 부랑자, 불교로 본성 보다

세인트루이스, 퓰리처 재단 사회공헌프로그램 주목
불교연극 · 전시 · 교육… 깨달음… 탈욕망

퓰리처 재단(Pulitzer Foundation)의 불교를 접목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화제다.

세인트루이스 온라인 매체 stltoday(www.stltoday.com, 이하 '세인트루이스투데이')가 "퓰리처 재단의 'Staging Reflections of the Buddha(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영상)' 프로그램이 일반인은 물론 인근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2월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5개월 동안 불교를 주제로 기획된 연극과 전시를 관람하는 한편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을 체험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개인 · 사회적 욕망 사이의 커다란 차이를 알게 하고, 자신의 본성을 바라보고 심성을 다스리는 시간을 주고 있다.

특히 세인트루이스투데이는 케이스 프리맨(Keith Freeman)의 사례에 주목해, "인근 교도 및 보호 시설에 수감된 재소자와 부랑자들 중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가중인 이들에게 스스로를 정화시킬 수 있는 힘을 더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프로그램은 진실한 삶과 탐욕스런 욕망의 전쟁터와 같았다"고 설명한 프리맨은 "나는 그 과정을 밟으며 매번 전쟁터에서 치열한 격전을 치러야 했고, 그때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셨다'고 하는 프로그램 진행자의 말에서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허약한 홀어머니 밑에서 4명의 형제자매와 함께 자란 프리맨은 15세에 학교를 중퇴한 후, 길거리 문화에 빠져 살았다. 그는 17세에 교도소에 처음 수감된 후, 마약판매 혐의로 세인트루이스교도소에 4번째로 수감된 지난해 처음으로 퓰리처 재단의 프로그램에 지원, 과정을 밟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09년 'Staging Old Masters(위대한 예술가를 담은 영상)'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선보였는데, 틴토레토(Tintoretto), 비뇽(C. Vignon), 바카로(D. A. Vaccaro) 등의 작품을 주제로 진행되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3년 후 퓰리처 재단은 이 프로그램의 사회적 공헌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불교를 대주제로 삼고, 프로그램 이름도 'Staging Reflections of the Buddha'로 바꾸어 진행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도 일반인에서 재소자 부랑자까지로 확대했다.


전시된 불교 미술품을 관람하고 있는 재소자들

에밀리 피로(Emily Piro, 퓰리처 재단) 프로그램 담당자는 "스테이징(Staging, 영상)은 원래 영상을 통해 예술과 관객의 사이에 '이해의 다리'를 놓는다는 예술계의 상용어"라며 "이 프로그램이 불교를 통해 참여자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인간의 이상이란 무엇인가' '그 이상을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 가' '진실이란 무엇인가' '욕망이란 무엇인가' 등이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이상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진실이란 무엇인가" 등 이라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의 자원봉사자인 크리스토퍼 팬(Christopher Fan; 워싱턴대학 연구원)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를 자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미얀마, 20여년 만에 불교축제 열린다

미얀마 정부가 20여 년간 금지됐던 불교 축제를 허용했다는 소식이다. AP통신은 지난해 3월 출범한 미얀마 민간정부가 일부 정치범 석방, 소수민족 반군과의 평화협상 등 민주화를 추진해왔다며 이번 축제는 미얀마의 변화를 실감케 하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2월 23일 AP통신 보도를 보면 미얀마 옛 수도인 양곤의 불교 성지인 쉐다곤(Shwedagon) 파고다에서는 전날 불교 신자와 승려 수천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 축제가 열렸다. 2600여년 전에 건립된 쉐다곤 파고다는 부처의 머리카락 8개가 모셔져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미얀마 군부는 쉐다곤 파고다에서 반정부 시위가 잇따라 열리자 1980년대 말부터 쉐다곤 파고다에서 열리는 불교 축제를 금지했다. 미얀마 민주운동가인 수지(Suu Kyi) 여사는 1988년 쉐다곤 파고다에서 군부를 비판하는 대중연설을 하고 민주화 운동을 시작했다.

불교학자인 킨 마웅 아예(Khin Maung Aye)는 "군부는 보안상의 이유로 불교 축제를 금지해 왔다"면서 "오래전부터 불교 축제가 재개되길 희망해왔다"고 말했다.


미얀마 옛 수도 양곤에서 20여년 만에 불교 축제가 열린다.

불교 축제에 참여한 피인야 운타(Pyinya Wuntha) 스님은 "(불교 축제 허용 등을 보면) 미얀마 정부가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인도, '불교 알기' 워크숍 · 공연 마련

바라트에서 '워크숍'… 델리에서 '락 공연
세계 유일 불교 락밴드 '달마 범스' 인기

로 사르((Lo Sar, '새해'를 뜻함)를 맞아 인도 주요 도시인 델리와 바라트에서 세계 유일의 불교 락 밴드 그룹인 '달마 범스(Dharma Bums)'의 무대가 마련되고, 인도 석학들이 대거 참여하는 워크숍이 열린다고 인디아타임스(www.timesofindia.com)와 힌두스탄타임스(www.HindustanTimes.com)가 22일 각각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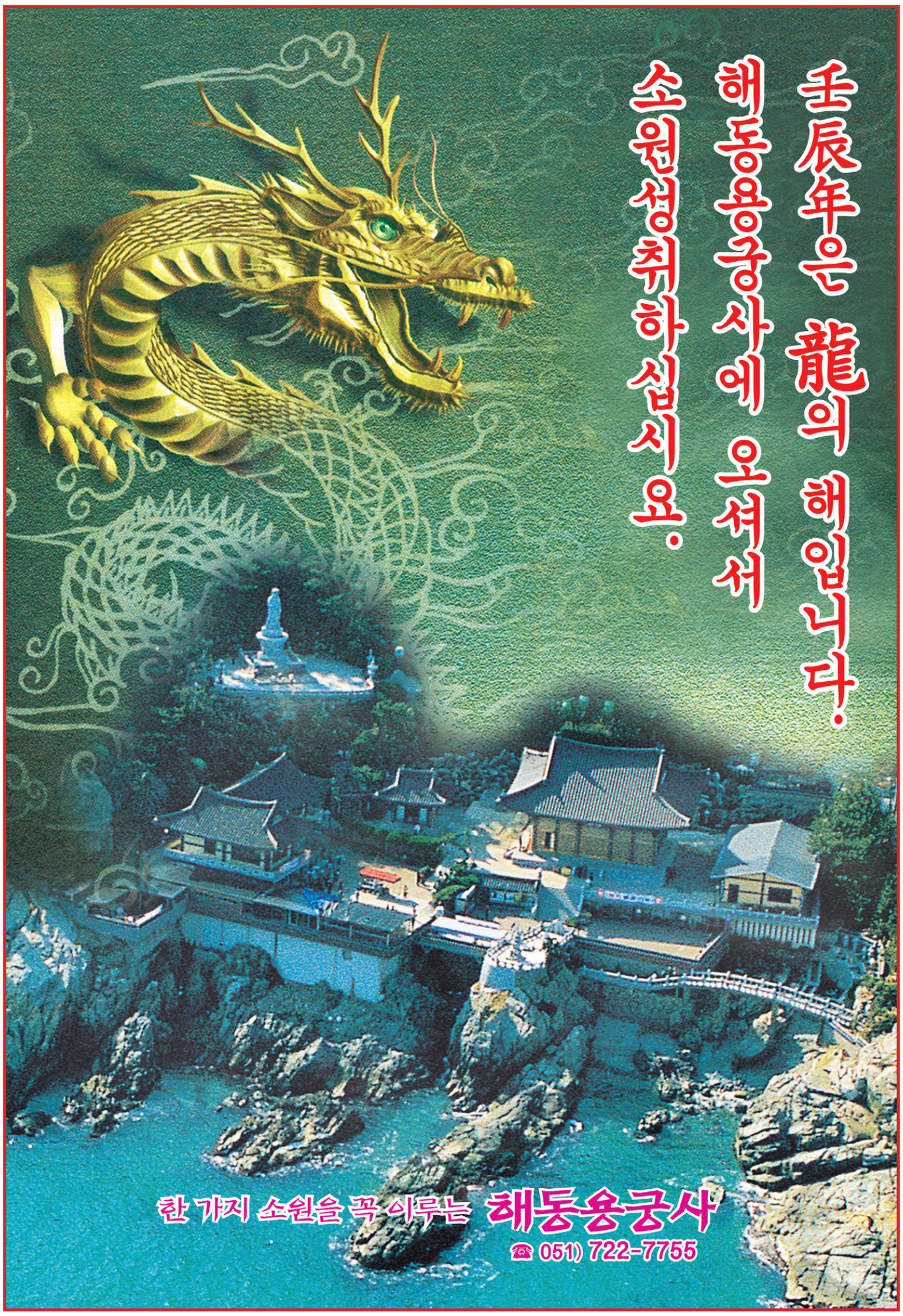
인디아타임스에 따르면 인도 바라트에 있는 마하트마 간디 카시 비댜피쓰(Mahatma Gandhi Kashi Vidyapeeth, 이하 'MGKV')가 '인도의 문화적 통합에서의 불교의 역할(Role of Buddhism in the Cultural Intergration of India)'를 주제로 2월 24일부터 7일간 워크숍이 마련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인도 예술사에서 불교의 영향'을 주제로 발제하는 고펠 야다프(Gopal Yadav) 교수는 "불교는 인도 예술과 문화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데 주목, 인도 중세문학에서의 불교의 영향을 추적할 예정이다.


'달마 범스'의 공연 무대

이 밖에도 라나 시느그(Rana P. B. Singh) 교수(바나라스 힌두대학 지리학), 프리스비쉬 나그(Prithvish Naag) 박사(힌두대학 명예총장), 비카르암 시느그(Mahesh Vikram Singh) 교수(MGKV 공동대표) 등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인도 델리에서는 "세계 유일의 불교 락 밴드인 '달마 범스(Dharma Bums)'의 공연이 성황리에 이어지고 있다"고 힌두스탄타임스(HindustanTimes)가 보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불교적 윤리관이 현대사회 문제 풀 열쇠"

세계의 불교학자(8)

데미언 키온Damien Keown
런던 골드스미스대 인도종교학과 교수



'불교경제학', '불교복지', '불교사회학' 등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재조명하고 있는 응용불교학이 학문적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환경파괴, 부정부패, 교실폭력 등 윤리가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불교윤리학'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학자가 있다. '불교윤리학' 분야의 권위자 데미언 키온(Damien Keown) 런던 골드스미스대 인도종교학과 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불교윤리학은 말 그대로 윤리학에 불교사상을 접목시킨 학문이다. 윤리학은 도덕의 본질 · 선악의 기준 · 인간 생활과의 관계 등을 연구하는 분야로, 여기에 불교사상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해 시대에 맞게 불교를 재해석한 학문 영역이다.

1951년 영국에서 출생한 키온 교수는 1992년 옥스퍼드대 초기불교윤리학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런던 골드스미스대학 교수가 됐고, 현재 빨리문헌학회(PTS; Pāli Text Society) 정회원이자 왕립아시아협회(Royal Asiatic Society) 이사이다.

키온 교수는 연구를 통해 불교사상 안에서 윤리학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생태 · 환경 · 사회문제에 대해 설명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키온 교수의 연구 특징은 덕윤리학(virtue ethics)에 기반을 두고 행위의 결과보다는 행위자의 인격과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이다. 또, 불교는 오늘날 의료윤리학이 다루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지와 불교적 윤리학이 객관적인 사실로도 주장될 수 있는지 등의 물음에 답해왔다.

서양에서 덕윤리학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가장 오래된 윤리체계 중 하나이다. 서양 전통의 덕(德; virtue)은 신중(prudence) · 정의(justice) · 절제(temperance) · 용기(fortitude)를 말한다. 키온 교수는 이 네 가지 덕목에서 신중을 반야(般若), 절제를 지계(持戒), 용기를 정진(精進)과 연결시켜 설명했다. 하지만 정의와 연결될 수 있는 불교용어는 다르마(Dharma) 등이 있으나 정확히 대응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바탕 위에 행위자의 인격과 역할의 중요성을 논할 때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보다 어떤 종류의 인간인가에 초점을 맞췄다. 덕윤리학의 바탕은 권리나 의무, 책임보다 선(善; goodness)을 근본적인 요소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키온 교수의 관심은 서양에서 가장 오래된 윤리체계인 덕윤리학에 불교사상을 적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불교의 윤리 생태학적 개념을 현시대에 맞게 설명하는 것이다. 즉 불교적 윤리가 낙태, 동물과 환경, 전쟁과 테러리즘 등의 윤리 생태학적 문제들에 대해 답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복제(therapeutic cloning)'도 반대하는 입장인데, 줄기세포를 얻는 과정에서 배아(인간생명)를 인위적으로 창조하고 폐기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살생(不殺生) 등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키온 교수의 주장은 본인의 저서 〈불교윤리학의 본질(The Nature of Buddhist Ethics)〉, 〈불교와 생명윤리학(Buddhism and Bioethics)〉, 〈불교와 낙태(Buddhism and Abortion)〉 등에 자세히 담고 있다.

불교 윤리 사상 바탕으로
서양 고대의 윤리체계 덧붙여
"부처님 가르침 불살생에
반하는 줄기세포 치료 반대"

키온 교수는 한국과도 인연이 있다. 1996년 현대아산재단의 초청으로 '동양전통사상과 불교사상-낙태 문제에 대한 입장'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한국과의 교류가 시작됐다.

또 2006년 동국대에서 열린 '지식기반사회와 불교생태학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키온 교수는 불교가 매우 윤리적인 종교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나 아직 연구가 미진해 일반 사회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답을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불교는 보시(布施)와 인욕(忍辱), 비해악(non-harming)과 비폭력(non-violence) 등 많은 윤리학적 개념들이 있고, 이러한 윤리는 동물에게도 적용돼 생태학에도 뛰어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키온 교수는 불교의 실천과 사상에 기반을 둔 덕윤리학이 '불교생태윤리학'의 원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그의 연구업적은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주성원 기자** jsw@hyunbul.com

허망한 줄 알면 그대들도 참모습 볼수 있네

경허 스님 수행 일화

⑫ 상여 가로 막은 무상설법

경허 스님이 만공 스님과 함께 먼 길을 나선 어느 날이었다.

한 낮에 민가는 눈에 띄지 않는 첩첩산중의 길이었다. 두 스님은 시장기가 들기 시작했다.

굽이진 산길을 돌아 어느 산마루턱에 당도했을 때 길 저편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오색 포장과 깃발 같은 것들이 늘어져 있는 상여의 행렬이었다.

고개 마루턱에서 쉬는 상여 행렬로 경허 스님이 만공 스님을 이끌고 다가갔다. 경허 스님이 상여 앞에서 염불 한 다음 음식을 청했다.

"시장해서 음식을 좀 청합니다."

막걸리 한 동이를 단숨에 비우니
상주 "무애행의 도높은 스님들
망인의 명당을 잡아주십시오"
"썩을 고기 덩어리에 명당이라니…"

한 상여꾼이 장난스럽게 대꾸했다.

"행상(行喪) 길이니 술 밖에 더 있겠습니까?"

상여꾼의 장난에 경허 스님은 태연히 말했다.

"술이 있으면 술을, 고기가 있으면 고기를 주시지요."

술을 달라는 말에 상여행렬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아따 참, 별 중들을 다 보겠네."

어떤 사람은 두 스님을 보며 빈정거렸다. 이때였다. 점잖은 상주가 나섰다.

"아니 큰 스님들이 어찌 술을 달라하십니까? 곡차라고 하지도 않고…."

경허 스님은 상주를 보며 답했다.

"시장한데 한잔 하면 되지, 굳이 다른 말할게 뭐 있겠소."

어이가 없어진 상주는 술 한 대접을 듬뿍 떠서 내놓았다. 막걸리였다.

헌데 경허 스님이 술잔을 받지 않고 손을 내젓는 게 아닌가.

"잔이 너무 작습니다. 차라리 바가지나 동이채로 주시오."

기가 막히면서도 기이한 스님의 행식에 흥미를 느낀 한 사람이 "어디, 동이 통째로 내 줘보지"하며 술이 가득 담긴 동이를 들어 경허 스님 앞에 내 놓았다.

경허 스님은 막걸리 한 동이를 단숨에 비워냈다.

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던 상주는 이 스님들이 틀림없이 도가 높은 스님들이란 생각이 들었다.

상주가 경허 스님에게 공손히 물었다.

"무애행(無碍行)을 하시는 도가 높은 스님들 같사온데 스님들의 자비로움으로 망인이신 우리 아버님의 명당을 하나 잡아 주실 수 없는지요?"

상주의 말에 경허 스님은 느닷없이 큰 소리를 버럭 질렀다.

"명당을 써서 뭣하게? 죽으면 다 썩은 고기 덩어리 밖에 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극진한 대접을 하면서도 혹시나 망자를 위한 영험함을 보일까 기대했던 상주의 동생들이 이 말을 듣고 모두 울화가 치밀었다. 상제들은 주정꾼의 주사 같은 경허 스님의 말투에 어이가 없어 모두 달려들었다.

"아니, 어디서 떠돌던 중놈들이!"

상장(喪杖; 상주의 지팡이)을 들고 당장에 후려칠 기세에 경허 스님이 맞섰다.

"네 이놈들!"

스님은 두 팔을 걷어 올리고 딱 버티고 섰다. 경허 스님과 만공 스님은 모두 육척이 넘는 건장한 체구였다. 스님들의 위세가 매우 당당했다. 순식간에 일어난 뜻밖의 사태에 상여꾼들과 회장꾼들은 그저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 때였다. 상주가 상제들의 흥분을 가라앉히며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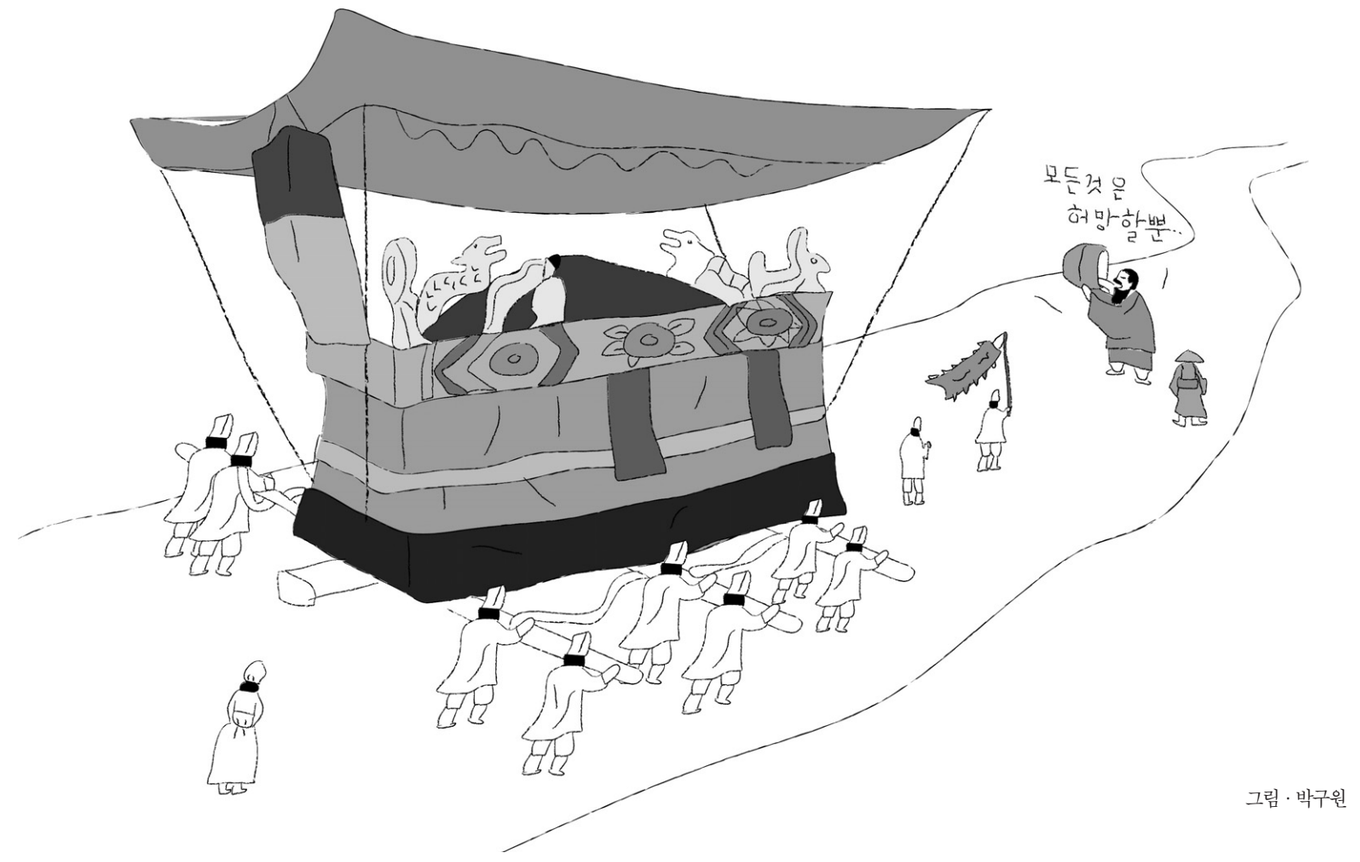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스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남화경(南華經)〉에도 있듯 사람이 죽으면 까막까치나 구더기의 밥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모자라서 알아 뵙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손의 도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상주는 행상길을 재촉해 떠날 차비를 했다. 잠자코 있던 경허 스님은 중얼거렸다.

"모든 것은 다 허망할 뿐이니 죽고 사는 것 원래 그러하므로 만약 모든 것이 참으로 허망한 줄 알면 그대들도 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일세."

생멸의 실상을 설하자 이를 듣던 상여 일행은 조용히 고개를 넘어갔다. 고개 너머로 상여의 구슬픈 소리가 바람결에 멀어져 가고 있었다.

⑬ 밀씨와 파씨

청양 장곡사(長谷寺)에 경허 스님이 잠시 주석하던 때였다. 경허 스님이 곡차를 잘 드신다는 소문을 듣고 인근 마을 사람들이 곡차와 파전을 비롯한 여러 안주거리를 정성껏 마련해 공양을 올렸다. 마을 선비들과 술자리가 무르익은 뒤 옆에 있던 만공 스님이 선비들에게 법문 한 소절 해주십사하는 마음에 경허 스님에게 말했다.

"스님, 저는 혹 술이 있으면 들기도 하고, 없으면 들지 않습니다. 이런 파전도 굳이 먹으려고도 하지 않고, 또 생기면 굳이 안 먹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스님께서 법문 한 소절…."

경허 스님이 만공 스님의 말을 끊고 대꾸했다.

"허어, 자네는 벌써 그런 무애 경계에 이르렀는가. 나는 그렇지 못하여 술이 먹고 싶으면 제일 좋은 밀씨를 구해 밀을 갈아 김을 매고, 가꾸어 밀을 베어 털어서 누룩을 만들어 술을 빚고, 걸러 이렇게 먹을 테네. 또 파전이 먹고 싶으면 파씨를 구해 밭을 일구어 파를 심고, 거름을 주며 알뜰히 잘 가꾸어 이처럼 파전을 부쳐 먹어야 하겠네."

이 말에 만공 스님은 등에서 땀이 나면서도 오싹해지고 정신이 아찔해졌다. 이때 만공 스님은 경허 스님의 무애행 도리를 깊이 깨달았다.

구성=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6㎝]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의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선원장 자격 박탈 및 멸빈

아래 사유로 대한불교화엄종에서는
선원장 자격 박탈 및 멸빈을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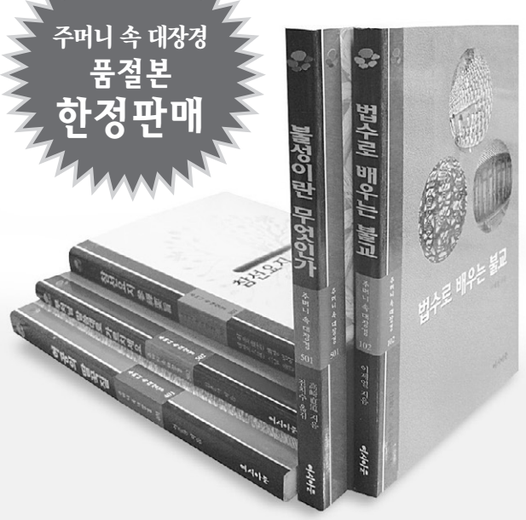
- 자비선원 선원장 자격 리더심이 부족하다.
-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부산종무소 자체 불하 시킨 행위
- 멸빈 사유 : 종도들 간의 이간질을 한 행위
- 대한불교화엄조계종 부산종무소를 실축시킨 행위
- 제출한 승적증명 모두가 허위로 기재된 행위

법 명 : 관 몽
성 명 : 장형보
주 소 : 부산 해운대구 중동. 자비선원

2012년 2월 18일

대한불교화엄조계종

주머니 속 대장경
품절본
한정판매



법수로 배우는 불교
이제열 지음 | 195쪽 | 값 4,500원

불성이란 무엇인가
전치수 옮김 | 205쪽 | 값 4,500원

허공의 딸꾹질
이종찬 지음 | 282쪽 | 값 5,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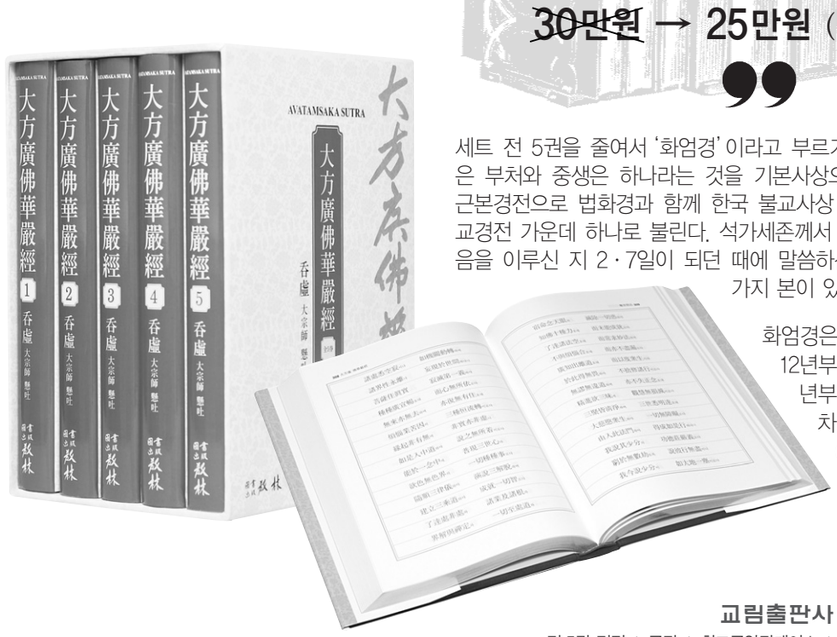
재가 불자를 위한 계율 강좌
혜능 스님 엮음 | 329쪽 | 값 6,500원

현불샵 (여시아문)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T. 02)2004-8216 / F. 02)737-0696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탄허대종사 대방광불화엄경 현토
(80권본)

특별판매

현불샵 독점판매 기념 할인 이벤트 「100질 한정판」
~~30만원~~ → 25만원 (선착순 마감)



세트 전 5권을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대방광불화엄경』은 부처와 중생은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삼고 있으며,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불교경전 가운데 하나로 불린다. 석가세존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지 2 · 7일이 되던 때에 말씀하신 것을 옮긴 화엄경에는 6가지 본이 있으며, 3가지 번역이 있다.

화엄경은 당나라 중종 임금의 사성 12년부터 16년까지, 즉 서기 695년부터 366년까지 5년 동안 실차난타가 번역한 것으로 7처에서 90회에 말씀하신 것을 모아 39품 8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나라 때 번역하여 당본 '화엄경'이라고 하고, 80권으로 되었다고 해서 '80화엄'이라고도 한다.

교림출판사
전 5권 전질 | 금장 | 최고급양장케이스 | 라이온코트지 미색 80그램 | 올케이스 | 전질2도 인쇄

현불샵 02)2004-8215

“어린 나무, 뿌리 잘 내려야 하니 기초 잘 잡아 줘야”

시인 이해인 수녀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어/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따뜻하고 정감어린 말씀으로 세상과 함께 했던 법정 스님이 어린왕자 곁으로 가신 지 어언 두 해. 해방둥이 이해인 수녀가 곱다라니 수놓은 시 ‘나를 키우는 말’을 읊조리면서 “태초에 말씀이 있으셨다”는 성경 구절이 떠올랐다. 깊은 고요 끝에 나온 첫 말씀에는, 따뜻한 말로 서로 보듬어 안아 세상을 보다 아름답고 환하게 수놓으라는 큰 뜻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 날마다 고운 말을 쓰며 사랑하기에도 모자란 이 세상. 험한 말을 하며 헛되이 보낸 세월은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게 된다.

어느 해 도예가 김기철 선생 전시회 때, 법정 스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들은 이해인 수녀는 성당 다니는 엄마들과 전시회장엘 갔다. 그곳에서 보기 드문 신선한 풍경이 벌어졌다. 성당 다니는 엄마들은 스님한테 사인해 달라고 하고, 불자들은 이해인 수녀한테 사인을 부탁하는.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로 말을 많이 할 선량들에게 일러주고 싶다. 법정 스님 수필집 한 권, 이해인 수녀 시집 한 권은 꼭 읽고 난 뒤에 출사표를 던지라고.

천주교신자는 법정 스님 사인을
불자는 이해인 수녀한테 사인을
“맑고 투명한 수녀님 언어에
소리 없이 박수를 보냅니다”

“76년 2월에 제 첫 시집 〈민들레 영토〉가 나왔을 무렵, 법정 스님은 이미 〈영혼의 모음〉과 〈무소유〉로 독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계실 때였어요. 법정 스님 글에 매료된 동무가 불일암 주소를 적어 보내면서 〈민들레 영토〉를 한 톨 스님 암자에 날려 보내지 않겠느냐고 편지를 보냈어요. 저는 스님께 편지를 드리려는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동무 얘기를 듣고 불일암으로 편지를 드렸어요. 그런데 스님이 생각보다 빨리 답장을 주셨어요. 다정하게. 저는 스님이 쓰신 글 가운데 〈영혼의 모음〉에 있는 ‘어린왕자에게 보내는 편지’가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런데 스님이 어린왕자 촌수를 이야기 하면서, 시는 누워서 읽어야 제 맛이라며 격려 말씀을 해주셨어요.”



修女님

보내주신 사연과 詩集 감사히 받았습니다. 어린왕자 촌수로 따진다면 우리는 친구입니다. 밤하늘별을 바라볼 줄 아는. 누워서 〈민들레 영토〉를 몇 편 읽었어요. 詩集을 뻣뻣한 자세로 읽을 수야 없으니까요. 맑고 투명한 修女님 言語에 소리 없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영원한 사랑의 약속과 함께 시와 더불어 살겠다는 결의’에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나는 큰절에서 한 오리 떨어진 암자에서 혼자 삽니다. 밥도 짓고 나무도 하고 졸기도 하면서 비교적 게으르게 지내고 있답니다. 바삐 돌아가는 세상에 대해서는 무척 미안하지만 얼마동안은 이렇게 지내고 싶습니다…. 요즘 내 암자 뜰에는 해질 녘이면 달맞이꽃 잔치입니다. 저녁 시간은 그 애들이 문 여는 것을 지켜보면서 消日합니다….

두 분 현품대조는 법정 스님이 돈연 스님과 함께 이해인 수녀가 사는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녀원을 찾아 이루어졌다. “스님께 도너츠를 드렸더니 ‘증거인멸 합시다.’ 그러면서 드시데요. 증거인멸이란 말을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때 스님 인기가 막하늘을 찌를 때라 피하고 싶으셨나 봐요. 타종교 기관에 가면 숨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집에 오신 김에 예비수녀들에게 한 말씀해주시라고 부탁드렸어요.” 법정 스님은 수녀님들이 아침 묵상을 할 때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모두 고개를 앞으로 수그리느냐 건강을 생각해서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묵상을 하라면서, 절제하는 삶과 수도생활 초심자들이 가져야할 마음가짐을 일러주었다. “스님과 광안리 바다를 거닐었어요. 그때는 바다가 한적했거든요. 스님은 ‘산만 보고 살면 국이 없는 밥을 먹는 것 같은데, 바다를 보면 마치 국이 있는 밥을 먹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묵상 하라
서로에게 이롭지 않은 말은 ‘꿀컥’
수도자 말 많으면 속이 빈 증거
풍년들어 모두 잘살길 기도합시다

수녀원 아침 기도에 동참한 법정 스님은 ‘여러분이 빚을 져서는 안 되겠지만 사랑해야 할 빚만은 남아있다’는 바오로 성안이 너무 좋다고 베껴 쓰기도 했다. 스님은 이해인 수녀에게 여행용 성물(십자가)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바다 생각이 난다면서 천주교 분도출판사 시청각실에서 나온 닐 다이아몬드가 작곡한 ‘갈매기의 꿈’이란 영화 주제음악 테이프를 구해달라고도 했다. “산에서 우표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예쁜 우표가 새로 나오면 구해서 보내드리면 아주 좋아하셨어요. 또 스님 부탁으로 〈이름 없는 순례자〉란 책을 구해서 보내드렸더니, 스님이 ‘내 지령에 즉각 응답해주신 수녀님께 감사드린다’는 편지를 주셨어요. 스님하고 서른 해 남짓 우정을 쌓았다 해도 만나 뵌 것은 열 번이나 될까요? 가끔 편지나 주고받는 인연이었어요.”

이해인 수녀가 지원자 담당을 할 때 보살피는 예비수녀들이 법정 스님을 좋아한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이해인 수녀는 스님한테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쓰라고 해서 스님에게 보냈다. “스님이 아홉 자매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자상하게 공동답장을 보내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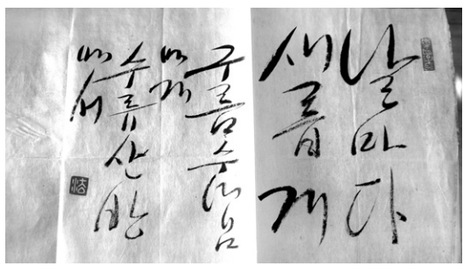
아홉 자매님 고마운 편지에 대한 回信을 뒤늦게 씁니다. 말째 베로니카: 어제 큰절에서 수련하는 학생들이 40여 명 우리 佛日에 올라왔기로, 一列 횡대로 새워 놓고 거꾸로 보기를 시켰습니다. 그 모습 또한 볼만해요. 방문객들에게 노래를 시키는 게 요즘 내 취미랍니다…. 여섯 째 류 글라라: 요즘은 소위 日照量이 적어 잘 마르지 않은 빨래를 말려야 합니다. 땀 흘리지 않더라도 內衣는 자주 갈아입는 게 내 성미입니다. 베개가 높으면 안 좋대요. 高枕 短命也라…. 아가다: 그래요. 진정한 친구는 말이 소용없지요. 수도자는 말을 할 때 세 번쯤 생각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나한테도 이롭고 듣는 쪽에도 이로운 말일까? 서로가 이로운 말이라면 하고, 이롭지 않은 말이라면 삼켜버려야 합니다. 꿀컥. 수도자가 말이 많은 것은 속이 그만큼 비었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아셀라: 올 여름 이 지루한 장마는, 비님을 좋아한다는 아셀라를 위해 있는 것 같군요. 그런데 농사가 안 되어 큰일입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흉년이 들면 어쩌지요? 풍년이 들어 모두가 넉넉하게 살아지이다 하고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큰 언니 히야친타: 성급해서 하루 전날 왔다구요? 그래요. 집을 떠나려고 결심이 되면, 누가 어디서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조급해지는 게 모든 出家 수도자 심경일 것입니다. 마아가린 통에 바이올렛을 심듯이, 정성을 다해 수도생활에 한결같이 정진한다면,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8월 말쯤 우리는 현품대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들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1980. 8. 15 빗날 佛日庵에서 합장

“스님은 제게 새 이름 가운데 뻐꾸기 이름 밖에 아는 게 뭐가 있느냐면서 놀리기도 하셨어요. 또 대학원엘 갔을 때 비교종교학을 공부하는 것도 괜찮다든지, 중요한 터닝 포인트 때마다 조언을 해주셨어요. 지원자 담당을 할 때는 어린 나무는 뿌리를 잘 내려야 되니까 기초를 잘 잡아 줘야한다고도 하시고. 제게 야단도 치셨어요. 글씨 못 쓴다고. 편지를 두세 번 되풀이해서 읽어야 문맥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고. 제게 가끔 후원금을 홍콩 돈으로 보내는 엄마가 있었는데, 보내온 돈을 착착 접어가지고 스님 뵈면





송광사 불일암을 방문한 이해인 수녀 일행이 법정 스님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법정 스님이 이해인 수녀에게 보낸 글과 엽서

맑고 향기롭게 후원금이라고 드렸어요. 그러면 스님은 '또 러브레터 주는 거야?' 말씀하곤 하셨어요. 제가 환속한 친구 때문에 힘들어하면, 달래주는 편지를 주시고. 한번은 유명세 때문에 하도 힘들어가지고 스님께 여쭈려고 광주에서 베토벤음악감상실을 하는 정옥 보살님이랑 불일암을 찾았어요. 그 때 스님이 밭에 가셔서 손수 농사지은 케일을 따다가 갈아 주셨어요. 너무 써서 얼굴을 찡그렸더니 대접을 하면 웃으면서 마셔야지 소크라테스가 독약마시는 표정을 하고 있다고…."

한번은 기자들이 법정 스님 마음을 묶어둔 난초이야기를 하면서, 수녀님 마음을 잡아둔 난초는 뭐냐고 물었다. 법정 스님이 아끼던 난초를 바람 쏘이려고 바깥에 놔두고 깜빡 잊고 나들이 갔다가 뒤늦게 그 일을 떠올리고 허겁지겁 돌아와 보니 뜨거운 햇살을 받은 난초 잎이 축 늘어져 있더라는 이야기다. 그 뒤 스님은 가까운 지인에게 난초를 들려 보냈다. 이해인 수녀는 돈이나 모든 살림을 공동체에서 관리를 해주니까 조개껍질 몇 개와 솔방울 몇 이 붙들어 맬까. 다른 건 없다고 답을 했단다. 말씀 끝에 인세 쓰임새가 궁금했다. 이태 전 법정 스님이 원적에 드셨을 때 기자들이 가장 궁금해 한 것 가운데 하나가 스님 인세는 어디에 어떻게 썼느냐 이었기에. "저는 계좌번호는 앵무새처럼 달달 외우지만 만들 때말고는 통장을 본 적이 없어요. 그저 한 해를 마감할 때 그동안 들어온 인세가 얼마나 되는지 경리과에 뽑아 달라고 부탁해요. 출판사에 고맙다는 인사는 해야 하니까요. 저도 사람이기에 궁금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얼마가 들어왔는지 보게 되면 다른 맘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옛날엔 이만큼 벌었는데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해서 보자는 말을 하지 않아요. 이곳에 들어올 때 청빈서원을 하고 모두 공동소유기 때문에, 제게 도움을 청하는 이웃이 있으면 수녀원에다 '좀 도와주십시오' 올려서 수녀원 이름으로 돕지. 제 이름으로 하는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에요." 무소유는 철저하게 공동소유를 가리킨다.

몇 시간을 이야기 나누다보니 '내가 지금 암을 앓고 있는 분을 만나는 게 맞아?' 싶게 이해인 수녀는 한 마디로 '씩씩 명랑' 모드다. 까닭이 뭘까? "제가 밖에 살았으면 한 가정을 일궜겠지요. 그런데 수도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꾸렸으면 갖지 못했을 많은

암투병 이해인 수녀 '명랑 씩씩'
"내 아픔이 이웃에게 위안 된다니 기쁜일이고 선물입니다"
방문객 맞기 '찬미 영광 드리는 일'

벗과 이웃을 다 친척처럼 여기게 되었어요. 게다가 병을 앓다보니까 한 순간순간이 너무나 소중해요. '어? 내가 살아서 움직이네.' 언젠가는 다 내려놓고 떠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 용서 못 할 일이 없고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놀랐어요. 아픔을 요리하고 받아들이는 제 방법에. 울고 짜고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외려 기쁜 거야. 이런 저를 보면서 나 참 괜찮네. 아픔 가운데 진주를 발견한 이 기쁨.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몰랐을…."

이해인 수녀를 따르는 암 환자들은 "수녀님 같은 분도 암에 걸리니까 내가 암에 걸린 게 죄는 아니다." 또는 "수술을 앞두고 걱정이 되는 데 수녀님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는다. 나도 수녀님처럼 암하고 동무가 되어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면서 이해인 수녀도 암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는 편지를 보낸다. "내 아픔조차도 사람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이야? 선물이네. 그러다 보니 푸념하고 한탄할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픈 사람들이 친밀감을 느낀다니까 괜히 벙글벙글 웃게 돼요. 아픈 사람이 전보다 더 밝다고들 하죠." 그렇기에 이해인 수녀가 머물면서 시를 쓰고 글을 다듬는 글터이자 작은 문학관인 서재는 암환자들에게나 그 밖에 다른 이들에게 위안과 기쁨을 주는 '마법의 성'이자 '아낌없이 주는 나무'다.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고 '명랑 씩씩' 한 꿈이 샘솟는 곳이기에.

"암 환자들이 대개 침울해요. 언제 또 병이 도질까.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 수녀원에도 암환자가 늘어가니까 안 되겠네 싶어서 '아픈 사람 다 모이'게 해서는, 아픔을 상징하는 가시달린 '찔레꽃'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암 환자 수녀님들 모이세요.' 하기보다 '찔레꽃들 모이세요.' 하면 듣기도 좋잖아요. 언론에 암 정보가 나오면 같이 나누기도 하고, 가끔 뭐 먹고 싶으냐고 물어서 나눠먹기도 하고, 얼떨결에 제가 '찔레꽃' 대표이사가 됐어요. 왕언니."

이해인 수녀는 새로 암환자가 생기면 러브레터를 써서 보내고, 명랑 투병을 한다. 다 나은 사람은 함박꽃이라고 부르면서 기꺼운 마음으로 강퇴시킨다. 지지난해, 간암으로 투병하던 찔레꽃 한 송이가 떨어졌다. 꼬박 한 해를 앓다가 돌아갔는데, 발병하자마자 '수녀님, 저도 찔레꽃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랬단다. "그렇게 찔레꽃 학교에서 졸업한 그 수녀님은 비록 암에 걸려서 내일 당장 병원에 실려 가더라도 아직은 웃을 수 있으니 고맙다며 즐겁고 기꺼워했어요. 처음엔 재미삼아 찔레꽃 모임을 만들었는데 너무 좋아요. 저는 기억력이 좀 좋아서 누가 지나가는 말로 뭐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면, 기억해뒀다가 '수녀님, 이거 갖고 싶다 그랬지?' 하고 주면 '아니, 수녀님한테 부탁드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서 눈이 동그래져요. '바람결이 전해주던데.' 그러면서 줘요. 큰일은 못해도 매개 노릇을 잘해요. 기쁨 발견 연구회." 그야말로 타고난 사랑을 주는 메신저. 기쁨 발견 연구회장이다.

"예기치 않게 불쑥불쑥 찾아오는 사람도 그전 같으면 냉정하게 맞았을 텐데, 요새는 '이게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는데' 싶어서 선뜻 맞아들여요. 정현종 시인이 '방문객'이란 시에서 '사람이 오는 일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한 사람 일생이 온다'고 했듯이, 그 사람 일생이 내게 오는 건 이 순간뿐인데 놓치고 후회 말고 잘해드리자.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어느 때는 몸이 고달프기도 하지만, 테레사 수녀님말씀처럼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하지 뭐' 이러면서 이 일이 성당에서 올리는 기도 못지않게, 주님께 찬미 영광 드리는 일이다. 사람들이 날 만나면 기쁘다니까 보여줄 수 있을 때 기꺼이 보여드리지 하는 마음이에요." 이해인 수녀 기도는 날줄과 씨줄이 어우러지는 살갑고 도타운 정情이자 그리움이고 애틋함이다.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고영배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복수불반분



동국대 선학과 교수

군자가 항상 명심해야 할 아홉가지(九思)가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색사온(色思溫)이라고 한다. 색사온은 사람을 대할 때 나의 안색이 온화했는가를 반성해 봐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기분에 따라 감정을 표출할 뿐 상대에 대한 배려는 아랑곳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잠깐 그러한 행위를 정지해 보면 상대와는 무관한 일인데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생기고 만다.

사리(事理)의 옳고 그름이나 이러고 저러함의 분간을 말할 때 경위(涇渭)라는 말을 쓴다. 이 경위는 위수와 경수를 지칭한 말이다. 경수(涇水)의 강물은 흐리고 위수(渭水)의 강물은 맑아서 맑고 탁함의 구별이 분명하다는데서 나온 말이다. 저 유명한 강태공(姜太公)이 곧은 낚시질로 세월을 낚은 것도 무대가 위수였다. 그리하여 후일 그는 주(周)나라 문왕에게 발탁되어 제나라를 세우게 된다.

입신하지 못한 남편을 타박한 나머지 친정으로 달아난 마(馬)씨 아내는 남편이 출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 재결합하자고 간청했다. 그러자 강태공은 치미는 감정을 억제하며 낮은 목소리로 동이에 물을 길어오라고 했다. 부인은 시키는 대로 할 밖에 도리가 없었다. 동이에 가득 물을 길어오니 이제 그 물을 마당에 부어 보라고 했다. 시키는 대로 하고 나니 이제 엎질러진 물을 담아보라고 했다. 물론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 때 강태공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 '복수불반분(覆水不返盆)'. 즉 엎질러진 물은 다시 동이에 담을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범어로 인간을 마누샤(manushya)라고도 하고 둘라밤이라고도 한다. 동사 Bhṛi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 '고통을 참다', '포함하다'는 뜻이다. 여기서 둘라밤은 '얻기 힘든 기회'라는 뜻이다.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본다. 한 생명체가 인간으로 환생하려면 8400만 번의 윤회를 거듭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기에 인생난득(人生難得)이라고 표현했나 보다. 인간 몸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숫자로 살펴보았다. 이 소중한 몸으로 좋은 생각을 하면 천상행이 되고 궂은 생각을 하면 나락행을 하게 되는 의업(意業)의 행위야말로 섣불리 이러쿵저러쿵 생각의 실타래를 늘어놓을 일이 아니다.

마음으로 짓는 행위는 형체가 없으므로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동서남북으로 분주히 날뛰기 일쑤다. 그러다보면 어렵게 얻은 사람 몸도 지탱하기가 쉽지 않아진다. 마음을 심지(心地)라고도 한다. 마음이 선악을 만들어 내는 것은 대지가 오곡을 생육하는 것과 같다는 점에서 하는 말이다. 또한 선종에서는 달마 대사로부터 전해진 마음을 말한다. 혹은 심성(心性)이라고도 한다.

능화자(能化者)와 소화자(所化者)라는 말이 있다. 타인을 교화하는 사람을 능화자라고 하며 교화 받는 사람이란 뜻으로 제자를 소화자라고 한다. 누구나 능화자가 되기를 꿈꾸고 있지만 교화 받는 시절을 뛰어 넘어 일순간에 능화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필연적으로 소화자는 능화자의 검증을 거쳤을 때만이 미숙의 베일에서 벗어 날 수 있다. 그 베일을 벗어던지는 일은 순간이다. 눈썹을 치켜뜨거나 눈동자를 굴려 보이는 지극히 일상적인 일 속에서 이루어진다.

목수는 열심히 대패질을 하고 혹시 목재가

'경위'의 경수는 맑고 위수는 흐려
맑고 탁함 구분해서 사리분간
위수에서 세월 낚다 출세한 강태공
"엎질러진 물 다시 담을 수 없다"

원하는 만큼 곱게 다듬어졌는지 확인을 한다. 작은 너스래미가 발견되면 곧 그 곳에 대패가 오고 간다. 등산객들도 평지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산행을 하다보면 너설을 만나기 일쑤다. 너설은 험한 바위나 돌 따위가 삐죽삐죽 내밀어 있는 곳이다. 삶도 일정한 여정이다. 그 여정 속에는 산행길에서와 같이 너설을 만나게 된다. 여기서 너설은 시련이라고 힘들어 해서는 안된다. 너설을 지나면 사람이 성숙하게 되고 너설을 극복하면 인욕의 묘미도 터득하게 된다.

선수행에서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가히 선지식이라 칭할 수 없다. 형상 없는 마음공부에서도 검증이란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림자 없는 형상을 밝혀내고 원근(遠近)을 초월하며 침묵 속에서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수행자야말로 실로 인천의 사표가 되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 둥근 두리반이 있으면 좋겠다. 둥근 소반은 어떻게 놓아도 둥글기만 하다. 그러다 보니 차별을 짓지 않고 고하를 만들지도 않으니 상대와 다툴 리 만무하다.

우주는 크나큰 두리반이다. 우주가 선악미추, 고저장단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힘은 두리반의 속성을 지녔기 때문일 것이다.

창사 19주년 기념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미얀마
▣ 3월 출발
◇ 양곤 | 바고 | 시리암 5일 – 1,290,000
◇ 양곤 | 바간 | 헤호 6일 –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7일 – 요금문의
* 특급(세도나 또는 동급)호텔, 업그레이드 식사, 비자 포함
* 전 일정 특급호텔, 가이드 기사 팁, 호스카 포함 / 유류할증료 불포함
■ 인 도 완벽 8대성지 9일 / 10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전통불교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장사 | 장가계 | 원가계 | 천문산 5~6일 (요금문의)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02)365-7747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소원성취 인등 및 사리함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크리스탈 인등
A/S 법당 전선 10년 외곽 전선 5년
불제재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16나한 모신 법당 응진전은 기도처로 유명

오랜 세월 이름도 많았던 연주대(戀主臺)

조선시대 도성에서 삼각산 비경과 더불어 많은 사랑을 받은 곳은 관악산이었다. 관악산 봉우리 모습으로 삐죽삐죽해 멀리서 보면 화로 같다. 한양을 도성을 정할 때 이것이 걸림돌이었다. 그래도 이만한 곳이 없자 광화문 앞에 해태상을 세워 불을 감시하는 한편, 숭례문 현판을 세로로 제작해 화기를 눌렀다. 후에 숭례문 남쪽에 연못[南池]을 만들어 수(水)로 화(火)를 다스렸다. 관악산과 도성 사이 한강이 있는 것도 위안이 되었다.

화기가 가득해 조정의 근심이 될망정 관악산은 봉우리마다 풍광이 남달라 문인들이 자주 찾은 명소였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말이면 이곳을 찾는다. 관악산 정상에 오르면 사람들이 감탄하는 암자가 있다. 연주대(戀主臺)이다. 글자대로 해석하면 주인을 연모하는 뜻이다. 그런 내용이다 보니 세월이 지나며 이곳에 여러 이야기가 실리게 된다.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고려 신하가 사라진 왕조를 연모하는 의미이다. 조선조 이야기로는 왕위에 대한 안타까움에 실렸다. 양녕대군과 효령대군이 왕위를 버리고 이곳에 올라 경복궁을 바라보면서 주군을 연모했다는 것이다.

세상 이야기는 모두 그 시대를 반영한다. 이곳의 사연 역시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것이라면 거짓이든 진실이든 그리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게 의미를 붙이고 싶었던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다. 깎아지른 듯 서있는 암석 위에 자리한 이곳에 오면 팍팍한 능선을 오르느라 근심을 내려놓고, 푸른 하늘을 이고 있는 연주대를 보면 욕심이 절로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세종대에는 이곳을 불성봉(佛成峯)이라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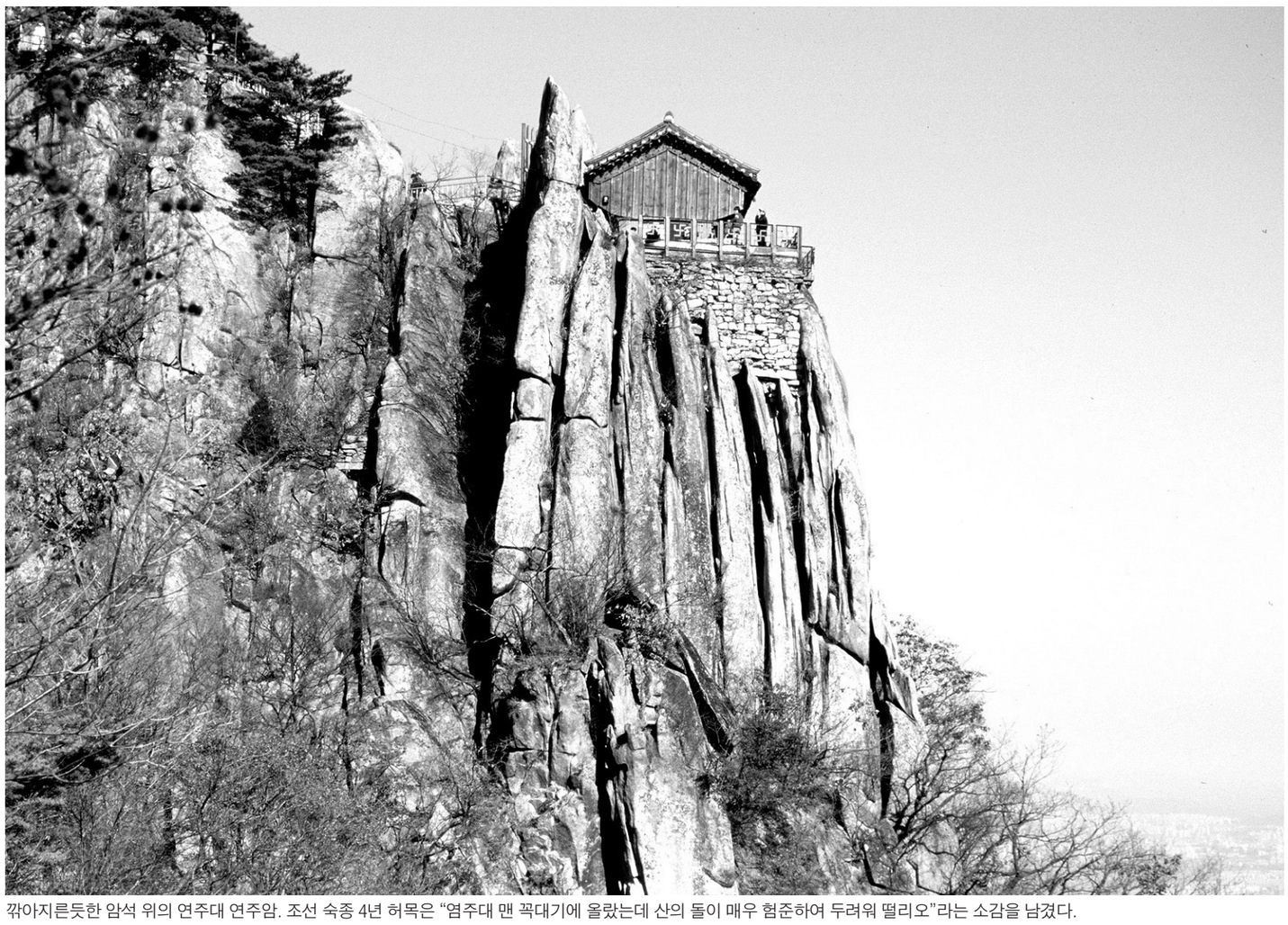
여러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연주대는 처음부터 그 이름은 아니었다. 조선 초 이곳을 찾은 문인들의 기록을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은 영주대(靈珠臺)이다. 세종 21년(1439)에 태어나서 연산군 10년(1504)에 졸한 성현(成俔)이 남긴 〈허백당집(虛白堂集)〉에 관악산에 올라 영주암에 이르렀다는 시가 있다.

이보다 앞서 관악산에 올랐던 성간(成侃)은 관악사에 머물면서 관악산을 탐사한 〈유북암기(遊北岩記)〉를 남겼다. 그 기록을 보면 승려의 안내로 관악산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풍광을 감상했다. 그런데 관악 북쪽으로는 인도하지 않자 성간이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북쪽은 숲이 깊고 바위가 험해 가기 어렵다고 말렸다. 그래도 성간은 꼭 가보고 싶어 덤불을 베어 내고 넝쿨을 잡으면서 북녘에 이르렀다. 바위가 집 천장같이 되어 있고, 그 아래는 빙 둘려서 천길이나 되었다. 처음에는 깜짝 놀라 정신이 아찔하였다. 마침내 정상에 올라 두 다리를 뻗고 그 위에 걸터앉았다고 적고 있다.

이 글에 나오는 관악사는 폐사돼 터만 남아있다. 그 터에서 보면 영주대가 있는 곳이 북쪽이다. 지금 우리가 봐도 경관이 수려하니 예전인들 수려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성간은 영주대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그냥 그 광경만 바라보며 '조물주가 나를 위해 펼쳐 놓은 것 아니겠는가' 하고 자연풍광에 대해 만족감만 전하고 있다.

영주대 → 염주대 → 연주대
양녕·효령 대군 경복궁 바라보던 곳
욕심절로 없어진다하여 '불성봉'
법당에는 석가·약사여래·16나한 봉안


연주대 연주암 응진전. 세평 남짓한 법당에는 석가 여래상과 약사여래상 16나한이 모셔져있다.


깎아지른듯한 암석 위의 연주대 연주암. 조선 숙종 4년 허목은 "염주대 맨 꼭대기에 올랐는데 산의 돌이 매우 험준하여 두려워 떨리오"라는 소감을 남겼다.

숙종 4년(1678) 4월 미수(眉叟) 허목(許穆)은 자신의 문집에서 관악산 영주대를 오른 감회를 남겼다. 지금이야 난간도 있고, 줄도 있어 남녀노소가 편안하게 오르지만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었던 시절 이곳을 오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허목은 다녀온 소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관악산에 들어가 영주대(靈珠臺) 맨 꼭대기에 올랐는데, 산의 돌이 매우 험준하여 지금 생각해도 두려워 떨리오. 그러나 세상 살아가는 길과 비교하면 오히려 평탄한 길이었소. 늙은이가 이런 우스갯소리를 함에 다만 딴 사람들이 알까 두려우니 우습소. 못다 말하오."

그밖에도 17~18세기 발간된 안헌징(安獻徵)의 〈구포집(鷗浦集)〉 심유(沈攸)의 〈오탄집(梧灘集)〉 김유의 〈검재집(儉齋集)〉 이만부(李萬敷)의 〈식산집(息山集)〉을 비롯해서 이익(李瀷)이 쓴 〈유관악산기(遊冠岳山記)〉 등 여러 문집에서는 이곳을 영주대로 표현하고 있다. 이익은 1704년 4월 관악, 원각 두 절을 지나 영주대 아래에 이르렀다. 영주암 터에서 휴식하고 드디어 대에 올랐다고 적고 있다.

영주암은 이후 염주암(念主菴)으로 불렸다. 정조 13년(1789) 12월 판중추부사 이복원(李福源)과 채제공(蔡濟恭)을 소견하였을 때다. 진안대군(鎭安大君)이 위화도 회군 이후 가족을 데리고 세상에 숨어 살 뜻으로 철원(鐵原) 보개산에 들어가 은거한 것과, 조선 건국 이후에도 국가 일에는 일체 간여를 않고 태조로부터 토지와 집을 하사 받아 고향인 함흥으로 가서 여생을 보낸 것에 대해 훌륭한 일로 말하면서 양녕대군의 덕행과 의리도 그에 못지않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세종이 온전히 보전해 준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하였다. 그러자 채제공이 "관악산 제일봉(第一峯)에서 경복궁이 바라보입니다. 양녕대군도 필시 여기에 올라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직도 차일(遮日)을 쳤던 흔적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염주대(念主臺)라고 일컫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채제공의 말에 의하면 주군을 사모했다는 연주대(戀主臺)의 내용은 그 무렵 세간에 널리 퍼져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양녕대군의 이야기에 어떻게 효령대군이 더해졌을까? 아마 효령대군이 사후 과천 북쪽 동적리(同積里)에 묻히면서 덧붙여진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 후 이곳에 효녕각(孝寧閣)이 세워지고 영정(影幀)을 모시면서 더욱 굳어지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정조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채제공은 그의 나이 67세가 되던 정조 10년(1786년) 관악산에 오른다. 산행을 한 소감을 적은 것이 〈유관악산기(遊冠岳山記)〉이다. 여기서는 이곳을 연주대(戀主臺)로 적고 있다. 그 후부터는 19세기 중반 편찬된 박윤묵(朴允默)의 〈존재집(存齋集)〉에도 연주대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 후부터는 그렇게 불린 것 같다. 이런 과정을 보면 연주대는 18세기까지 영주대로 불리다가 18세기 후반 염주대로 불리다가 연주대로 굳어진 느낌이다.

연주대 전각은 응진전이다. 나한을 모신 곳이다. 세평 남직한 법당에는 석가여래상과 약사여래상 그리고 16나한이 모셔져 있다. 나한은 아라한을 말한다. 초기불교와 부파불교에서 아라한은 깨달음을 이룬 성인을 칭했다. 부파불교 시절 수행자들은 수행에 정진해 일곱 번의 윤회를 남겨 놓은 단계를 예류과라 했다. 한 번의 윤회를 남긴 단계를 일래과, 더 이상의 윤회를 하지 않는 단계를 불환과, 그리고 깨달음을 이룬 단계가 아라한과인 4과설을 주장했다. 그래서 아라한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 무학(無學)이라 한다. 또한 응공(應供)이라 번역하는데 이것은 마땅히 공양 받을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다. 여래의 열 가지 이름 가운데 두 번째 이름이다.

이참에 공양에 대해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많은 불자들이 사찰을 찾는다. 가면서 여러 가지 공양물을 준비한다. 미처 준비하지 못했을 땐 불전을 놓는다. 많은 불자들은 이런 공양물을 부처님께 시주하여야만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생각이다. 공양물을 갖고 가는 것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준 분이므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불교에서 좋은 결과는 자신이 지은 선업의 결과이다. 진리를 깨달은 부처님을 참배하는 일 자체가 선업이니 복이 없을 수 없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여운 중생들이 왔는데 빈손으로 돌려보내겠는가.

깨달음을 이룬 아라한의 위치가 대승불교로 오면서 그 의미가 축소되고, 동아시아로 넘어오면서는 수행자의 모습으로 변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500나한, 1200나한 등 모시는 숫자도 많아졌다. 수행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모든 번뇌를 끊고 계율을 지키는 수행 때문에 법력이 대단하다. 그래서 나한에게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전해지고 있다. 연주대 나한의 영험 역시 인근에 소문이 자자하다.


김경집/진각대 교수

범음범패 학인모집

부처님의 말씀이나 게송을 노래(천보음악)로 만들어 보는 이나 듣는 이로 하여금 기쁨 가득찬 환희심을 일어나게 한다면 그는 이미 도를 이룬것과 같다(법화3부경 제1권 방편품 제2장39절), 옛날부터 전래되는 범음범패의식을 초급, 중급, 고급 수련과정을 통해 능숙해지도록 도와드립니다.

◇ 자 격 : 스님 및 삭발 염의하실 예비스님
◇ 예비소집 : 2556(2012)년 3월 8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 개 강 일 : 응화북전 3039년 남전열반 2556년(2012년) 3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553-6 지장사 2층 범패의식교육원
◇ 수 업 일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핵심경전 집중강의(초발심자경문부터), 중식 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시간 이론 및 소리실기 + 작법 2시간실기
◇ 과 목 : ◆바 라 작 법 = 천수, 사다라니, 관욕화의재, 요잡, 츰부다라니(예수재전점안시 바라작법)
◆착복무작법 = 도량게, 향화게, 다게, 옴남, 귀경이, 운심게, 오공양, 법고무
◆사물장단은 기본 국악관악기 : 산조대금, 소금, 단소, 향피리, 태평소, 퉁소다루기 (착어, 영가축원, 생축시 배경음) 의향 있으신 학인에게만 전수
◆법당북연주타법 : 송주성타법 3가지의 에드립타법 7가지 합10가지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등 산사음악회용 찬불국악리듬
◆재 의 식 반 : 49재, 천도재, 기재, 상용영반, 산신재, 해상용왕재, 시다림 등
◆대재의식반 : 영산대재, 생전예수대재, 무차수륙대재, 국가적위령대재 등
◆이운의식반 : 삼신이운, 불,사리이운, 고승사리이운, 대종사이운, 설주이운 등
◆각종 점안의식반 : 각종불상, 보살상, 신장, 나한, 탱화, 가사, 전 점안의식, 복장의식 등
◆핵 심 경 전 강 의 : 의식집에 있는 경전의 핵심인 열반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아미타경 등의 사구게를 영가와 산자에게 들려줘야 함에 이들 경전의 핵심만을 추려서 학인의 이해를 도와 지식을 증장해야 의식을 집전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

강 주 : 교육원장 홍인 스님 010-5325-8123, 053-632-0078
문의전화 : 지장사 대구 포교당주 학장 범성 스님 010-9243-0113

전통 범음범패 (바라, 작법) 과정
학 인 모 집
삼귀의 ,사홍서원, 거불

1.교육과목 :
기초 - 도량석,아침종송,사시마지,저녁예불,각단예불, 목탁,요령, 북,태징, 동광쇠, 타법
기본 - 천도재의식 :
1. 시련,대령,관욕,39위.
2. 봉청짖소리,대령소(고혼소)복천게,향화청(짖소리), 고아일심귀명정례, 긴소리,짧은소리.
3.상단, 관음시식,상용영반
4.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요잡바라,화의재바라
5.나비춤(도량게,다게)
고급 - 생전예수제,수륙재,방생,시다림, 종사영반 , 다비식, 종사이운, 괘불이운

2.개강일시 : 2012년 3월 31일 개강
3.교육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2시~ 오후 6시
4.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별도)
5.접수처 및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서부종무원사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62-1서강빌딩502호)
6.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종무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1매
7.접수기간 : 상시
8.연 락 처 : 051)442-1818 / FAX: 051)442-1817 010- 2554-5582 (총무국장)

한국 불교 태교종 부산서부종무원

금강경 강의

홍법스님과 함께하는 쉽고 재미있는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금강경 기도와 관음기도로 그 동안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은 저의 눈높이 만큼 금강경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1.일 시 : 2012년 3월 8일(목)
오전 10:00~12:00 1회
오후 19:00~21:00 2회
준비품 : 금강경 책자와 필기구
대 상 : 누구나 공부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누구나
동참금 : 월 5만
* 설법 내용으로도 좋습니다.

2. 氣 명상 수련반 모집
3. 매일 금강경 기도와 관음기도
4. 빙의 현상, 현대 불치, 난치병 치료
5. 자기 원불과 기도방법 알려 드립니다.
6. 생활, 인생상담 및 제반사항 상담
7. 각종불공, 천도재, 바라춤, 오공양 작법, 태평소 대행

부산 진구 부암 3동 458-141
참회 관음기도도량 홍법사
향림 홍법 합장
문의 : 010-2570-8512

분에 넘치는 이익을 바라지 말라. 분에 넘치는 이익은 마음을 어리석게 한다. 적은 이익으로써 부자가 되라. - 법구경 -

늘 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쑤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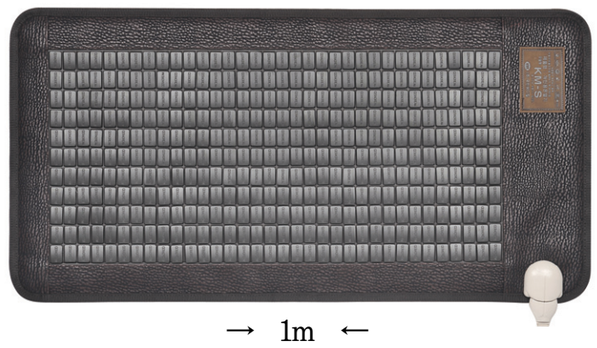
귀사문석(貴蛇紋石) 만능 미니 온열매트!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426호, 품목허가 제09-651호입니다

인간의 기본 체온은 36.5℃인데 1℃ 떨어지면 **저체온(冷氣)**이 되어 **면역력이 30%↓** 된다. 피부속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생명의 빛! 원적외선이 93%** 이상방출되는 **방안의 숯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자.

※ 두한족열(頭寒足熱) : 머리는 차갑게(귀사문석 베게 발은 뜻하게 (귀사문석 온열매트)

※ 낮에는 의자나 쇼파에, 밤에는 침대나 요 위에 놓고 하루 24시간 찜질을!



귀사문석 374개로 구성

■ 제 조 원 : (주)국민메티컬 / 경기 양주시 율정동 115번지
■ 판 매 원 :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광명시 광명7동 305-50
■ 문의전화 : 02)2681-8122 선재생활건강(주) 입금계좌 : 농협 355-0014-5055-43

귀사문석(貴蛇紋石) 이란???

귀사문석은 흑녹옥이라고도 하고, 비취라고도 하는 아주 희귀한 보석이다.
귀사문석은 의학적인 면에서 볼때 다음과 같은 효능이 있다.

1. 원적외선 방사율이 아주 높다 : 귀사문석을 약 40℃의 열을 가하였을 때 원적외선이93%이상 방사 된것이 증명되었다.(한국 건자재 시험연구원, 원적외선 응용평가센터에서 테스트한 결과)
2. 귀사문석은 氣를 잘 돌게하는 역할을 하는데 기존의 옥보다 3배이상의 많은 氣가 방출되는 천연의 강력한 방사체이다. 현대생활 주택이 시멘트 구조로 되어있어 地氣를 차단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귀사문석은 그 대체효과가 매우 높다.
3. 귀사문석은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항균효과는 86%에 달한다. 또한 귀사문석은 냄새 제거능력이 있는 신비한 광석이다.

온열매트의 의학적 효과

건강한 사람의 평균 체온은 섭씨 36.5℃이다. 그런데 1℃만 내려가도 면역력이 30% 떨어진다. 즉 냉증 또는 저체온이 되면, 자율신경중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서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구가 줄어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특히 체온이 35℃로 내려가면 암세포가 증가할 수가 있다. (우리 신체에선 매일 3천개-1만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지지만 면역력 덕분에 암에 걸리지 않는다) 냉증(冷症) 즉 저체온이 되면, 그 증상으로 손과 발이 저리고 무릎이 시리다. 그리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찬 음식을 먹으면 설사로 고생도 한다. 또한 당분, 지방 등 영양소의 흡수율을 떨어뜨리고 고지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 몸은 지구를 세바퀴나 돌 수 있는 9만km의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적혈구가 엉기는 현상은 저체온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몸을 따뜻하게 해서 세포 안에 충분히 열이 전달되도록 하면 적혈구의 엉김현상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실제로 원적외선을 이용해 신체 내부까지 골고루 열을 가하면 즉시 엉켜 있던 적혈구들이 원상회복 된다. 그래서 고지혈증을 예방할 수 있다.

생명의 빛 원적외선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층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리통증완화, 장속의 노폐물, 중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현대생활 주택이 시멘트 구조로 되어있어 자연적으로 지기(地氣)를 차단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귀사문석은 천연의 강력한 기(氣) 방사체이므로 자연적으로 신체에 활력소가 되어준다. 귀사문석은 항균효과 86%,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



귀사문석 온열매트와 귀사문석 베게를 함께 드립니다.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New 신제품 흑룡초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新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 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야광 호랑이 양초 연봉 돈타래 7.0∮× 34㎝ / 야광 용 양초 연봉 원기둥 7.0∮× 34㎝ / 육각초 7.0∮× 34



연화 大 9.5∮× 11㎝, 연화 中 9∮× 10㎝, 연화 小 7∮× 6.5㎝ / 밀납연화 小 7∮× 6.5㎝



와까바 / 후라지아 / 영원향 장,단(소바라) / 향수림 / 우리향,백단향,설중매,인삼향,대발향,쑥향,백목향,목향

임진년은 흑룡의 해 입니다
흑룡초로 소원성취 기도 하십시오



크기 ∮7.5 × 29cm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한지백팔사경 5종※



26호 신묘장구대다라니(한글)



27호 반야심경(한문)



29호 츰부다라니(한글)



30호 반야심경(한글)



28호 대불정능엄신주(한글)

※ 26, 27, 29호, 30호는 사경책 1권을 사경하시면 108번 사경이 됩니다. 단, 내용이 많은 28호 능엄신주사경책은 4장 1조로 구성되어 책 1권에 27회 사경할 수 있으므로 총 4권을 사경하셔야 108번 사경이 됩니다.

할인가 14,000원(10권 이상) 정 가 20,000원(1권)
• 내 지 : 한지 108장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크 기 : 435㎜×300㎜

종이영가옷 / 예수재함 / 종이신발



A형-남 정가 1,500원 A형-여



B형-남 정가 1,300원 B형-여



동남 정가 1,000원 동녀



수자영가옷 정가 900원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예수재함A (50개 1박스)



예수재함B (50개 1박스)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50원



종이신발(남/여) 1켤레
100개이상 할인가 1,300원
정 가 1,600원



한지접은 영가옷/위패
각100개 30,000원
• 남자/여자/위패



영가/방수등표大
판매가 35,000원
• 비닐+등표+집게
• 9.6㎝×22㎝
• 100매

믿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연등 할인가

• 공단등(6㎝)	@2,500원 (50개이상)	• 비닐만월등(100개)	160,000원 (1Box)
• 공단등(8㎝)	@3,000원 (50개이상)	• 비닐만월등(국산)	170,000원 (1Box)
• 공단등(10.5㎝)	@5,000원 (24개이상)	• 연화만월등(100개)	240,000원 (1Box)
• 공단등(13㎝)	@10,000원 (12개이상)	• 영가만월등(100개)	170,000원 (1Box)
• 공단등(20㎝)	@35,000원 (4개이상)	• 장 만 월 등(100개)	200,000원 (1Box)
• 바림등(6㎝)	@2,500원 (50개이상)	• 청사초롱등(100개)	270,000원 (1Box)
• 바림등(8㎝)	@3,000원 (50개이상)	• 비 단 접 등(10.5㎝)	340,000원(100개)
• 바림등(10.5㎝)	@5,000원 (24개이상)	• 비 단 접 등(12㎝)	350,000원(100개)
• 바림등(13㎝)	@10,000원 (12개이상)	• 종이주름등(200개)	160,000원 (1Box)
• 바림등(20㎝)	@35,000원 (4개이상)		
• 공단·바림 칼라등(30㎝)	@80,000원		

방수전선(한줄50구)
23㎝ / 25㎝ / 30㎝ 5줄이상@ 65,000원 | 50㎝ 1m / 2m 기타주문생산



LED전구 A형
110,000원[국산]
1BOX : 50개
색상 : 촛불색/주광색



안전 인증 제품

전구(5W/8W)
@ 450원 [국산]
1BOX: 100개
제조원: 동진전구



봉축카드[21종]
@ 300원(1,000장 이상)
구성 : 봉투, 내지 인쇄포함
내지 : 18.5×25.6cm
봉투 : 19×13cm



연잎(일반)/바림/신칼라(천)
5,500원/ 7,000원/ 25,000원
연분/진분/노랑/주황
빨강/녹색/흰색



집게부착PVC등표
20,000원
(100개)
크기: 8.5×21cm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121068-56-042256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육군대장이었던 사명대사

사명당(泗溟堂) 대장(大將)


사명당 영정

성웅(聖雄) 이순신(李舜臣) 장군이 해군제독이었다면, 임진왜란 당시 승군(僧軍)들을 이끌고 싸운 사명 대사는 육군대장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 10여 점 정도 남아있는 사명당의 진영(眞影) 중에 동화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된 사명 대사의 영정(보물 제1505호)에는 선사(禪師)·율사(律師)가 아닌, 대장이라는 군대 최고지휘관의 명칭을 달고 있다.

동화사 사명 대사 진영은 원래 조사전(祖師殿)에 모셔져 있었다. 보물 지정 후 수리복원을 거쳐 현재는 동화사 성보박물관 지하 수장고 깊은 곳에 모셔져 있다.

사명대사 진영은 얼마 전 국립중앙박물관의 특별전 '초상화의 비밀'에 특별 대여돼, 사명 대사를 진신(眞身)으로 보고자 했던 많은 대중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었으리라 믿는다.

임금도 비호한 사명대사 수염
동화사는 임란때 승군사령부

대사의 영정은 가경(嘉慶) 원년(元年) 병진(丙辰) 8월이라는 간기를 보아 대략 1796년에 그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사의 모습은 등받이가 높은 의자에 앉아 좌안칠분면(左顔七分面, 왼쪽 얼굴이 70% 정도 보이는 방식)으로 그려져 있고, 신발을 벗고 의자에 결가부좌로 앉아 오른 손엔 불자(拂子)를 들고, 백묘법(白描法)의 가는 필선으로 이목구비를 그린 다음, 승병대장의 기백을 보여주는 긴 수염을 드리우고 있다.

사명 대사의 제자 혜구(惠球) 스님이 사명 대사의 문집 서문을 〈홍길동전〉의 저자 교산(蛟山) 허균(許筠)에게 청했다. 그곳에는 "병신년(1596년) 겨울에 나는 괴원(槐院, 승문원, 조선시대 외교문서를 맡은 관청)에 벼슬하고 있었는데, 나라일로 영의정 서애(西厓, 유성룡) 상공을 뵈었다. 그때 스님은 긴 수염을 늘어뜨리고 그곳에 계시었다"라고 적고 있다.

선조 임금도 비호(庇護)해 주었다는 긴 수염은 어떤 의미일까? 어릴 적, 서울 청계천 인근의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관우(關羽) 장군의 사당인 동묘(東廟)에 갔다가 관우 장군의 긴 수염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은 일이 있다. 관우 장군은 중국에서 갖춘 성인(聖人)으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그의 사당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과 명나라가 왜군을 물리치게 된 까닭이 관우장군의 덕을 입었기 때문이었다고 여긴 명나라 황제가 직접 현액을 보내왔고, 이를 1601년(선조 34년) 동묘를 지어 모신 것이다. 그 관우의 아름다운 수염과 사명당의 수염이 유사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 인지도 모른다.

또, 봉황이 산다는 봉서루(鳳棲樓)에는 임진왜란 당시 동화사(桐華寺)가 영남(嶺南) 지역 승병 지휘부였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영남치영아문(嶺南緇營牙門)' 편액이 붙어있다.

조선왕조실록 성종(成宗) 126권, 12년(1481년, 신축년) 2월 23일(정묘) 5번째기사에는 "공조(工曹), 이제 전교(傳敎)를 받으니, '오동나무를 배양(培養)하는 절목(節目)을 상의(商議)하여 아뢰라' 고 하셨는데, 오동나무는 악기(樂器)와 군기(軍器)에 그 쓰이는 곳이 가장 긴요합니다."라고 기록돼 있다.

봉황이 산다는 오동나무 숲은 무기(武器)를 만들고, 거북선과 같은 군선(軍船)을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목재를 생산하는 숲으로, 나라를 지키는 숲이었던 것이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영화·드라마에서 본 사찰은 어디?

서울시 '영화가 사랑한…100선' 서
길상사, 봉원사 등 소개

2006년 방영된 TV 드라마 '닥터 깽'에서 두 주인공인 강달고(양동근 분)와 김유나(한가인 분)는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와 같은 집에 살게 된다.

달고는 언제나 비밀스런 이야기를 나눠야 할 때마다 알록달록한 연등이 매달린 사찰로 향한다. 드라마에서는 길상사 일주문이나 작은 계곡 위로 다리를 만들어 이어놓은 길상헌이 주로 나왔다.

서울시내 수많은 명소 중 영화·드라마 속에 출연한 사찰은 어디일까.

서울시는 서울영상위원회와 함께 영화와 드라마 속 단골 촬영지를 소개한 〈영화가 사랑한 서울 촬영지 100선〉을 발간했다고 2월 17일 밝혔다.

책에서 길상사, 봉원사, 봉은사, 인왕사, 그리고 만해 한용운 스님이 머물던 심우장을 포함한 서울 촬영지 100곳을 소개하고 있다.

소개된 100곳 모두 각각의 장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그곳에서 촬영된 영화 및 드라마의 등장인물, 간단한 스토리 등과 함께 제공된다.

또한 촬영명소 100곳으로 선정되진 않았지만 소개된 장소 주변의 또 다른 촬영지 정보도 함께 소개해 지역을 방문하는 독자들이 인근의 촬영명소와 연계해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자는 크게 촬영명소 100곳을 소개한 본문과 추천 투어코스를 수록한 부록으로 구성됐다.

본문은 서울의 촬영명소 100곳을 '보다' '느끼다' '쉬다' '즐기다' '취하다'의 5가지 주제로 분류해 소개했다.

'보다' 편은 대치동 문화복합공간 크링, 청담동 명품거리, 개포동 구룡마을, 북아현동 골목길 등 서울의 과거·현재·미래의 모습을 생각해볼 수 있는 장소 26곳을 보여준다.

'느끼다' 편은 노량진 수산시장, 경동시장 등 주요 재래시장과 용산 후암동, 종로 계동의 주택가 등 삶의 애환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장소 26곳을 소개한다.

'쉬다' 편에서는 하늘공원, 선유도 공원 등 시내 공원과 여의도 윤중로, 덕수궁 돌담길 등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서울 도심 속의 휴식처 20곳이 선택됐다.

'즐기다' 편은 코엑스 아쿠아리움, 롯데월드, 신사동 가로수 길 등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나 가족들의 주말 나들이 장소로 유용한 15개 장소를 추천한다.

'취하다' 편은 경복궁, 경희궁 등의 고궁과, 남산골 한옥마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등을 통해 역사의 숨결이 현대식 건물들과 공존하고 있는 서울 13개 명소를 소개한다.

드라마 '닥터 깽'의 배경으로 등장한 길상사는 '취하다' 편의 성북동 코스로 소개됐다. 책에서는 "길상사는 봉은사나 조계사 같은 사찰과 달리 수목이 울창해 그늘이 많다"며 "종교에 상관없이 한 번 쯤 방문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천주교 신자인 조각가 최종태 씨가 만들어 봉안한 마리아상을 담은 관세음보살상을 보면 종교와 이념을 초월해 자신을 다스리고 남을 이해하고자 하는 인문적 가르침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을 듯 하다"고 설명했다. 길상사 주변 관광지로는 만해 한용운 스님이 머물던 심우장도 소개돼 있다.

드라마 '여름향기'에 나온 배우 손예진의 집과 드라마 '최고의 사랑'에 나온 구애정의 집은 서대문구에 위치한 봉원사 아래 주택에서 촬영됐다. 특히 드라마 '최고의 사랑'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극 중 구애정의 집 아래 모여 독고진이 오기를 목이 빠져라 기다렸다는 후문이다.

봉은사는 영화 '아는 여자'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의 촬영지였던 잠실야구장 주변관광지로 소개됐다. 책에서는 보물 제321호 고려청동루은향로와 추사 김정희의 현판, 템플스테이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밖에 인왕사는 영화 '이끼', '숨'의 촬영지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의 주변추천 장소로 소개됐다.

한편, 이번 책자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와 일본어로도 제작돼 서울시 광화문 관광안내소(국문, 영문, 일문) 및 서울시 글로벌센터(영문, 일문)에서 무료 배포될 예정이며, E-book으로도 제작돼 서울시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에서 책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영화가 사랑한 서울 촬영지 100선〉에는 길상사, 봉원사를 포함한 서울 촬영지 100곳이 소개됐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길상사 일주문, 길상사를 배경으로 촬영한 드라마 '닥터 깽'의 한 장면, 서울시에서 발간한 책 표지.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안장헌 사진작가, 서원(書院) 사진전

3월 23일까지
인제대 김학수박물관서

전통문화의 미를 담백한 시각 언어로 기록하는 사진작가 안장헌 선생의 '서원(書院), 선비의 숨결을 느끼다' 사진전이 김학수기념 박물관(인제대 백인제기념도서관 내)에서 3월 23일까지 열린다.

사진전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 퇴계의 정신을 이어가는 도산서원, 자연 속의 탁월한 건축공간인 병산서원 등 100여 곳의 서원 사진이 전시됐다.

안장헌 선생은 (사)신라문화원 자문과 한국불교사진협회 고문을 맡고 있으며 문화유산사진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저서로는 〈사진으로 배우는 사진촬영교실〉 등이 있다. 또한 안 선생은 사진작가 최초로 '대한민국 문화유산상'을 수상한 바 있다. (055)320-3616 **이나은 기자**


화엄경약찬게(사주보)

목진형 사경 초대전

3월 6일까지 인사아트프라자에서

목진형 선생의 사경 초대전이 인사아트프라자에서 3월 6일까지 열린다.

전시에서는 '화엄경약찬게' '비천상' 등 15점이 전시된다. 목진형 선생은 대한민국전통사경기능전승자인 외길 김경호 선생으로부터 사사받았다. 제7회 서예문화대전 대상작가이기도 하다. (02)736-6347 **이나은 기자**





초기 유학파 '한국적 사유' 조명

'1958, 에콜 드 파리'…
손동진, 권옥연 등 전시




① 손동진, 석굴암, 1962, 91×91㎝, 캔버스에 유채
② 김환기, 새, 1961, 60×90㎝, 캔버스에 유채
③ 이성자, 샘의 눈물, 1958, 54×65㎝, 캔버스에 유채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난 1920년대 후반, 파리는 세계의 물질적 풍요가 모이는 중심점이자 문화적 수도였다. 샤갈 피카소 모딜리아니 키슬링 등 외국인 화가들은 파리 몽파르나스에 모여서 예술활동을 했다. 이들의 다양한 문화가 융합하고 충돌하면서 파리에서는 수많은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미술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앙드레 와르노는 1925년 문학잡지 〈꼬메디아〉에서 처음 에콜 드 파리라는 용어를 사용해 이런 현상을 묘사했다. 이후 에콜 드 파리는 20세기 초 유럽에서 일어났던 아방가르드 미술운동의 중심에 서 있던 예술가들을 총칭하는 말이 됐다. 이를 통해 파리는 제3세계의 젊은 작가들에게 동경과 이상을 상징하는 곳이 됐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나자 한국의 젊은 화가들도 하나둘씩 파리로 건너갔다.

식민지 시기인 1920년대 후반 배운성, 나혜석 등은 파리를 근거지로 활동한 제1세대이다. 1958년, 파리에 도착한 젊은 한국인 작가들은 예술적 자유와 문화적 풍요가 넘치는 천국에서 본격적이고 진정한 제1세대 한국인 '에콜 드 파리'를 형성했다.

이들은 한국전쟁을 통해 가장 처절한 인간적 비극을 목격하고 가장 비참한 문화적 궁핍을 경험한 후였기에 그들이 가진 갈증과 열망은 비례해 컸을 것이다.

이들은 특정 유파나 경향에 한정되지 않았다. 각자의 독특한 방법으로 자유로운 창작에 몰두했다. 세계 미술계를 풍미하던 주류적 경향에 휩쓸리지도 않고 예술의 아방가르드적 태도와 이념을 수용하면서도 한국적 주제나 미의식 전통성 서정성이 녹아든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포기하지 않았다.

신세계갤러리는 3월 17일까지 현대미술의 대가로 자리한, 제1세대 재불(在佛) 한국작가들의 '1958-Ecole de Paris' 전시를 개최한다.

전시에서는 1958년 파리에 머물며 한국적 추상미술을 열어간 권옥연(1923~2011), 김환기(1913~1974), 남관(1911~1990), 손동진(1922~), 이세득(1921~2001), 이성자(1918~2009) 등의 작품 32점이 전시된다.

1956년 파리로 건너간 김환기는 자신이 지녔던 추상화풍을 확장시켰다. 그는 "파리에서 본 거장들의 작품을 통해 자신이 지금까지 그려오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고백했다. 한국적 소재를 추상화로 표현한 1950년대 작품 '항아리(1956)'나 '새(1960)' 등 추상에 얹은 한국성을 드러낸 작품에는 그가 파리거장들로부터 체득한 리듬과 운율이 보인다.

손동진은 일본유학을 마친 1954년 바로 파리로 떠났다. 그는 파리에서 서구의 근대미술을 직접 보고 싶었지만 오히려 우리의 전통에 대한 관심과 고전을 재발견했다. 그는 예전 경주에서 살았던 경험을 되살려 낙랑 신라 고구려 등의 전통소재를 서구적 표현양식을 거쳐 '석굴암' '탈춤' 작품을 선보였다.

1955년 파리에 도착한 남관은 '파리야경' 등 작품을 통해 타향에서 앓은 외로움과 고뇌를 정형화되고 기하학적인 추상화로 표현했다.

이성자는 한국작가 중 프랑스 화단의 중심에서 역량을 발휘했던 제1세대 재불한인작가이다. 그의 업적을 기리기위해 프랑스 정부는 1991년 '예술·문학 최고 훈장'을 수여했다. 이성자는 도자기, 목판화와 같은 동양적 향취와 이미지를 담아내는 한국적 소재에 애착을 갖고 서양적 해석을 통해 현대미학으로 승화시키려했다.

1955년부터 파리생활을 시작한 권옥연도 추상을 흡수했다. 평면적이던 풍경과 인물은 추상적인 실험의 진행에 따라 형체를 바꾸어갔다.

신세계갤러리는 "이번 전시는 한국 현대미술 정착기를 풍미한 대가들의 전환기를 비교하며 볼 수 있는 기회"라며 "전쟁의 비극을 넘어서 유럽으로 건너간 한국인 작가들이 유년시절 무엇을 꿈꾸고 이뤘는지 상상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310-1921 이나은 기자

독도 · 4대강 문제 회향 염원 담아

강행원 화백 14번째 개인전


통일대불, 가공캔버스, 수묵혼합채색, 53×45.5㎝

1980년대 '난지도' 연작을 비롯해 주로 그늘진 삶을 주제로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현장을 화폭에 담아온 윤산 강행원(64) 화백이 14번째 개인전을 연다.

강행원 화백은 3월 6~1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전아트센터 갤러리에서 '자연과 사람들'을 주제로 전시회를 갖는다.

강 화백은 독도를 넘보는 일본의 망령을 환기하는 내용을 담은 '우리에게 신이 내린 선물 독도'를 비롯해 '4대강의 물길순례' '춤과 서민의 삶' 그리고 통일을 염원해 그린 '통일대불' 등 다양한 작품 35점을 선보인다.

그는 "이번 전시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당면한 독도문제와 4대강을 바라보는 시각을 화두로 던지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02) 2105-8189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봄을 기다릴 때



무슨 생각을 그리 했을까. 낙수와 낙수 사이에서 겨울바람은 어쩔 수 없었다. 한 생각이 될 수밖에. 사라져야 하는 찰나와 찰나 사이에서 겨울바람은 어쩔 수 없었다. 숲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겨울은 자연이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인 것 같다. 처마에 매달린 고드름을 봐도 그렇고, 숲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 생각에 매달린 겨울바람을 봐도 그런 것 같다. 겨우 머리와 손톱을 길러내는 동안 숲은 바람을 기다리며 야위었고, 바람은 숲을 그리며 견디고 있었다.

고드름이 녹기 시작했다. 겨울바람은 숲으로 돌아가고 낙수는 미련 없이 찰나를 따라갔다. 무슨 생각을 그리 했을까. 낙수와 낙수 사이에서 겨울 햇살은 어쩔 수 없었다. 한 생각이 될 수밖에. 사라지는 찰나와 찰나 사이에서 겨울 햇살은 어쩔 수 없었다. 바람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무슨 생각을 그리 했을까. 꽃이 피는 날? 따뜻해진 새소리? 곧 봄이 올 것 같다.


편집국 사진부 차장

한국의 **선시감상** 조선 송계나식 선사의 '그윽한 흥[幽興]'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吾今所構屋 (오금소구옥) 내가 지금 지어 놓은 집
山水最清奇 (산수최청기) 경치가 최고로 맑고 빼어나.
坐月起幽興 (좌월기유흥) 달에 앉으니 그윽한 흥 일고
臥雲斷是非 (와운단시비) 구름에 누우니 시비 끊기네.
鶴巖千丈直 (학암천장직) 학 바위 천 길 뻗쳤고
龍瀑百層垂 (룡폭백층수) 용 폭포 백 층 드리웠네.
眞箇無窮景 (진개무궁경) 참으로 무궁한 경치
問山付與誰 (문산부여수) 산에게 묻노니 누구에게 줄까?

조선 송계라식(松桂懶湜; 1685~1766) 스님은 왕가의 후예로 승방에서 독서하다가 스님들의 청정한 수행을 보고 깨달은 바가 있어 출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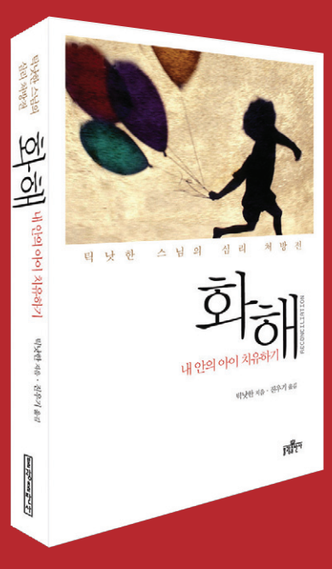
스님은 '안으로는 스님이요 밖으로는 시인[內釋外騷]'이라는 평가만큼이나 시작(詩作)에 뛰어나 자연 소재의 순수한 서경과 서정의 시를 많이 남겼다. 이 시는 서경에 서정을 잘 가미했다.

스님은 자신의 토굴을 경치 좋은 산수간에 지어 놓았다. 달과 구름 속에서 스님은 그윽한 흥을 일으키고 시비분별을 끊는다. 달과 구름에 동화되어 가는 집 주인의 마음을 우선 읊었다. 이제 집의 배경이 되는 자연을 보여준다. 높이 솟아 있는 바위산에 학이 깃들어 살고 층층이 부서져 내려오는 폭포수에는 용이 잠겨 있을 듯하다. 시각과 청각의 효과를 동시에 거두었다. 더불어 학의 고고함과 용의 생동하는 활발발함으로 스님의 내면 상태를 노출시켰다.

〈화엄경〉의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능히 모든 세간을 그려낸다"는 말처럼 자연을 어떻게 그리는 가는 바로 내 마음에 달려 있음을 잘 보여 준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말구에서 '산에게 묻는다' 하였다. 주객이 바뀐 것이다. 스님은 애초에 산이 주인이었음을, 빼어난 경치는 내 마음이 그려낸 그림이 아니었음을 할(喝)하였다. 스님이 읊고자 하였던 그윽한 흥[幽興]이란 바로 '전도(顚倒)된 생각에서 벗어난 主客未分의 도리' 그것이었다.


원법 스님(운문사 중강 · 조계종 교수아사리)

틱낫한 스님의 심리 처방전



화해
내 안의 아이 치유하기

세계인의 멘토 틱낫한 스님의
마음 치유 이야기 결정판!
인생을 건너가는 힘을 주는
가장 구체적인 화해의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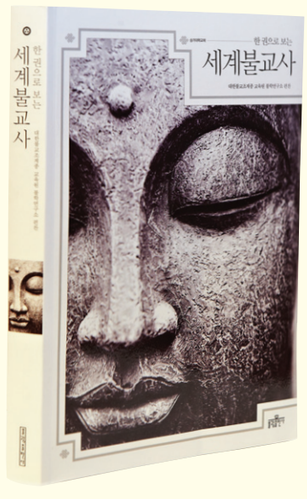
틱낫한 지음 | 진우기 옮김
240면 | 13,000원

"당신 안의 아이와 화해하라.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진다."

한 권으로 보는
세계불교사

변화와혁신의21세기

미래 불교가 나아갈 길은? 도전과 응전의 2,600년 역사속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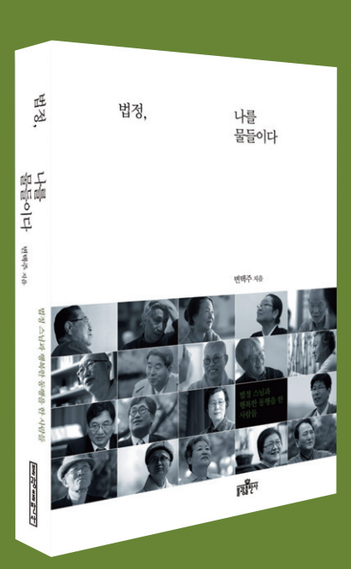


승가대학 교재
508면 | 23,000원

인도 | 중국 | 일본 | 베트남 | 스리랑카 | 미얀마 | 태국
캄보디아 | 티베트 | 몽골 | 타이완 | 미국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twitter @bulkwang_c facebook www.facebook.com/bulkwang

법정 스님과 행복한 동행을 한 사람들



법정,
나를 물들이다

꽃은 다시 가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때 그곳에다 모두 내맡긴다.
그렇게 지금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

변택주 지음 | 352면
15,000원

"그래, 너는 네 세상
어디쯤 와 있느냐?"



“자연은 그대로가 완성이기에…”

정곡 스님의 산사에세이 통방산 오두막 소식



날사랑하여요
정곡 스님 지음
종이거울 펴냄
1만6000원

한 청년이 있었다. 청년은 율브리너를 동경해 삭발을 하고 다녔다.

어느 날 그는 마곡사를 찾았다. 그곳에서 만난 스님이 물었다.

“너는 왜 머리를 깎았느냐?”

“작해 보일까 싶어서 깎았습니다.”

“참 착함이 무엇이냐?”

청년은 말문이 막혔다. 짧은 순간이지만 생각해보니 착하다는 것은 상대적이었다. 이곳에서는 착함이 저곳에서는 악함이 될 수 있었다. 머뭇거리던 청년이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공부하고 싶지 않느냐? 잠깐만 하다가도 된다.”

청년은 스님의 말에 3년만 공부하겠다고 생각해 출가했다. 그리고 30년이 넘게 흘렀다.

경기 양평의 통방산 정곡사의 정곡 스님은 수좌이다. 청년은 30여년간 ‘이뭣꼬’ 화두를 들고 쉼 없는 정진을 해왔다. 스님이 펴낸 통방산 오두막소식 〈날사랑하여요〉에는 선악을 초월해 대자연과 우주를 품은 글 · 사진 등 참 선함을 일깨워주는 메시지들이 가득하다.

책의 글들은 저자가 2005~2010년까지 홈페이지 jeonggok.org에 통방산주라는 이름으로 올렸던 것들이다.

저자는 1979년 천장암에서 경허 스님의 참선곡을 보고 또 한번 발심했다.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구절에 마음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했다. 그 길로 제방선원에서 안거했다.

저자는 “조금이라도 마음이 흐트러지면 헛것과

사계절 그린 글 · 사진 잔잔한 감동
‘마음 어떻게 생겼나’ 30여년 참구
4월 22일 통방산서 출판기념회

환청이 들렸다. 참선 수행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차리는 것’이다. 팔만대장경도 한 구절로 말하면 ‘정신차려’라는 메시지이다”라고 말했다.

저자는 ‘이뭣꼬’ 화두를 들고 제방의 선지식을 두루 만났다. 그러다 법경 법사를 만나 〈무문관〉 〈벽암록〉의 공안 점검을 끝냈다.

저자의 선기(禪機)는 비유와 설명에서 돋보인다. 그 한 예가 떡과 떡국이야기이다. 한해가 시작하는 설에 “떡국 드셨습니까?”라며 먹는 이유가 다 따로 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떡은 화합지물(和合之物)이란다.

“떡이 한 덩어리가 되려면 곡식의 껍질을 벗기고 빻아서 물과 섞어 반죽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 덩이가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이 아무리 좋아도 주변과 화합되지 못하면 큰일을 못합니다.”

‘나’라는 알갱이가 모두 부숴져 온전히 나를 버리고 하나가 돼야한다는 설명이다.

저자는 2003년부터 통방산 자락 정곡사에서 머물고 있다. 통방산(通方山)은 세계만방으로 통하는 곳이고, 통방산의 절경 가운데 하나인 벽계구곡(碧溪九曲)은 황벽 선사와 인연이 깊은 곳일 것이라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저자가 정곡(正谷)이라 아호를 정한 것도 산의 기상과 골짜기의 포근함을 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저자가 인하대에서 법문할 때였다. 팔정도에 관한 법문을 듣던 한 학생이 “바른 것(正)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저자가 답했다. “마음을 한마음으로 만들어 쉬는 것입니다.”

저자는 “정(正)을 파자해보면 하나[一]+그치다[(止]이다. 이것에 골짜기는 모든 것을 품는다는 생각에 아호를 정곡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저자는 통방산에 머물며 좌선하는 시간 외에는 산곳곳을 포행했다. 그곳의 모습을 담았고, 그 모습을 보고 떠오른 단상을 조심스레 글로 적었다. 어느 날, 그것들이 사이버공간에 소개됐다. 저자는 무심코 올린 글에 사람들은 삶의 위안과 희망을 느끼는 모습을 보았다.

“매일 아침 내 글 · 사진을 보며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이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저자는 “자연을 옮기고 노래한 글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자연은 그대로가 완성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이 또한 하화중생(下化衆生)의 방편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저자가 책 제목을 〈날 사랑하여요〉라고 이름붙인 것도 자살이 흔해진 우리 사회에서 저마다 조금만 더 자신을 사랑하자는 안타까움에서였다.

책은 모두 다섯 묶음으로 나눠졌다. 그 묶음은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과 사계의 변화를 따른 것들이다.

책은 ‘날 바라보기’로 시작해 통방산의 사계를 전하고 있다. 저자는 욕심으로 똘똘 뭉친 문명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죽비를 내리친다. 솜털 같은, 조곤조곤한 말 죽비는 가랑비처럼 보는 이의 마음을 감로수로 적신다. 저자는 책을 통해 자연에게 마음 놓고 받을 것을 강조한다.

책을 펼치면 통방산 대자연을 흠모하는 저자를 만날 수 있다. 저자를 통해 어느새 통방산을 뛰어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

한편, 저자의 출판기념회 및 통방산 야생화축제가 4월 22일 정곡사에서 열린다. 행사에서는 ‘정신차려’ ‘오늘오늘오늘’ ‘알아차림’ 등 저자의 글 다섯편이 서수일 불교음악 작곡가에 의해 노래로 선보일 예정이다.

글=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종립학교서 만든 교과서

불교적 관점에서 편찬된 최초의 중 · 고교 철학 교과서가 출간됐다.

불교교육연합회(회장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최근 중 · 고등학교용 〈생활과 철학〉 교과서를 발간했다.

책은 동국대 불교학과 김용표 교수(불교교육연합회 수석부회장)를 교재편찬위원장을, 박영동 동국대부속여고 교법사가 교과서개발팀장을 맡아 현직 종립학교 교법사 8명(박영동 김홍섭 양동효 권진영 김형중 유동호 이욱태 이학주)이 집필에 참여했다.

책은 이들이 2009년부터 2년 여에 걸쳐 작업한 결과물이다. 책은 최유진 교수(경남대), 김종욱 교수(동국대) 등 불교학 · 철학 교수들의 감수를 거쳐 1월 27일 서울시 교육감 인정도서로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책은 기존 교과서가 서양철학과 신학에 바탕을 둔 것과 달리 동서양 철학 사상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책은 중 · 고등 교재별로 각각 8개의 대단원과 32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돼 있다. 매 단원마다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생각열기 ▷생각넓히기 ▷심화자료실 ▷중요한 철학용어 해설 등 동서양 철학자를 소개하고 있다.



생활 속의 철학, 철학 논술교실 코너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글을 읽고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편집했다. 또, 대입 논술에 대비해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재편찬위원장 김용표 교수는 “책은 불교적 관점에서 편찬된 최초의 중 · 고교 철학교과서이면서 새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종립학교 최초의 철학교과서”라며 “불교를 건학이념으로 하는 종립학교의 효율적인 종교교육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논술교육자료로 널리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책은 3월부터 전국 학교들이 교양선택 과목의 교과서로 활용할 수 있으며, 대형서점 등을 통해 일반인의 구입도 가능하다.

생활과 철학(중 · 고교편) | 불교교육연합회 교재편찬위원회 | 조계종출판사 | 각5500원

“경전과 헌법 비슷해”

법학자가 푼 반야심경

신보성 박사(前 수원대 교수)는 헌법학자이다. 그가 〈반야심경〉을 풀이 한 책을 펴내 눈길을 끈다.

책 〈반야심경과 헌법〉의 머리에서 저자는 “이 책은 정의와 헌법적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반야심경을 풀어본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저자는 “사업을 하며 정가를 기웃거리는 등 욕심에 눈이 멀어 소질도 능력도 없는 일에 인생의 소중한 한때를 낭비했다”고 술회한다.

그런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은 뇌졸증 때문이었다. 뇌졸중으로 죽음의 문턱을 들락거리면서 그는 죽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했다. 아내의 부축을 받으며 불편한 다리를 끌고 사찰을 찾은 그는 〈반야심경〉을 독송하며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

“〈반야심경〉을 독송했습니다. 가슴에 쌓인 번뇌의 덩어리가 녹아나는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그것을 인연으로 부처님 법을 가까이 하게 됐다. 사찰의 불교대학에서 불교문학을 강의하게 됐다. 문학과 불교경전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자연스레 〈반야심경〉과 직 · 간접적으로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세속의 법률이야기를 언급했다.



책은 저자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난 것들을 수필 형식을 빌어 정리한 것들이다.

〈반야심경〉의 공(空)은 실체가 없다. 물리학자에게는 물리학으로 설명이 되고, 법학자에게는 법학으로 이해된다는 것이 저자의 말이다.

저자는 대승불교에서 이상으로 추구하는 보살적 인간상은 헌법의 자주적 인간상과 유사하다고 말한다. 또, 헌법은 중도와 일맥상통 하는 면이 있다고 말한다.

책은 합법적으로 불법을 설명하고 있다.

반야심경과 헌법 | 신보성 글 | 여행마인드 | 1만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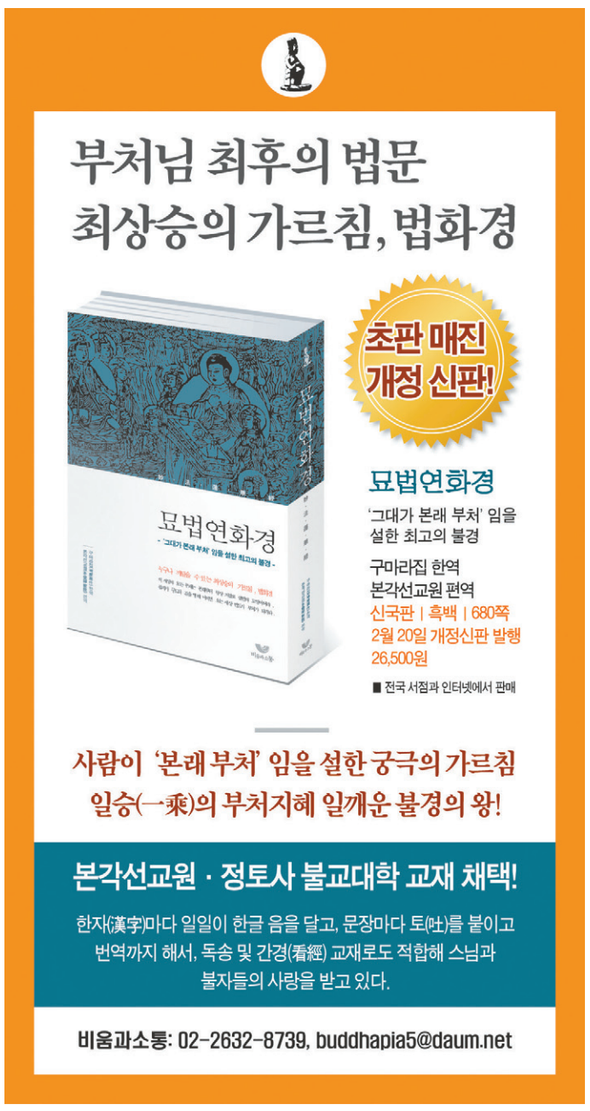
2/15~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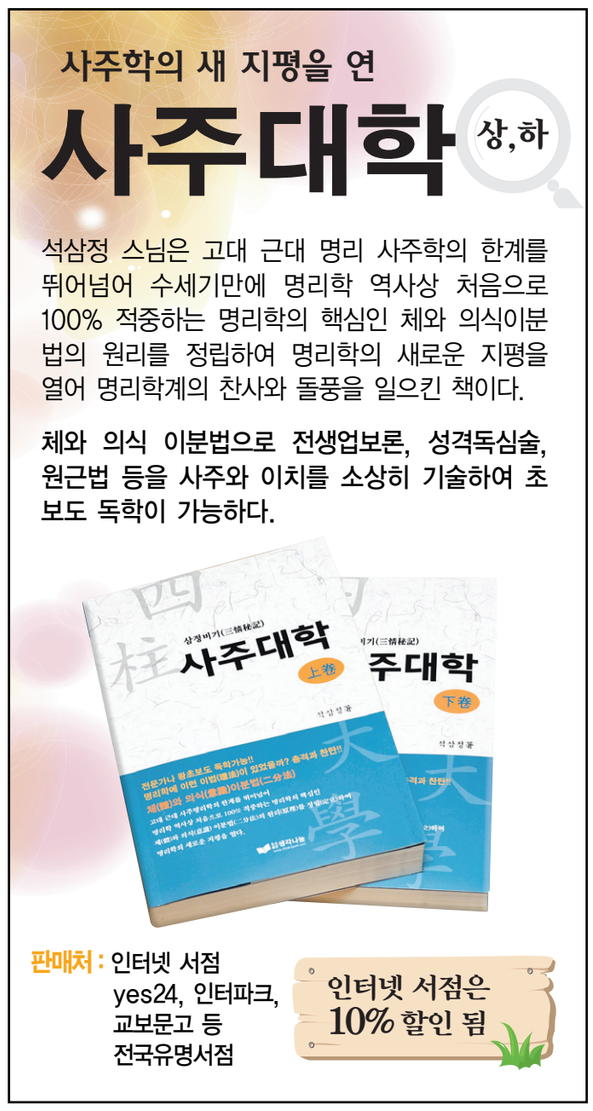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2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
3	방황해도 괜찮아	법륜	지식채널
4	마음수업	이광정	휴
5	무문관 참구	장휘옥,김사업	민족사
6	인생을 낭비한 죄	박원자	뜰
7	깨달음	법륜	정토
8	법정 나를 물들이다	변택주	불광출판사
9	젊은 날의 깨달음	혜민	클리어마인드
10	불교와 과학 진리를 논하다	사이토 나루야 외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한평생 선학에의 열정이 피운 꽃

禪學

동국대 선학과 현각 스님 퇴임 기념 전집 출간

'逐鹿者不顧兎(축록자불고토)'

〈사기〉 회남자 설림훈 편의 글로 '사슴을 쫓는 자는 토끼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이다.

동국대 선학과 교수로 2월 정년퇴임한 현각 스님의 연구실 책상에는 이 글이 항상 붙어 있다. 글처럼 스님은 30여 년을 조계종립 동국대 교수로, 평생을 선학자로 학문의 외길을 걸어왔다.

〈최현각 선학전집 편찬위원회〉는 2월 20일 서울 소피텔에서 〈최현각 선학전집〉 봉정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월서 스님과 前 법주사 주지 지명 스님 등 금오문도회 스님, 수도암 선원장 원인 스님, 동국대 불교대학장 계환 스님, 김용표·고영섭 교수 등 동국대 교직원과 현각 스님의 제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원로의원 월서 스님은 축사에서 "현각 스님의 은사 故 혜정 스님(1933~2011)은 '현각 스님은 책을 손에 쥐면 놓을 줄을 모른다'고 자주 말했다"며 "현각 스님은 선학의 체계 확립을 통해 금오 스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선양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현각 스님의 학문 열정은 정년퇴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장 계환 스님은 축사를 통해 "누구나 스승이 될 수 있지만 아무나 스승 노릇을 할 수는 없다. 현각 스님은 시류에 영합되기를 거부해온 학자이다"라고 말했다.

스님은 "〈선학전집〉 10권 발간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봄에 꽃을 피우듯 엄격한 자기성찰이 있어 가능했다"며 "〈선학전집〉에는 현각 스님의 학문에의 진지한 열정, 확고한 출가정신이 오롯이 살아있다"고 말했다.

현각 스님은 인사말에서 "학생으로 9년, 교단에서 30년을 남산 기슭에서 지내왔다. 〈선학전집〉은 내 정직과 학문의 결정체이다. 지도를 잘못 그리면 뒷사람들이 길 찾는데 혼돈을 겪는다는 생각으로 정련에 정련을 거듭한 결과물이다"라고 설명했다.

편찬위원회는 "현각 스님은 후학 양성을 일생의 원력으로 삼고, 선학 체계 정립과 학문적 깊이를 더하는 작업을 유일한 과업으로 삼았다. 이 같은 스님의 철저한 사명감과 학문을 향한 추상 같은 태도가 있었기에 〈선학전집〉을 엮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각 스님은 종비생 최초로 동국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해 학문에 매진해 왔다. 불교와 선학 발전과 관련한 교내의 보직 등을 거치며 동국대의 건학이념 구현에 힘써왔다. 정각원장 재임시에는 교내에 3000등과 봉축장엄물을 제작·설치했고, 〈정각원보〉를 창간해 동국대 구성원들에게 정법을 전파했다. 스님은 불교지도자 양성기관인 동국대 불교대학원 초대 교학부장을 맡아서는 운영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스님은 2000년 한국선학회 초대회장에 취임한 이래, 한국선학의 학문적 토대 확립을 위해 기여했다. 현각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마니사에는 '마니불교 아카데미'를 만들어 〈금강경〉 등 불교경전을 비롯해 〈노자〉 〈장자〉 등 동양고전을 불교적 시각에서 강의해왔다.

〈선학전집〉은 선학연구에 매진하고 강의와 학회 활동을 통해 축적된 현각 스님의 학문적 성과들을 집대성한 것이다.

전집은 〈선학의 이해〉 〈선어록 산책〉 〈선문선답〉 〈선문보장록〉 〈선 사상론〉 〈선 수행론〉 〈한국선론〉 〈벽암록의 세계〉 〈한국을 빛낸 선사들〉 〈선심으로 보는 세상〉 등 11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선학의 이해〉 〈선어록 산책〉 〈선문선답〉 〈선문보장록〉 〈벽암록의 세계〉 〈한국을 빛낸 선사들〉은 스님이 기 출간한 단행본을 수정·보완해 재출간한 것이다. 〈선 사상론〉 〈선 수행론〉 〈한국선론〉은 스님이 학계에 발표해 온 수십 여 편의 논문을 엮어 주제별로 묶어 단행본으로 편집한 것들이다. 〈신심으로 보는 세상〉은 스님이 일간지와 교계 신문 등 다수의 매체에 기고한 칼럼을 시기별로 정리해 책으로 묶은 것이다.



2월 20일 서울 소피텔에서 열린 선학전집 봉정법회에서 현각 스님(왼쪽)이 제자대표 청원 스님(영동 영국사 주지)으로부터 전집을 전달받고 있다.



현각 스님 평생의 학문성과를 10권으로 갈무리한 〈최현각 선학전집〉

"길손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고, 대해를 항해하는 항해사도 정박하고자 하는 항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문의 세계에는 무궁함이 있을 뿐이다. 누군가가 여기가 연구의 귀결점이라고 단정한다면 스스로 사유세계의 한계점을 드러낸 것일 뿐이다. 혹자는 〈최현각 선학전집〉 10권이라는 말에 기염을 토하기도 한다.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자신의 연구업적을 칭송하는 말에 '백사장에 바늘 하나가 떨어진 것과 같다'고 겸손해 했다.

어느 계곡의 작은 옹달샘에서 시작된 물이 넘실대는 대해를 이루듯, 본 전집이 선학이 학(學)으로서 자리 잡는데 옹달샘의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일미진중함시방(一微塵中含十方)이라는 말이 위안이 된다. 작은 티끌 가운데 시방세계가 들어있다고 했으니, 이 전집도 작은 티끌이 되어 정신세계에 스펙트럼으로 작용하길 바란다." -최현각

최현각선학전집 | 최현각 저 | 최현각 선학전집 편찬위원회 엮음 | 동국대 출판부 | 全25만원(각권 2만5000원)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가장 아름다운 남사예담촌 보세요

이호신 화백의 멋고을 그림이야기



진정한 나를 찾다
남사예담촌
뜨란
1만8000원

"신은 촌락을 만들었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이는 도시를 떠나고 싶어하는 이들이 주로 인용하는 경구이다. 갈수록 피폐해지는 도시생활로 심신이 옥조일 때마다 자연을 향한 그리움은 더욱 깊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도시인에게 따뜻한 위로를 안겨줄 책, 이호신 화백의 마을 그림책 〈남사예담촌〉이다.

저자는 십수년간 전국을 순례하며 한국의 아름다운 마을 풍경을 화폭에 담아왔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상생 공간이자 이웃이 서로 유대를 맺고 살아가는 터전인 마을을 오늘의 관점에서 새로운 표현양식을 통해 조명해 온 것이다. 최근 저자는 산청 단성면의 남사예담촌으로 작업실을 옮겼다. 그리고 그곳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엮어 책으로 냈다.

남사예담촌은 700여 년 전 고려말 형성된 마을로, 2011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제1호'로 선정된 곳이다.



책에는 남사예담촌의 생동감 넘치는 모습이 생활산수화 101점으로 화현해있다.

조동섭 기자

불교학자 유전학자를 만나다

30년 지기의 담론



불교와과학, 진리를 논하다
사이토 나루야 · 사사키 시즈카 공저
이성동 · 박정원 공역
운주사
1만5000원

불교와 과학이 만나면?

통합과 융섭의 시대인 지금, 새롭다고 눈길을 끌기 보다 이제는 진부해져 버린 주제일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와 과학의 만남이 눈길을 끄는 것은 형이상과 형이하의 대척점에 서있는 두 분야의 대화는 시도만으로도 경이롭기 때문이다. 매번 '불교는 과학적인 종교'라거나 '과학으로 불교 교리가 설명된다'는 뻔한 결론이 있음에도 우리가 이 책에 눈길을 주는 이유는 혹시나 있을지 모를 서로 다른 이종(異種)의 교배에서 나올 변태(變態)를 목격하고 싶기 때문은 아닐까.

책 〈불교와 과학, 진리를 논하다〉의 저자 사이토 나루야 교수는 도쿄대 생물학과 겸임교수 등을 역임한 유전학자이다. 공저자 사사키 시즈카 교수는 日 교토대·美 버클리대에서 유학하고 日 하나조노대 교수로 있는 불교학자이다.

두 저자는 고교시절부터 알고 지내온 30년 경력의 소위 '절친' 사이이다. 저자들은 자신들의 대화를 〈밀린다왕문경〉에 빗대어 설명한다.

〈밀린다왕문경〉에서 그리스식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세상을 살아가던 메난드로스 왕과 부처의 가르침에 따라 살가는 나가세나 장로는 서로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지만 서로의 견해를 존중하면서도 불꽃튀는 논쟁을 벌인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참모습'. 〈밀린다왕문경〉은 이들의 토론을 기록한 책이다.

사사키 교수는 "친구 사이토는 유전학자 임에도 〈밀린다왕문경〉을 즐겨 읽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책은 〈밀린다왕문경〉의 애독자이자 '서로 다른 세계관의 접촉'을 흥미있어 하는 두 학자가 각자의 전문분야에 입각해 의견을 교환할 기회였다"고 말한다.

책은 불교에 조예가 깊은 과학자(사이토 교수)와 과학을 존모하는 불교학자(사사키 교수)가 종교와 과학의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을 명확히 밝혀내고자 2년여에 걸쳐 고심한 결과물이다.

저자들은 "'과학은 발전하고 종교는 쇠퇴한다'는 지난 세기의 통념이 고루하게 느껴지는 시대. 그렇다고 이제부터는 종교부흥의 시대이다라고 목청을 돋울 만큼 순진하시도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며 '진정한 합리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사물에 대한 과학적인 시각'과 '일평생 유지되는 생·사에 대한 일관된 철학'이 양립 가능한 토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책은 두 교수가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진정한 합리성'을 목적으로 쓰여졌다.

1부에는 두 저자가 상의해 여섯 가지 담론의 테마를 정한 후 사이토 나루야가 '생물학자의 관점'에서, 사사키 시즈카가 '불교학자의 관점'에서 각 테마를 고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섯가지 테마는 ▷물질과 정신 ▷의식과 무의식 ▷생과 사 ▷과학과 종교의 절대적 존재 ▷과학과 종교의 공통점 ▷과학과 종교의 미래이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서로의 논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원고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쓴 글은 읽지 않기로 했다는 점이다. 1부가 완성돼갈 때쯤 두 저자는 만나서 대담을 했다.

종교와 과학의 공통·차이점 찾기
〈밀린다왕문경〉 비교될 만남
물질과 정신·생과 사 등
여섯가지 테마별 견해 정리

그리고 그것을 제2부 일곱 번째 담론이라는 타이틀로 담았다.

담론에서 사이토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종교 집단은 사회의 일반도덕에 편승해 이를 장려하는 형태로 그 명맥을 유지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나 쉽게 받아들여지는 윤리관을 신도들에게 주입하는 종교는 번창하게 됩니다."

이를 사사키 교수는 "무던하게 착한 사람을 만들어 내는 시스템이다"라고 정리한다. 그리고 말을 잇는다.

"이제부터 종교 관계자들은 믿음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믿지 않을 자유의 중요성도 인식해야 할 겁니다."

책장을 넘기면 두 학자의 대론과 대담을 통해 이 세계와 인간의 삶을 바라보는 과학과 불교의 입장을 통찰하고,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조동섭 기자

제1회 한국불교 홍익범패단 학인 모집 (서울범패)

소승은 한국불교 범음범패 및 불교무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10여년을 연구하고 공부해 온 염불승으로서 한국불교 홍익범패단 창단을 꿈꾸고 있습니다. 뜻있는 분들께서는 직접 오셔서 일차로 청강하시고 뜻을 함께 하실분은 연락바랍니다.

강 의 내 용

1. 기초 : 삼귀의, 사홍서원, 거불, 도량석, 종송, 조석예불, 사시불공, 요령, 목탁, 태징,북 등 사물 다루는 법.
2. 중급 : 시련, 대령, 관욕, 신중청, 상용영반, 관음시식, 고혼소, 봉청(짓소리), 39위, 복청게, 고혼청, 헌좌게, 진령게, 칠언사구성, 가영, 향화청, 고아일심귀명정례, 긴소리, 짧은소리
   범패 – 요잡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도량게, 다게, 법고춤, 호적
3. 상급 : 시다림, 다비, 일반장례, 산신제, 용왕제, 방생, 생전예수재, 수륙재, 종사이운, 괘불이운, 종사영반 화청, 공덕게

■ 개강일시 : 2012년 3월 27일(화요일) 오후2시 ~ 6시까지
■ 접수기간 : 수시모집
■ 회 비 : 월10만원, 6개월 50만원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 2장
■ 장 소 : 김해사암연합회 불교문화원 3층 법당
■ 주 소 : 김해시 홍동 7-5번지
■ 전 화 : 055)322-0088 / 055)332-1675
■ 강 주 : 민지효 010-4466-3575

특강 영가 찾는 법

영가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무료공개강좌 : 3월 2일(금) 14:00
개 강 : 3월 8일(목)

- 조상(귀신)이 발동한 것을 아는 법 : 어느 조상에게 빌어야 하나? 대세운에서도 발동한 것을 찾는 법
- 기도를 하더라도 묶여 있거나 장애가 있는 곳에 가서 풀어야 된다.
- 본 법을 알면 무속인의 주장신도 알수가 있다.
- 무속인 보다도 더 정확하게 뽑아낸다.
- 결혼하면 양가집 조상이 부딪히는 가정
- 결혼이 안되거나 결혼을 해도 풍파가 많은 가정

속성반 : 대상 – 법당, 포교원, 철학관 운영자

명리, 육효 초보반 모집

백 암 역 리 원
02) 597-1101. 011-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 (우리은행)옆



양자물리학의 거장 킨슬로우 박사가 창안한
〈즉각치유법〉과 氣치유법 비교 강의

당신도 치유발전기(a healing dynamo)가 될 수 있습니다 !!!

육체적·감성적 고통(pain)을 줄이며 치유를 촉진하는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치유법입니다
파트너와 시술자 모두에게 유익한 치유법입니다
자가치유에 매우 적합한 치유법입니다
배우기가 쉽고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가 저렴합니다

■ 교육기간 : 1개월 (주 1회×4주)
■ 개 강 : 2012. 3. 10(토) 오후 2시
■ 모 집 반 : 토요일반, 일요일반, 평일반(주야)
■ 교육장소 : 부산직할시동래구명장동학산여고입구 영산무지개@상가202호 (세계자연치유학회부산지회)
■ 문 의 : 010-6521-7090 / 051-527-7090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사국에 불교 전적은 어떻게 유통됐을까?

인도 · 중국 등에서 수용 목판 인쇄

1. 불전의 유통

불교 전적은 크게 사장(四藏)으로 대표된다. 즉 붓다의 말씀(경전) 더미인 경장(經藏)과 붓다 상가의 규범 더미인 율장(律藏), 그리고 이들 경장과 율장의 해설서 더미인 논장(論藏) 및 이들 삼장의 주석서 더미인 교장(教藏)을 가리킨다. 인도 산스크리트어의 속어인 마가다어와 쁘라끄리띠어로 설해진 불법은 구전 암송돼 혼성 범어로 기록됐다. 이들 범본 불전은 다시 북방으로 전해져 한문 불전과 티베트 불전이 됐으며 남방으로 전해져 빨리어 불전이 됐다. 고구려와 백제 및 가야와 신라 사국은 인도와 중국을 통해 불교 전적을 수용했다.

고구려에는 전진에서 온 순도(順道) 법사의 초전(372) 이래 주로 한역 불전이 전해졌다. 백제에는 한역 불전뿐만 아니라 성왕 때 중인도의 상가나대율사(常伽那大律寺)로 유학을 갔다(526)가 돌아온(531) 겸익(謙益)이 인도의 배달다(倍達多) 삼장 등과 함께 가져온 아비담장(阿毘曇藏)과 범어 율본(律本) 72권 등의 불전도 전해졌다. 당시 담욱(曇旭)과 혜인(惠仁)은 한문으로 범어 율본에 의거해 36권의 율소(律疏)를 지었다. 백제 불교는 겸익과 담욱과 혜인의 율학과 현광의 법화학 및 혜현의 삼론학 관련 불교

신라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한국 고인쇄문화 높은 성취 보여줘

전적들이 주로 강론됐을 것으로 짐작된다. 가야에는 허황후의 오빠인 장유(長遊)법사의 이름만을 알 수 있을 뿐 어떠한 불전이 전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신라에는 아도(阿道) 법사와 묵호자(黑胡子) 법사의 전래 이래 진흥왕 26년(565)에는 입학승 명관(明觀)이 진나라 사신 유사(劉思)와 함께 '석씨경론(釋氏經論)' 1,700여 권을 가져왔다. 진흥왕 37년(575)에는 당나라로 유학 갔던 신라 최초의 국비유학생 안홍(安弘)이 서역의 세 삼장과 중국 승려 두 사람과 함께 돌아오면서 〈능가경〉과 〈승만경〉 및 불사리를 바쳤다. 또 북인도 오장국의 비마라진제(毘摩羅眞諦 · 44세), 농가타(農加他 · 46세), 마두라국의 불타승가(佛陀僧伽 · 46세) 등이 황룡사에 머물면서 밀교 계통의 경전인 〈전단향화성광묘녀경(栴檀香火星光妙女經)〉을 번역하자 신라승 담화(曇和)가 그것을 한문으로 받아 적었다. 뒤이어 선덕여왕 12년(643)에는 당나라에 유학 갔던 자장(慈藏)이 돌아오면서 장경 일부(4백여 상자)를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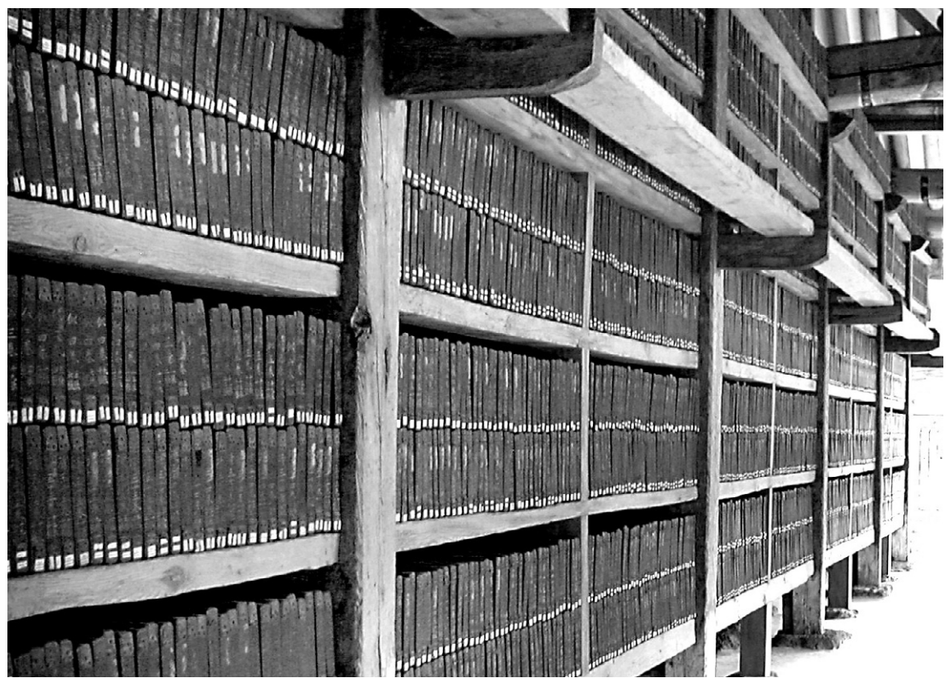
남북국시대의 남국인 통일신라 때에는 중국 전래 불전들에 기초해 불학을 연찬했다. 분황 원효(芬皇元曉; 617~676)의 〈금강삼매경론〉, 부석 의상(浮石義湘; 625~702)의 〈화엄일승법계도〉 등 〈한국불교전서〉 '신라시대편(3책)'에 수록된 저술들 대부분은 당시에 필사돼 읽히다가 8세기 이후 목판 인쇄술에 의해 판각돼 인간됐던 것들로 추정된다. 또 〈삼국유사〉 '탑상' 편 '전후소장사리' 조목의 기록처럼 통일신라 말에는 보요(普耀)선사가 오월국에서 두 차례나 대장경을 가져왔으며, 묵(默)화상이 후당으로부터 대장경을 가져왔다. 북국인 대발해(698~926) 황실 역시 8세기 초반에 불전이 전해지고 후반에 당나라 유학을 다녀온 정소(貞素) 등이 〈대승본생심지관경(大乘本生心地觀經)〉 등을 번역했다. 이처럼 고대 사국은 인도와 티베트 및 중앙아시아와 중국 등을 통해 들여온 불전을 한역하거나 한역된 불전을 수용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신행에 매진하고 교학을 연찬해 저술들을 유통시켰다. 고려에는 성종 10년(991)에 한언공(韓彦恭)이 송(宋)나라로부터 들여온 480질(帙) 5,047권의 개보판(開寶板) 한역 불전들이 널리 보급됐다. 이들 불전에 의해 신행(信行)과 연찬(研鑽)이 이루어졌고 성과물들은 목판에 의해 인쇄 출판돼 유통됐다.

2. 불전의 판각

중국의 제지술이 593년 고구려에 전래되면서 불교인들의 저술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한역 불전의 간행을 위해 진전된 목판 인쇄술은 7세기 경 중국에서 시작돼 740년경부터 동양과 서양으로 각각 전파됐다. 현존 기록상 목판 인쇄에 의한 가장 오랜 불전 인출은 신라 경덕왕 10년(751) 이전에 제작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 너비 8㎝, 길이 5m)으로 추정된다. 현존 세계최고의 목판 두루마리 인쇄물인 이 경전은 한 줄이 8자로 돼 있으며 1966년 경주 불국사 석가탑 제2층 탑신부의 사리함 속에서 발견됐다. 이 다라니경의 출간연대는 상한선을 700년대 초로, 하한선을 석가탑의 건립연대인 751년 경으로 보고 있다. 그 근거는 이 경문 속에 당(唐)나라 측천무후(則天武后) 집권기(15년)에만 통용된 뒤 자취를 감춘 신제자(新制字) 4글자(注[證] · 澍[地] · 全[授] · 冓[初])가 기록돼 있기 때문이다.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글자 크기와 정밀도(精密度)에서 빼어난 경전이다. 뿐만 아니라 역사상으로도 종래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백만탑다라니경(百萬塔陀羅尼經 · 770년 간행)〉보다 20여년 앞선 것이다. 또 중국 돈황 출토의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 · 868년 간행)〉은 글자를 뒤집어 새긴 목판이어서 장시간 보존할 수 있으며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 한 면에 모든 글자를 새기기 때문에 한 문헌밖에 찍어낼 수 없고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위의 두 인경보다 앞서 이루어졌고 지질(紙質)면이나 목판 인쇄에 의한 인경 형태면에서 한국 고인쇄문화(古印刷文化)의 높은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글자체를 한 자씩 새긴 다음 그것을 모아 판을 짜는 인쇄술은 고려시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목판 인쇄술은 대장경 조성을 계기로 고려 전역으로 확산됐다.

초조본 〈고려대장경〉 조성은 고려 현종 2년(1011)에 대구 부인사(符仁寺)에 설치한 대장도감(大藏都監)에서 전담했다. 현종 3~4년(1012~1013)경에 거란이 쳐들어오자 조정에서는 진행해 오던 대장경 판



고려 조정이 국민을 단결시키고 적병을 물리치기 위한 발원으로 조성한 해인사 팔만대장경

사국시대 불교전적 강독 주체는
스님들과 거사 등 불교 지식인

각사업을 문명국으로서의 자존심과 우월감을 이웃나라에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 동시에 붓다의 힘[佛力]에 의지해 국민을 단결시키고 적병을 물리치기 위한 발원으로 이어가면서 대장경 조성은 급진전 됐다. 그렇게 현종 대에 시작된 사업은 덕종(德宗)대로 이어졌으며 문종(文宗)에 이르러 더욱 활발히 진행돼 선종(宣宗) 4년(1087)에 판각이 완료됐다. 대장경의 조성에 이어 의천(義天, 1055~1101)은 대장경에서 빠진 소초(疏鈔)류를 보완하기 위해 〈고려교장〉 편찬사업(1096)에 착수해 1,010부 4,740권의 목판을 판각했다. 그러나 이 〈고려교장〉은 초조본 〈고려대장경〉과 함께 유라시아를 통일하고 고려로 쳐들어온 몽골의 별동부대에 의해 대부분이 불타 버렸다.

이후 고려 조정은 붓다의 힘에 의지해 국민을 단결시키고 몽골을 물리치기 위해 강화 용장사지(龍藏寺址)에 대장도감을 설치(1236)하고 강화에서 재조본 〈고려대장경〉의 판각을 시작했다. 이어 남해 및 진주 등의 분사도감에서 경판 조성을 지원해 16년만인 1251년에 1,539부 6,805권의 대장경 정장(正藏)을 완판하고 부장(副藏)을 덧붙여 강화의 선원사지(禪源寺址)에 보존했다. 이들 판목의 판각 주체는 승려를 비롯한 당대의 지식인이었지만 정작 각수들은 대부분 서민들이었다. 그런데 이 경판은 왜구의 침탈을 피해 조선 초에 해인사(海印寺)로 옮겨졌으며 현재 1,749종 6,571권 154,296판이 장경각에 보존돼 있다. 여기에서 판수(板數)는 대체적으로 한 판의 양면에 새겨진 숫자를 가리키지만 더러는 한 판의 한 면에만 새겨진 판도 있다. 대장경 판목 총계가 81,137매(枚)의 양면인 162,274매가 되지 않고 154,296판이 되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 고려 후기 이후에는 이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 판목에 의해 많은 불전이 인출 간행됐고 번역 유통됐다.

3. 강독의 주체

고구려와 백제 및 가야와 신라에 한역 불전뿐만 아니라 범어 불전들이 유통되면서 불교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졌다. 당시의 지식인들도 불교전적[佛典]에 새롭게 눈을 뜨기 시작했다. 이들 불교전적은 주로 한자로 된 저술들이었다. 당시의 서민들은 한자를 사용했던 귀족들과 달리 주로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던 표기법인 이두(吏讀), 온전한 한국어를 적기 위해 한자를 활용한 표기법인 향찰(鄕札), 그리고 뾰족한 도구를 사용해 한자 옆에 점(點)과 선(線)을 새겨 넣어 발음이나 해석을 알려주는 양식으로 한문 해석을 돕기 위해 구절 사이에 한국어로 토를 다는 각필(角筆), 한문의 단어나 구절 사이에 붙이는 한국어 토씨를 표시할 때 사용됐던 문자 구결(口訣) 등을 통해 자신의 의사표시를 해왔다. 때문에 한자나 한자의 부수를 빌어 표기하는 이두와 향찰 및 각필과 구결 등은 당시 사람들의 언어생활을 엿볼 수 있는 주요한 자료가 된다.

고중세 이래 한자는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과 베트남에서도 사용해왔다. 때문에 고중세에 동아시아인들이 공유해온 한자(漢字)를 중국말이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더욱이 중국은 문화혁명(1966~1976) 이후 문자개량을 통해 간체자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번체자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한국과 일본 및 대만 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자는 동아시아에서 널리 유통된 고대 한어(漢語)일 뿐이다. 고대 이래 우리 민족은 이두 · 향찰 · 각필 · 구결 등 한자 차용 표기법을 매개해 언어생활을 했다. 하지만 사국을 통일한 신라로부터 남북국 시대의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 초에 이르기까지 이두와 향찰 및 각필 구결 등의 한자 차용 표기법을 사용해 언어생활을 했다. 때문에 당시에는 번역(飜譯)이라는 의식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오히려 우리에게 '문화의 옮김'으로서 '번역'이란 의식이 본격화된 것은 최행귀(崔行歸)가 한역한 균여의 향가를 혁련정(赫連挺)이 〈균여전〉에 수록하면서 본격화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국시대에 불교 전적의 강독의 주체는 대부분이 불교 지식인인 승려들과 재가 거사들이었다. 고구려의 승랑과 보덕과 의연, 백제의 겸익과 현광과 혜현, 가야의 장유, 신라의 원광과 안함과 자장 등의 저술은 전해지지 않지만 인용 저술이나 관련 사료들을 통해 그들은 한문으로 학술활동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불교전서〉 신라시대편에 실려 있는 전적들에 근거해 보면 통일신라의 불학자들은 당에서 활동한 원측과 신방을 필두로 해서 원효와 의상 및 경흥과 태현 등 수많은 불학자들 모두가 한문(漢文)으로

원측 · 원효 · 의상 · 무상은
신라문명 르네상스시대 열어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다. 그들은 중국과 인도에서 들어온 사장(四藏)들을 접하면서 불교적 세계관 위에서 불전들을 강독하고 저술했다. 당시 사람들은 한문을 기반으로 하면서 그 뜻과 음을 이두와 향찰과 각필과 구결 등을 원용해 불전을 이해했다.

반면 불교 지식인들은 정통 한문을 곧바로 활용해 강독과 저술을 했다. 때문에 불교 전적들은 대부분 정통 한문에 기초해 이루어졌다. 이를테면 분황 원효의 〈금강삼매경론〉과 〈대승기신론소〉와 〈대승기신론별기〉와 〈이장의〉 등은 경전과 논서에 대한 즉자적 주석 내지 대자적 창작물이다. 일연이 원효를 '분황사의 진나(陳那 · 디그나가)보살의 후신'이라고 한 것은 그가 인도의 불교논리학자인 진나와 같은 탁월한 논리학자임을 거론한 것이다. 원효는 87종 180여권의 저술에서 화회(和會)의 매개항을 통해 일심(一心)의 철학을 구축했고 무애(無碍)의 실천을 구현했다. 사국을 통일한 통일신라는 불교 공인 100여년 만에 불교 전적을 온전히 소화해 자기화했다. 그 결과 원측(613~696)은 유식(唯識), 원효(617~686)는 기신(起信), 의상(義湘; 625~702)은 화엄(華嚴), 무상(無相; 684~762)은 선법(禪法)에 일가를 이루었다. 이들 네 사람은 동서아시아의 지평 위에서 통일신라문명의 르네상스시대를 열었다.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정확도 효과성 제일

아래 각 활용서 및 CD프로그램에는 작사귀 / 병귀 / 부정빌미 / 산소탈 및 해소방법을 정확하고 효과 크게 적시함

◆ 육임 학습서 ◆
· 효사육임강론 2011개정증보 제8판본 상(학습용) · 하(임상용) 권 45만원
· 효사육임사주감정법 2011개정 제2판본 1권(기존사주초월) 5만원
· 효사육임요지 2011최신판 1권 (간추린 육임 형이상법) 5만원

◆ 육임 활용서 ◆
· 도사에게 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제6판본 1권 좌정용 3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3판본 순별6권 휴대용 3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좌정용 2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휴대용 25만원
· 오행수법제례의식집 2011개정 제5판본 1권 5만원
· 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 제3판정련본 1권 5만원
· 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15만원

◆ 육임 및 각 오행술 분개 CD프로그램 ◆
· 효사활인천역집2011완결최종판 정가350만원 종합CD프로그램(무인증장착) 120만원
· 효사육임산책 2011최신판 순별 전6권 수록 90만원
· 효사래정비법 혁신판 수정보완본 월장별 전12권 수록 (대계전서) 70만원
· 도사에게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수록 20만원

· 효사일상생활감정법 2011정련 제5판본 1권수록 20만원
· 효사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정련 제3판본 1권수록 30만원
· 효사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수록 30만원
· 매화역수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월영도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성명학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정통부적보감 2011정련판 수록 5만원
· 토정비결수록 5만원
· 꿈해몽 5만원

◆ 기 타 ◆
· 효사도정기 2011최신판 5만원
· 불가법요집 2011최신판 5만원

◆ 본사 직접판매 고가 육임활용서 및 활용 CD프로그램 목록 ◆
· 고귀명수 통1권 / 순별6권, B4 / A4, 미색모조 / 백색모조 중 선택 정가350만원
· 육임복변집 좌정용 전6권 정가250만원
· 육임산책 휴대용 전6권 정가250만원
· 효사비결 CD 프로그램 육임일생사/당면판단사완성 (각띠별 확정) 정가650만원
· 군자수첩 육임정수모음 · 저렴한 가격대 정가103만원

[주문전화] 02)738-8680 / 070-7514-8680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301-778137/ 농 협 301-0071-8027-01/ 육임나라㈜
www.taotemple.net / 입금 후 다음날 수취가능
육임컨텐츠개발전문 - 육임나라 (주)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특강안내

수정기공 Soojung Touch Therapy
대한민국 인증대상(기공부문)
신지식 서비스기업 대상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강 의 : 매월 첫주 시작 4회 완성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모집인원 : 매회 8명이내
연 락 처 : 010-3463-7806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권력자와 결탁하여 서민들을 업신여기는 일을 하지 말라. 스스로 마음을 단정히 하여 부지런히 노력하고 마음에 좋지 않은 뜻을 품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지 말라. 모든 것에 있어서 항상 만족한 줄 알라. 지나친 부는 탐내지 말라

– 불유교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초혼 재혼 인연찾기

불자 독신 남녀 , 결혼, 친구
연인 인연 지어드립니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상담 환영
원갑사 인연찾기
02)365-1345
010-9114-4345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49재 천도재 전문

사찰행사, 각종불공, 산신재
점안, 바라무, 나비무,
회심곡, 구병시식,
산사음악회
010-8676-6132

행자(비구니) 구합니다

1. 신체조건에 관계없음
2. 학력 관계없음
3. 나이 관계없음
4. 불법을 구하고 수행정진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011-858-0306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연말정산 발급 사찰로 등록

사암, 신행단체
신규 등록 접수
단체명은 한학학원(사)로
등록됨
010-3310-0004
도평 스님

동영상 기문성명학

평생운을 볼 수 있는 한글성명학
용신, 실전사주. 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누구나쉽게단기간에배울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적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정가 25000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범 송

영남범음범패

학인수시모집
사다라니바라. 천수바라.
나비무 (2개월 완성)
* 천도재 해드립니다.
010-9370-4043
경북 경산 금박산 불교 교육원

문하생 모집(청학동)



역학, 풍수에
관심있는 분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랍니다
(남녀 초보 환영)
02)422-5804

영통철학 1개월 완성

비급전수로 1개월 만에
▷ 바로 상담가능
▷ 방문지도 가능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석사)
정광 합장
010-2586-7938

전통불교의식 무료수강

비구, 비구니스님 모집
출가행자 3명 모집
스님 달마 저렴하게 드립니다.
임진년 윤달 묘지 탈봉 회향 문의바람.
055)323-3569
010-2553-8827

불사用 달마도 보급

불사하시는 스님들을 위하여
청암 친필 달마도를 저렴하게
그려 드립니다.
규격 : 40cm*60cm
부산 051)202-8770
010-2953-8770

극락사 사찰 운영하실 분 구합니다

(비구니 스님이나 보살님)
노스님 시봉하실분
전북 김제 극락사 납골공원
010-4427-2256

상 담 안 내

여러분의 영적세계는
편안하십니까?
신통력으로 운명 예견
고민해결
전화상담 가능
대구은행 : 087-13-035968
010-2125-4684
(사주팔자)

비구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거제도)
010-5579-040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남양주 마석)
010-8390-848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남양주, 60세 전후)
011-770-5313

삼혼칠백기도

• 삼혼칠백은 귀신이 아니며 모든 유정무정의 흥망성쇠는 삼혼칠백의 작용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 기도비법을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 9호 부산영산재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과정 학인모집
◆ 불교의식(전통소리 안정사) ◆ 사물 ◆ 무형문화재 제9호 천수바라 작법무
특전 1. 본교(졸업) 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특전 2. 부산시 문화재 행사 출전 실무
사찰 행사전문 (부전스님, 사찰소개 문의, 사주명리 영가 찾는법)

◀ 전통불교조계종 입종안내 ▶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연수원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2563-5550

양 도 공 고

(법원 등기된 종무법인 임)
법인 불교단체양도
법인 종단 양도
011-412-8040 법광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60세 이상 가능)
010-3746-8887

비구니 기도스님

(서울 도심 포교당)
02)733-5670

지리산 깊숙히 자리한 암자에 스님과 함께 수행할 나이 40~60세 보살님은 연락바랍니다

055)883-3783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행자 (출가자) 모집

출가 하여 자기완성과 더불어 중생제도에 뜻이 있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무문총림 영평사

한국불교 원융교단 무문총림 . 중앙불교대학원
문의처 : 본산중앙협의회 서울 (02) 496-3951-3
총 림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44 영평사

수 강 생 모 집

역학은 5~10년을 해도 쉽게 되지 않으니
이제 효타비결로 새롭게 다시 시작해 보세요.
효타비결은 시작하면 반드시 끝을 보게 해 드리고
최고의 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1. 개인 지도반(1개월 완성)
2. 초급반(6개월 완성)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010-7121-9406

영적으로 상담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이 하고자 합니다.

(보살님, 비구니 스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역 주변
법당 약 55평 있습니다.
010-6267-3435
영산스님

도심포교의 원력있는 50대 미만 부전스님, 출가행자 모십니다.

011-9707-349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전남 장성군 동화면 황룡사)
010-9629-2707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 사하구, 40~60대
숙식제공)
051)263-9623
011-577-7600

3년 동안 숙성한 진짜 100% 효소 145가지의 약초가 들어간 백초 효소

백초효소는 불가에서 승려나 수도자들이 오랜기간 토굴에서 참선하면서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머리를 맑게 하기위해 먹던 약초입니다.

< 백초효소를 권장하고 싶은 사람 >
– 목과 어깨가 뻐근함, 일어설 때 느끼는 현기증, 만성피로, 두통, 불면증, 비만, 변비, 요통, 식욕감퇴, 불임, 생리불순 등 자율신경 실조를 인한 제반증상과 경년기 장애 등
– 각종 암, 당뇨병 등 만성병을 근본적으로 개선을 위한 자연요법을 실시할 경우 최고의 자연식품.

시중시세 절반 스님들에게
보급가액 1병 5만원
(2병이상 주문 시 택배비 무료)
* 보급처 신토불이 영농조합
cafe.daum.net/jijangsw.8899

卍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458-1번지 부처골 지장선원 ☎054) 383-8553 , 011-9585-4908
입금계좌 : 농협 703088-51-013554 예금주 : 지장선원

한국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경산,칠곡,구미,포항,서울동대문, 감포, 영천, 미국 뉴욕, 중국 칭다오, 호주 시드니

3월 동시모집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3/6(화) 저녁반, 3/8(목), 3/9(금) 오전반 , ■ 3/10(토), 3/11(일) 특별반 / 주1회 공부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기도의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문의 ☎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납골당과 행자원을 갖춘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천부경 6의 비밀-운명과학으로 풀어내는 〈新학문〉 신비의 예지법 강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동시개강)

스님, 종교인 특별반 운영
(10주 완성)
* 무한리필교육
– 완벽상담시까지

○ 운명, 운세, 인연법을 동시에 해결, 기존상담 모든 분야
○ 평생운, 해운(단기운), 년운(일년신수), 월운 까지
○ 택일 – 결혼, 이사, 행사, 제왕절개 수술일자, 묘이장
○ 궁합 – 운세궁합, 인연궁합, 운명궁합도 함께 풀이
○ 진로상담 – 공부, 학업, 전공, 대학, 직장, 취업상담법
○ 장사 & 사업 – 장소, 인연, 업종, 개업시기, 장사운
○ 체질 & 건강 – 5기체질론에 의한 발병원인, 식이요법까지
○ 개운상담법 – 어려움을 해결하여, 신비의 개운법
○ 개운기도법 – 개운의 비법, 개운행사법, 특수수련법 등

〈 특수 교육강좌 〉
◈ 천부경 성명학 & 작명법(10주)
◈ 천부경 타로카드 상담법(3주)
◈ 천부경 운세감정법(10주)
◈ 천부경 숫자풀이법 인연법(10주)
◈ 천부경 진로상담법(장사/사업)

타로카드 강좌
〈 DVD 발매 〉
– 30만원 (2장/set)
(타로카드 포함)
– 천부경 운명과학회
하나은행
〈629-910035-12505〉
– 각교육원, 카페신청

▣ 서울 • 부산교육원 (010)-9171-3001
▣ 대 전 교 육 원 (010)-6476-1021
▣ 대 구 교 육 원 (010)-6251-5776

천부경 6의 비밀 – ttp://cafe.daum.net/cheonbu6

2012년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4기 수강생 모집안내문

스님!!!
사주명리학을 배우십시오.

명리학은 점술류가 아니며 학문입니다. 사찰을 운영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들께만 무료로 6개월간에 특별한 비법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사주명리학을 완전히 터득하실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 2009년도 제1기 수강생은 전국에서 100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 2010년도 제2기 수강생은 전국에서 160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 2011년도 제3기 수강생은 전국에서 150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장소 : 제1장소 : 성지관음회 법당(매주 화요일 오후1시~5시까지)
제2장소 : 부산강의실(경상도 지역 스님들을 위한 교육장소)
(매주 토요일 오후1시30분~5시30분까지)
◎일시 및 기간 : 2012년 3월초 부터 6개월간
◎수 강 료 : 6개월간 무료
◎신 청 : 전화주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안내문을 읽어 보시고, 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하신 후 보내 주시면 됩니다.

성 지 관 음 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3리 704-1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 팩스 768-8413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원목 법탁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원목 법상

NAVER 무인경보불전함▼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안양과학대학 평생교육원

명리학 초,중고급과정 육임 실전과정반

오천년의 문화유산 동양역학을 습득하여
지혜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사주명리학 초,중고급 과정 및
신규 육임실전반을 개설하였습니다.

< 모집안내 >
명리학 초 급 과정 20명 학기당 30만원
명리학 중고급 과정 15명 학기당 30만원
육임학 실전반 과정 20명 학기당 30만원

문의처 031)441-1090
www.ianyang.ac.kr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922-1 (평생 교육원)
명리담당자 h 010-9804-8801(이종인)
명리담당자 h 011-791-8222(윤석정)
육임담당자 h 010-4471-6410(공 념)

불 자 정 보 26 | 877호 | 전면광고

2012년 2월 29일 수요일 / 불기 2556년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 법당 : 18평
- 요사 : 43평
- 부지 : 100평
- 가액 : 4억

- 위치 : 경남
- 법당 : 64평
- 요사 : 100평
- 부지 : 3,000평
- 가액 : 16억

- 위치 : 경남
- 법당 : 15평
- 요사 : 36평
- 부지 : 1600평
- 가액 : 6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창 원

- 대지: 200평(국유지 500평)
- 법당 20평, 원통전10평, 지장전 20평
- 용왕당 6평, 삼성각 6평, 요사방 3칸
- 전통한옥으로 전각 다수
- 가액: 6억 (은행 2억 포함)

토굴(부산 지하철 10분)

- 대지: 150평(국유지 70평 포함)
- 법당 (용왕당 물 철철) 17평,요사채, 방3칸
- 뒷산 공원 접, 주택 밀집지역
- 정남향, 사찰역사 38년
- 총가액 : 2억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공양주 구함 (수수료 없음)

직011)560-8522,051)863-662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종 교 관 련 시 설 터

- 요양시설, 수련원, 선방, 포교원 등
- 서울 은평구 진관동 (북한산 자락)
- 평수 400평(대로에서 200m)
- 건물 : 약 40평 있음
- 특징 : 산 밑에 위치한 산세수려한 조용한 곳
- 가액 : 15억

주인직접 011-372-7744

절 터 (급) 안 내

소백산 정취에 흠뻑 젖는 곳, 깨끗한 물,
명상쉼터, 절터, 별장지.
된장공장 적합 現 장뇌산삼 농원 시설 하우스
100평 전1600평
충북 단양

주인직접 010-9220-3385

사찰 및 부전스님안내

- 사찰 또는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분
- 부전스님이 필요한스님
- 부전 생활이 필요한 스님
- 사찰만을 전문으로 안내하며 부전스님 안내드립니다.

♣ 부전생활에 필요한 덕목 및 사시예불. 목탁. 전문의식 단기교육

도심 속의 산중사찰

- 부산 동구 범일동
- 총대지 98평
- 건물 1층 70평 (법당 35평, 공양간등 8방)
- 2층 35평(법당35평, 방2)
- 가액: 3억 5천만원(전세 절충)

010-5511-7000 / 070-4128-8975

(부산푸른부동산) 혜화.보현 합장

〈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암자,토굴,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송현동
- 4층건물에 4층, 전체 80평
- 법당: 삼존불 모셔져있음, 방2, 창고방1
- 보증금 2000만원 월 60만원
- 관리비 10만원
-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4436-344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파티마병원 옆
- 평수 2층 34평
- 3층 공양간 33평
- 최고시설, CCTV완료,
- 몸만오시면 법회가능
- 주차장, 현법회중
- 보증금 1500만원, 월 75만원
- 시설비 2800만원(상담후 결정)

010-4504-7809

사 찰 안 내

- 한번 가보고싶은 사찰
- 지리산 천왕봉 아래 위치 최고(목조건물)
- 아주 완벽한 전통사찰
- 대웅전 27평(토굴) 황토, 요사채 55평
- 법륜전 70평 6개 각방 욕실완벽
- 등산로 끝까지 도로 포장되어 있음
- 현공풍수학으로 (최고좌향)
- 가액 8억

010-9335-848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죽계리 907번지
- 대지 190평
- 법당 28평, 요사채 24평
- 가액: 2억 1천만원

010-2707-131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
- 3층 53평 전체
- 법당, 아미타불, 관음소불 50
- 후불탱화, 신중탱화, 영가단
- 주방, 큰방3, 큰 대기실, 해우소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후 결정, 몸만 오시면 됨
- 스님 건강 관계로 급양도

010-4323-008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 역 지하철 도보 5분거리)
- 7층 건물 3층. 지하주차장 有
- 총평수 83평, 법당 약 30평
- 석가모니불, 관세음, 지장, 삼존불 칠성, 신중, 영가단
- 방3개, 주방, 거실, 실내 화장실 도시가스.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5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없음

010-9376-5633

사 찰 안 내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148번지
- 4층건물중 2층
- 평수 : 32평 시설완벽
- 법당 : 장엄되어 있음
- 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원 (방2칸 시설비 : 2,000만원)
- 몸만들어오시면 됨

010-2565-7200

암 자 안 내

- 위치 : 익산시 5분거리
- 종교부지 300평, 국유지600평
- 법당 25평, 요사31평, 산신각
- 문화재급약사석불
- 가액: 1억 8천만원

011-677-852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중구 동인동
- 5층건물 3층
- 사용총평수 53평
- 법당 20평
- 석가삼존불,지장,칠성,신중
- 방2, 주방, 거실
- 보증금55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는 답사후 상담결정

010-2520-826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소재 (역에서 차편 약 20분)
- 대지: 도지 사용, 연 35만원
- 건물 : 1층 독채 약 28평 개인등기 필
- 내용 : 법당, 방2, 주방, 세면장
- 여건: 큰길변, 교통 좋은 요지
- 법당 넓고 생활 편리함, 현대식 시설
- 가액: 4천 5백만원(시설비포함)

010-7295-1259

사찰(급)안내

- 위치: 경기 포천시 송우리 근교
- 1층 50평, 위패단
- 2층 법당 35평
- 요사채, 공양실20평, 선방 6개
- 산신각, 휴게실 20평
- 가액: 14억(상담 후 절충)

010-7130-7246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대지 약 50여평
- 법당 2층건물, 요사1채
- 양도가액: 1억 4천만원
- 현재 운영중. 시내에 있음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양도

019-305-9138
051)466-045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전 중구 대흥동
- 도심 포교원 최적입지
- 대전역 도보 7분, 중앙시장 4분
- 건평 70평. 3층
- 법당 25평, 방사 4, 차실
- 제반시설완벽
- 전세보증금 1천만원, 월 42만원
- 시설비 3500만원

011-622-967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마산 시외터미널 부근
- 평수 15평, 2층
- 보증금 200만원 월 24만원
- 시설비 480만원

010-5042-100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강남구 청담동
- 평수 : 50평
- 시설: 법당1, 거실1, 방2, 부엌1 화장실2, 샤워실1
- 시설비 3000만원
- 보증금 3000만원, 월 130만원
- 건물 2층 건물의 2층

016-9433-068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천광리
- 천수천안관세음, 신중탱화,
- 후불탱화, 소불
- 방3, 공양간, 탈의실 별도
- 시설비 1800만원
- 전세 1000만원, 월 50만원

051)721-8350
010-9243-8350

토굴(급)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 대구 20분거리
- 대지 340평
- 건물 약 60평
- 가액: 2억 3천만원(조절가능)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주세요

010-4366-7950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동구 구봉산 사찰
- 내용: 전망 좋은 도심 산자락
- 80년된 청정기도 도량
- 대지 50평, 국유.사유지 50평
- 1층 요사채 50평 (방4, 공양간1, 관음전)
- 2층 법당 35평 • 옥탑, 해수관음입상
- 공원이 조성되어 주변 환경이 좋으며, 공영주차장 100여대 완비되어 있음
- 3억 5천만원(절충가능)(대출1억 가능)

010-8660-5810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에서 7분거리
- 등기 실평수 553평, 기타 평수 있음
- 대웅전, 천불전, 요사채, 방 35개
- 산신각, 종각, 용왕당
- 주차 40대가능
- 가액: 6억 5천만원 (현지 답사 수 조절가능)

010-9889-318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
- 3층 건물에 3층
- 평수 50 ~ 60평
- 가액: 6000만원
- 시설비 1000만원 월 46만원

016-614-8730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 태봉 349-13번지 태봉암
- 삼존불 및 생활가능, 집기일체 완비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1년세 120만원

010-3869-166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 평수 60평, 방2, 법당
- 엘리베이터 有, 방3, 법당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4000만원

010-2088-9150

토 굴 터 안 내

- 위치 : 경부 구미군 소보면
- 임야 600평
- 전기, 도로접
- 청정지역 앞에 연못 저수지 있음, 경관 양호
- 평당 10만원

010-2727-1248

저렴한 농가주택

- 위치 : 경북 영양군 입암면
- 약수터부근
- 대지 124평, 건물 2동 36평
- 보일러와 불 때는 방
- 가액 : 4천 9백만원

주인직

010-8899-88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도 의정부 중앙로
- 의정부역 지하철 10분거리
- 경전철 5분거리
- 2층 건물의 2층, 총평수 25평
- 옥상방 사용가능, 집기일체완비
-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1억 8천만원 (은행융자가능)

031) 846-1028
010-3780-585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망월사 전철역
- 아파트 밀집지역내
- 평수 35평
- 현대식 시설, 산사 이전관계로 양도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용 답사후 상담 결정)

010-8522-2203

명 당 사 찰 터

경주 남산 풍수와 환경 완벽함
뒤산에는 큰소나무가 병풍처럼
둘러있고 건축허가 토목공사
돌담장까지 완성
등기면적 623평 실제사용 850평됨
평당 63만원

010-5014-1456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 동구 신암동
- 3층건물중 2층(45평)
- 삼존불,산신, 각탱화, 소불270,지장관음
- 친견실,방1,공양간,창고, 수세식화장실,세면실
- 에어컨,집기일체완비
- 몸만오시면즉시법회가능
- 보증금500만원 월45만원
- 시설비 3000만원(조정가능)

010-2224-896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도심속 조용한 산밑
- 남향 , 지하수 사용
- 대지 186평, 법당 건평 목조 25평
- 요사 26평, 주차 10대가능
- 가액: 4억 9천만원

010-6554-6198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 임야 전답 총 15000평
- 법당 25평
- 요사채 10평
- 가액 1억 9천만원

010-9967-983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 사용평수 50평
- 삼존불, 지장보살, 인등, 소불
- 주차가능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가액: 3500만원
- 상담후 절충

010-9350-8989

광 진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
- 부지 : 55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3억5천

- 위치 : 경기
- 부지 : 160평
- 법당 : 25평
- 요사 : 60평
- 가액 : 12억5천

※오랜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사찰양도양수전문,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상담받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납골공원 및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시내에서 10분거리
- 면적 2만평, 법당까지 도로포장
- 극락전 50평, 법당 45평, 요사채 50평 2동, 용궁100평
- 종각30평-산신각 10평(목조단청), 연못, 폭포수
- 상황버섯 재배, 표고버섯 재배, 장뇌산삼 10년근 약 100만주
- 사회복지 법인, 입불지장전 도량 약 300평, 농장 2천평. 백년송 소나무 경치좋음
- 가액: 55억, 꼭 하실분만 연락

011-1703-2770

포 교 원 안 내

- 위치:경남 창원시 도계동 도계주유소 인근 4층 건물중 2층 (53평)
- 법당1 ,방4 ,화장실2(실내외 화장실 각1개)
- 창고1,큰 주방 ,거실, 삼존불 후불탱화, 인등 230불,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도시가스 ,각방 전기페널 설치
- 전세5천 월30, 시설비 답사후 결정
- 현대식 시설, 산사 이전관계로 양도

010-3869-7100

요양시설, 전원주택 절, 전통식품공장터

- 위치 : 경남 합천군(대구에서40분거리)
- 총평수 3,579평(계획관리지역) 합천호인접 계곡경관이 아주수려한 지역
- 경내자연동굴(총폭2미터,길이 300미터)
- 동력전기있고 진입로 폭4미터 포장되어있음
- 요양시설,펜션,전통식품공장,절 건축허가 가능
- 가액은 2억5천만원(답사후 절충조정가능)

011-848-2452

인연있는 스님을 찾습니다

- 위치: 전북 익산시 왕궁면 등용리 132-1 북심사
- 창건주 스님이 돌아가시어 사찰을 책임있게 스님의 원력유지를 받들어 운영할 스님을 찾습니다 혹은 양도를 원하시면 양도해드림

063)832-0763 / 010-3905-8764
010-9303-7556 / 휴대폰이 안되는 지역임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마포구
- 1층건물, 평수 35평
- 석가삼존불, 지장, 칠성, 신중, 산왕단,인등
- 방2개, 주방, 거실
- 보증금 1천 5백만원, 월세 95만원
-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7178-5892

사 찰 안 내

- 위치 : 청도 (대구에서 30분거리)
- 평수 130평
- 건평 42평(인법당)
- 가액: 1억 6천만원(절충가능)
- 비구니스님 적합

010-2501-3671

사 찰 안 내

- 위치 : 청주 상당구 시내 중심가
- 대지 95평, 건평 100평
- 법당 35평, 방4, 거실, 화장실
- 미륵부처님 1분, 삼층석탑 1 삼존불, 108후불
- 산신각, 산업용전기보일러
- 가액: 답사후 전화 상담
- 현재운영중

010-8121-3334

구도의 마음을 일으키는 이 한 생각은 저 영원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저 영원한 시간은 진리를 향한 지금 이 한 생각 속으로 응집된다. – 법성게 –

명상 8주 프로그램

걷는 동작 지켜보며 '들고 놓고' 반복

잭 콘필드의 명상 레슨 ⑧ – 걷기 명상

실내나 집 주변에 앞뒤로 스무 걸음이나 서른 걸음 정도 곧게 걸을 수 있는 장소를 찾으십시오. 명상하는 장소를 자주 바꾸면 산만해지기 때문에 한 곳에서 계속 명상하는 편이 좋습니다. 걷기 명상은 그냥 편하게 걷는 것이 아닙니다. 주위를 살피지 않고 자신의 걸음에만 집중하는 명상입니다.

먼저 명상을 하는 곳에 가만히 섭니다. 눈은 약간 아래를 향한 채 마루나 땅 위의 발을 느껴보십시오. 땅과의 접촉을 느껴보십시오. 두 팔은 편안하게 늘어뜨리고 발은 어깨 넓이로 벌립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것에 집중한 채 신체의 모든 감각을 느껴봅니다. 당신이 바깥에 서 있다면 산들바람이 지나가고 풀이나 꽃향기도 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팔과 다리의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옷이 어깨와 팔꿈치에 스치는 감각이나 발이나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뻣뻣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호흡을 지켜볼 때처럼 걷는 동작 하나하나도 지켜봅니다. 몸무게를 천천히 왼발로 옮기면서 그 느낌을 살펴보십시오. 한쪽 다리는 힘이 들어가 굳어지면서 무겁고, 반대쪽 다리는 가벼워지면서 무릎이 구부러지려고 합니다. 발뒤꿈치를 바닥에서 떼어봅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무게를 다른 쪽으로 옮겨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나요?

왼발을 앞으로 5cm 정도 아주 조금 옮겨보십시오. 발을 들고 발을 놓는 두 동작을 관찰해보십시오. 이제 왼발 끝에 무게를 실어봅니다. 오른발을 조금 옮겨보십시오. 발을 들었다가 놓습니다. 다시 몸무게가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발걸음 그 자체입니다. 즉, 무거웠던 한쪽 발이 가볍게 변하는 것을 느끼고 다리의 움직임을 느끼고 다리를 내리면서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의 촉감을 느낍니다. 발을 들고 놓습니다. 들고 놓고, 들고 놓고를 반복합니다. 태극권의 동작이나 아주 느린 춤사위와 비슷합니다. 발을 움직이면서 '들고' '놓고'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도 좋습니다.

스무 걸음 쯤 나아갔으면 그 자리에 멈추고 다시 중심을 잡고 섭니다. 천천히 발을 들고 놓으면서 뒤로 돌아섭니다. 이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발걸음의 움직임에 집중하면서 지켜보아야 합니다.

걸음을 걷는 동안 마음이 이런저런 생각으로 방황할 수 있지만 그 순간에 자신의 동작에만 집중합니다. 발을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습니다. 생각이 쉽게 멈추지 않고 그 생각에 빠져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차리게 되면 다시 발을 들고 놓는 걸음에 집중합니다.

걷다가 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멈추어서 그것을 봅니다. 자신이 보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본다, 본다', '감상한다, 감상한다'라고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다 보았으면 다시 발을 들고 놓는 걸음에 집중합니다.

현재의 순간에 가장 잘 지켜볼 수 있는 자기 나름의 속도로 걸으면 됩니다. 졸음이 밀려오거나 천천히 걷기 힘들다면 장소를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발걸음에 가장 잘 집중할 수 있는 속도로 걸으면 됩니다.

걷기 명상은 특히 의욕이 지나치게 넘칠 때나 마음이 쉽게 산만해지는 날에 하면 좋습니다. 한 곳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걷기에 집중하다 보면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의 본질입니다.

〈처음 만나는 명상 레슨〉에서 발췌
정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발과 대지의 접촉 느끼며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속도로
스무걸음쯤 걷고 돌아선다
장소 자꾸 바꾸면 산만해져



날마다 명상하기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날마다 명상하는 것입니다. 명상을 해보면 월요일에는 명상이 잘되는데 화요일에는 잘 되지 않다가 수요일에는 더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목요일에 조금 나아졌다가 금요일에는 완전히 망칠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명상에 대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방석이나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관찰하면서 말을 건네면 됩니다. 나타나는 현상은 그 순간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반영할 뿐입니다. 하루를 마칠 무렵 허둥대며 앉아서 20분 동안 겨우 3번만 호흡을 관찰하고 내내 생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명상을 연습으로 여기고 어떻게 되든 낙담하지 마십시오. 명상은 피아노를 배우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운동을 하지만 나중에는 이 훈련에서 비롯된 음악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1억 번 쯤 헤맸습니다. 이렇게 헤매는 습관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명상의 효과를 느끼려면 인내심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계속해야 합니다.

날마다 명상을 계속하는데 도움이 될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편안한 시간을 선택하고 날마다 같은 시간에 명상합니다.

-자신의 스타일에 맞춥니다.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이라면 잠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명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후나 저녁에 명상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용한 장소를 찾습니다. 방해받지 않고 명상할 수 있는 곳이라면 아무데라도 괜찮습니다. 자세를 바로하고 의식이 깨어 있는데 도움이 된다면 의자나 방석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날마다 15~30분 정도 명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호흡을 느끼고 몸의 감각과 생각, 감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면 단 5분도 도움이 됩니다.

-그날 그날 자신의 성향에 따라 이 책에 소개된 8가지 방법 가운데 한 가지 방법으로 명상하거나 몇 가지를 조합해서 명상해도 좋습니다.

-명상하는 장소에 향을 피우거나 그림이나 책처럼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물건을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명상을 하기 전에 책의 한 구절을 읽어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각의 선물인 깨달음을 상징하는 촛불을 켜기도 합니다.

-함께 명상하는 모임을 찾아봅니다. 사찰이나 성당, 교회 또는 각종 명상센터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임에 참가해서 함께 명상하는 것은 특정한 가르침의 추종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는 어려우니 함께 명상하는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명상은 어떤 목표에 도달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계속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호흡과 몸의 감각, 생각과 감정의 에너지를 꾸준히 자각하면 삶의 모든 상황에서 마음이 보다 고요해지고 호기심이 생길 것입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으로 명상합니다. 위빠사나의 요점은 어떤 특별한 경험을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자각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면 이 순간의 삶의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동안 '명상 8주 프로그램'을 애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15분 명상' 안내 CD가 동봉되어 있는 〈처음 만나는 명상레슨〉(불광출판사)을 만나보세요.

초보자라도 쉽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사찰(급)안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서포항 IC 10거리) 2차선 갓길 호조건
■ 사찰 전시관 (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종각, 대중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경주, 대구, 영천 30분거리
■ 일반 재가 불자님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아기를 안고 계신 목불 (약 250년), 3m 40cm 50여점의 크리스탈 개금불 외 희귀불상 전시 (목불위주 전시) 일시과 외벽 만다라 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재 (땅가격 : 30만원)
■ 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중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개금불로서 절대 모방이 불가능하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감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 바 있음.
■ 총 2,500평 중 성취관 내 일체 고불상 전시시설만 받고, 대웅전, 지장전, 용왕, 산신, 대중공양실, 종각, 땅 2,500평 무료 제공함.
■ 2011년 초파일 참배인원 약 3,000여명
■ 가액 : 총 전시관 자금만 받고 급 안내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 010-4504-0174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2년의 역사와 자산77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❷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❸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❹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❺ 강원도 부터 제주도 까지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www.yangjikukak.com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현우경' 이야기 (9)

효행의 공덕

어머니 대신 목숨 끊고 늑대에게 육신 보시

특차시리라는 나라에 제바라라는 왕이 살고 있었다. 나라는 매우 부강했고 백성들도 항상 풍족한 생활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다. 제바라 왕에게는 나후라는 대신이 있었다. 나후는 욕망에 가득 찬 사람으로 항상 반역을 꾀하고 있었다.

어느 날 나후는 군사를 소집해 궁을 쳐들어가 왕과 왕자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다. 왕에게는 10명의 왕자들이 있었지만 나후의 군사들에 의해 살해당하고 말았다. 막내 왕자인 수바라만이 목숨을 건졌다. 수바라는 궁을 빠져나와 산책을 하던 중이었다.

궁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던 수바라는 숲 이곳저곳을 다니며 풍경을 감상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그때 한 야차가 수바라 앞에 나타나 말했다.

"나후가 반역을 일으켜 지금 부왕과 형들이 시해 당했습니다. 얼른 몸을 피하십시오."

수바라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곧장 자신이 머물고 있는 집으로 달려갔다. 수바라에게는 아내와 수사제라는 7살 난 아들이 있었다. 수바라는 아내와 아들이 무사한 것을 보고 안도했다. 수바라의 아내는 잔뜩 겁먹은 표정을 하고 있는 수바라가 걱정돼 물었다.

"왜 표정이 안 좋으십니까? 밖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지금 나후에 의해 아버지와 형들이 다 죽었다고 하오. 지금 즉시 몸을 피해야 하오."

수바라는 아내 · 아들과 함께 다른 나라로 길을 떠났다. 수바라는 길을 떠나기 전 급한 마음에 세 사람 몫의 양식을 준비하지 못했다. 결국 보름 정도가 지나자 가져온 양식은 거의 바닥나고 말았다. 수바라는 고민에 잠겼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모두 길에서 죽을 것이다. 한 명이라도 입을 줄여야만 살 수 있다.'



삽화 · 강병호

수바라는 결국 아내를 죽여 아들과 자신을 살리고자 했다. 수바라는 아내에게 아이를 업고 앞서서 걷게 했다. 수바라는 칼을 꺼내 들어 뒤에서 아내를 죽일 작정이었다. 그때 아들이 갑자기 뒤를 보았다. 수사제는 아버지가 칼을 빼어 들고 어머니를 죽이려 하는 모습을 보고 말했다.

"아버지, 제발 어머니를 죽이지 마십시오. 어머니를 꼭 죽이셔야 한다면 제가 어머니 대신 목숨을 끊겠습니다."

"안 된다. 어머니를 죽이면 너와 나는 살 수 있다. 그리고 너는 특차시리국의 왕위를 이어 받아야 한다."

"안됩니다. 어찌하여 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부모를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수사제는 결국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사제는 목숨이 다하기 전 아버지에게 말했다.

"부디, 몸 건강히 다른 나라에 도착하셔서 어머니와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수바라는 죽어가는 아들을 보며 슬피 울었다. 이때 이 모습을 지켜본 하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 부모의 목숨을 살린 수사제의 모습에 하늘 사람들은 원통해 했다. 제석천왕은 수사제의 본심을 시험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와 늑대로 변해 수사제 앞에 나타났다. 수사제는 늑대의 모습을 보고 생각했다.

'어차피 난 죽은 목숨이다. 이 짐승에게 나의 육신을 보시한다고 해도 아까울 게 없다.'

수사제는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육신을 내어주기로 했다. 제석천왕은 수사제가 후회 없이 자신의 몸을 보시하는 것을 보고 감탄했다. 제석천왕은 자신의 실제 모습을 드러내며 수사제에게 말했다.

"너는 자신의 목숨으로 부모에게 효도를 했다. 그 공덕으로 무엇을 얻고 싶은가?"

"저는 그 공덕으로 불도를 구해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싶습니다."

수사제가 서원을 세우자 수사제는 다시 목숨을 얻게 됐다. 이 소문은 모든 나라에 퍼졌고, 수사제 부모가 도착한 나라의 왕도 이 소식을 듣게 됐다. 왕은 수사제를 기특하게 여겨 온갖 공양을 베풀었다. 그리고 그 왕은 수바라, 수사제와 함께 군사를 이끌고 특차시리국으로 돌아가 나후를 처단했다. 부자는 본국의 왕위를 다시 차지하게 됐고,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뤘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때 수사제가 지금의 나이고, 수바라왕은 지금 나의 아버지 백정왕이며, 어머니는 마하마야이시다. 나는 과거의 효행으로 인해 항상 높은 집안에 태어나 많은 복을 받았다. 또 그 공덕으로 지금의 부처가 됐다."

구성=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불기 닦는일 힘드시죠!!

아주 쉽고 빠르게 닦이고 광택이 깨끗하게

친환경 다목적 금속광택제 이지 골드



촛대, 향로, 위패, 유기, 제기, 놋쇠, 은, 동, 신주 등 모든 금속류

특 징

1.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2. 타제품 보다 닦기가 쉬워 시간이 절반이상 절약됩니다.
3. 코팅 광택약이라서 흠집이 나지 않고 광택도 오래 유지됩니다.
4. 습기에 강해 광택이 장기간 유지됩니다.
5. 인체에 해롭지 않게 피부보호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6. 본제품은 10년간 사용하여도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제품은 국제품질 시스템 ISO 9002 규격에 따라 제조되었습니다 (인증번호 AC-01808)

용 량 : 525g
사용기한 : 10년

문의 070-8262-9291. 010-5462-3620
농협 312-0029-1189-81 예금주 : 고태용

영일상사

디자인특허등록 2010-0039035

황금위패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수조각

• 규 격
大 / 中 / 小 의 다양한 규격

• 흑단제사용위패(가정용)

顯考學生府君 神位

위패전문기업 (주) 대 양

대표전화 : 02-966-9650
휴대전화 : 010-8238-1511
팩 스 : 02-921-9650
홈페이지 : www.dya.xo.st

여러분은 무엇이든 다 갖추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요즈음 뉴욕이나, L.A.에서나 어디고 전화가 급하게 오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곰살궂게 대답합니다, 그것도. 그쪽에서 그렇게 급해서 전화하는 사람도 나요, 대답하는 놈도 나야. 만약에 나를 믿지 않았으면은 내가 그런 대답도 안 할 것이요, 또 내가 그쪽에서 그렇게 믿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강을 건너야 한다는, 멀다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지. 응? 인간들은 모두 비자를 받아야 나가지만 우리 마음은 비자 안 가져도 다닐 수 있는 거지. 멀다고 가지 못하고, 물이 깊다고 건너가지 못하고, 저승이라고 갈 수 없는 게 아냐. 한 찰나야.

그래서 맡겨놔라 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 공부를 시키느라고 하는 거지 나를 발견한다면 맡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대로 체험을 하고 공부를 하고 가는 거지. 말을 하려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어떻게 말을 해, 그럼! 그래서 급하다고 전화를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전화를 탁 받는 순간 얘길 하니깐 듣는 거지. 내가 들었으면 그놈이 알고 있지 않아?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으니깐 자동적으로 나고 드는 거야. 자동적으로. 알고 있잖아?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잘 들어요. 의학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어느 공장에서 병이 났어. 병이 났으면 나한테 신호가 와. 아프다는 게 신호야. 알았죠? 아프다는 게 신호인데, "아이구, 여기가 아프니까 병원에 가야지. 여기가 아프니깐 약을 먹어야지." 이렇게 바깥으로 도는 거야, 신호가 왔는데도. 신호가 왔으면은 바로 공장장한테 거기니 여기니 할 것 없이 다 맡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여기서 대뇌로 인해서 사지로 신호가 가면은 어디가 고장이 났으니까 그 공장에서 전체를 조사해 봐라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러면은 직원들이 다 나서서 그것을 다 고친다 이거야. 자기네들이 이 몸을 형성시킨 거니깐 오죽이나 잘 알겠느냐 이거야. 남이 더 잘 알겠어, 형성시킨 자기가 더 잘 알겠어?

그러니까 고장이 난 곳을 고치는데 신호가 오면 벌써 딴 데로 나가, 다. 형성시킨 주인공한테다가 '주인공밖에는 이거 고칠 수 없다.' 하고 거기다가 맡겨야 될 텐데, 일하는 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 갖춰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딴 데 막 매대길 쳐. 그러니 딴 데로 매대기치는 동안에 벌써 신호를 보냈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일하라고 시키질 않으니까 신호를 했는데도 소식이 안 오니깐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판국이지, 어떻게 해!


그림 · 최주현

군대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이게 이렇고 이렇습니다." 하고 기안을 올렸는데 위에서 아무 소식이 없으면 그 직원이 무슨 일을 해. 응? 사장한테 올렸는데, 공장장이 올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으면은, 하라 말아라 할 것도 없고 그냥 아무 소리 없으면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거야, 자기 맘대로. 그렇기 때문에 신호가 오걸랑 빨리 조취를 취해서 '내 주인공밖에는 해결을 할 수 없다.' 는 결론을 내릴 때에 거기에서, 말하자면 두뇌의 총지배자죠. 그게 누진(漏盡)이라고 그래요. 누진에 올리면은 모든 게 전체 통신이 돼가지고선 어디가 어떻고 조사를 하게 돼 있어. 그래서 모든 것을 소상히 알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형성시킨 장본인이 바로 여러분한테 있으며, 여러분 안에 오신통을 스스로 갖추어가지고 있으며, 그 오신통으로 인해서 천차만별로 나가는 질량을 전체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중생이라고만 하고 부처님 법은 높은 데 있다고 하면서 "아이구, 부처님! 나를 살려주시오. 우리 아들을 잘 되게 해주시오. 낫게 해주시오. 뭐 이끌어주시오." 뭐가 어떻고 어떻고, 속만 상하면 "아이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 됐어? 관세음보살, 이게. 관세음보살이 됐다면 관세음보살이라는 말 안 해. 관세음보살이라는 건 세상을 이름해서 말한 거지,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이름해서 세상의 이름으로 지어놓은 거지 여러분이 부르기만 하는 이름이 아니야. 그냥 부르기 이전에 지금 살고 있어. 말하고, 보고, 관(觀)하고 살고 있지 않남? 그게 그냥 이름이야. 뭐 다른 게 아니야. 그래서 이 도리를 모두 알면은 즉, 이름 없는 관세음보살이야. 한마음으로서의 자유인이 되니까.

나는 아주 나이가 어렸을 때 이런 발견을 했습니다마는 발견을 한 그때서부터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을 했다 하면은 자(子)가 돼요. 그 자로 인해서 움죽거렸다 하면 화신(化身)이 돼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달리 생각하지 말고 화신이 아들이라 하면은 아버지는 가만히, 무심(無心)으로 가만히 있을 때에는 부처야.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질 쳐다보면 모두가 아버지로 돌아가. 하나로. 가만히 있으면 부처요, 생각을 하고 움죽거렸다 하면 바로 아들이다 이거야.

내가 그전에도 말했듯이 내가 공부할 당시에 어느 산중에 가니까 묘지가 두 개가 있는데, 날더러 묻기를 '이거는 아버지의 묘지인데 아들한테로 가면 아들로 하나가 되고, 아들이 아버지한테로 오면은 아버지로 하나가 되니 그것은 무슨 연고냐.' 하고 묻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다 이겁니다. 무심으로 가만히 있으면 아비요, 아비로 하나가 되는 거야. 자식이고 아비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24시간 일을 했다 하면은 자가 되는 거야. 따로 아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로 한데 합쳐버려. 그러니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일을 과학자처럼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이렇게 따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름일 뿐이고 그것은 유의 법에서의 50% 즉,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보이는 공부죠. 그러나 빛보다 더 빠른 한 찰나라는 걸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로 재고 있겠소? 네? 빛보다 더 빠른데. 미국을 가는데도 요기서 요 한 발짝 쳐다보는 거나 미국에 가는 거나 저 달에 가는 거나, 은하계에 가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로 재겠느냐 이거야. 잴 수가 없죠. 그래서 구지 스님은 손가락 하나 가지고 일생을 가르쳤어, 손가락 하나 가지고. 그 손가락이 보통 손가락이 아니거든, 뜻으로 본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 도리를 공부하면서 주장자가 없다면 빈집이 돼서 그 빈집 속에서 업식으로 만난 인연들이 나고 들면서 세균도 끌어들이고, 병들도 끌어들이고, 영계들도 끌어들이고, 인연 닿는 대로 그저 그냥 왔다 갔다 하며 장구 치고 북 치고 하면은 여러분이 살겠어요? 바깥으로 나오는 집안 일들이나, 병이 드는 일들이나, 식구들에게 모두, 참 굉장치도 않은 문제들이 발생할 때 여러분은 그 고(苦)를 어떻게 밀고 나가겠느냐 이거야. 그러나 그뿐이 아니에요. 임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네게 주장자가 있다면 내가 주장자를 줄 것이로되, 네게 주장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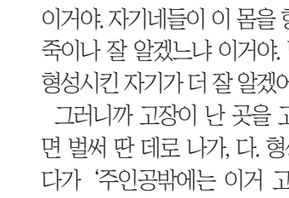
☞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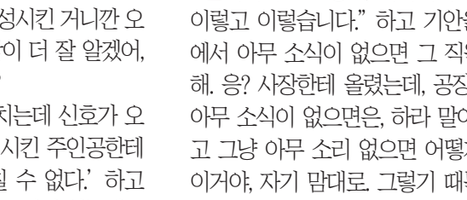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스님! 법당의 엠프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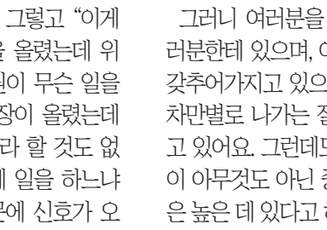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POWERED MIXER 앰프


PM-805



스테레오 앰프 300AN


• 高音質 무선마이크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


◆특징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 일반 마이크 V-606L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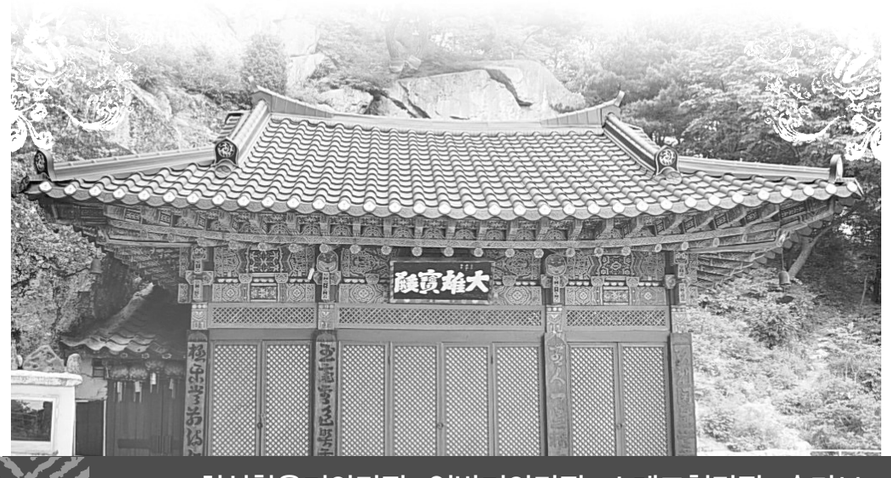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일반형)
◇가격 : 175,000원(고급형)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타력신앙은 이익이 하나도 없고 공덕이 하나도 없어요

☞ 29면에서 계속

없다면 주장자를 내가 뺏을 것이니라." 그게 무슨 소리냐.

집이 비었다면은 주장자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그냥 온통 야단을 쳐도 모르고 코를 통하고, 눈을 통하고, 털구멍을 통해서 들락날락 들락날락 해도 본인은 모르는 거야. 자기 집을 그렇게 드나드는지도 모르면서 단전을 해가지고 머리가 이상해지고 하는 것들. 그런 건 몸에 관한 건이지, 피를 통하게 하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일이지 내 마음공부가 아니야. 왜 아니냐? 그것도 마음공부 아닌 게 없지마는 내가 이 안에서 발견하지 않고는 그거는 그냥 몸을 튼튼하게 한다는 생각뿐일 거야. 몸이 튼튼해야 공부한다는 것만 알았지, 내가 모든 걸 귀결해서 놓으면 몸 튼튼해지는 건 물론 모든 부분이 좋아져서 공부를 잘한다는 건 몰라. 하나만 알지 둘도 몰라.

그래서 바깥에서 타력신앙으로 믿는 사람들은 병자가 많아. 한철 가서 참선방에 가서 있다 오면 병 집이 돼버리는 사람들도 있어. 한철 나고 해제를 하면은 약탕관 떠날 사이가 없다가 또 결제가 되면 약탕관을 놓고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것은 참선방에 다녀도 혼란이야, 혼란. 이 전체 삼라만상 도량이 그냥 참선방이야. 변소에 가도 참선이요, 드러누워도 참선이요 그러니까 앉아도 참선이요, 마음이 편안하게 가라앉고 모든 것을 맡겨놓고 살면은 모든 게 스스로서 따뜻하게 내 집안이 아늑해져. 그러고 조화를 이루어 화목해지고, 우환이 없어지고 어떤 급한 일이 생겨도 주인공에 맡기고 스위치만 누르면 그게 돌아가서 어떡하든지 와서 닿아. 그것이 바로 끊어짐이 없는 참선인 것이죠.

아마 체험을 한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내가 그렇게 체험함으로써 내가 나의 주인공을 신임을 하게 돼. 신임을 하게 되면 그때서는 '아, 주인공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주는구나.' 하는 게 믿어지니까 그때서부터는 딱 쥐고 가는 거야. 그건 뭐 24시간 생각을 안 하고 있어도 그건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다니는 것조차도 주인공이 다 내 모든 것을 끌고 다니는구나. 그 언덕이 없었더라면 소가 와서 비빌 수가 있겠냐. 아, 모든 걸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가니까 진짜 공부가 되는 거야.

타력신앙은 이익이 하나도 없고 공덕이 하나도 없어. 수천억 만원을 갖다가 준대도 그것은 공덕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난해서 돈이 없어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가는 사람은 마음이 항상 같이 해.

그리고 이 세상의 사생(四生) 전체가 다 둘이 아닌 도리인데도 불구하고 비구 비구니를 따진단 말이야. 이거는 벌레도 둘이 아닌 까닭인데 아니, 여자 남자 따진다면은 그건 공부 다 했지. 호랑일 잡으려면 호랑이 소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지. 또 그 하치못한 개구리를 알려 해도 개구리 속에 들어가봐야 알아.

옛날에 원주에서 어떤 사람이 소를 기르는데 소가 병이 나니깐 그 집은 다 망하게 생겼단 말이야. 젖소를 열다섯 마리 기르는데 열다섯 마리 중에 하나 남곤 다 병이 났다는 거야. 그러면 그 집 망하는 거지, 아주. 세상에 광주리에다가 쌀하고 돈하고 초하고 사 들고는 그 산중에를 왔어.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직접 만나도 그 사람은 난 줄을 몰라. 그래서 "내가 그럼 그렇게 여쭤드리지요." 이렇게 했지. 내 얼굴을 모르니까. 허허. 나는 바깥에 버섯을 따러 나갔었는데 아, 그걸 광주리에다 이고 그냥 쩔쩔매고 오더라고. 그래도 그거 받지 않았어. 그거 받으면 못써. 아무개 스님을 찾으러 간다고 그래서 "그 스님 지금 안 계신데요." 그러니까 "이러구 저러구 해서 지금 소가 전부 병이 들어서 집안이 다 망하게 됐고 벌써 한 마린 쓰러졌고 죽게 됐습니다. 이거를 살려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린 다 죽습니다." 하고 엉엉 우는 거라.

그래서 그랬지. "그분은 지금 출타하시고 안 계시지만 내가 꼭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내려가 보세요. 아마 그분은 벌써 아실 거예요. 그분은 천리 가 있어도 아시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만 해도 아실 거예요. 지금 보살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분은 알아듣고 벌써 그것을 다 죽지 않게 망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 놓고는 내려보냈겠다. 그러고 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 회장도 그렇게 내가 없어도 "안 계시지만 그분은 벌써 알고 계실 테니 내가 말씀은 해 드리죠." 이렇게만 해도 그게 마음이 둘이 아닌 까닭에 알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모두가 지수화풍으로 인해서 통신도 되고 전력 · 광력 · 자력이 충분히 거기에서 나오고 천체 통신, 타심(他心) · 숙명(宿命) · 천이(天耳) · 천안(天眼) · 누진(漏盡)이 다 풍부하게 동시에 돌아간다고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그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어휴, 우리 소가 다 나아서 이제는 살았습니다." 하고 왔을 때에 그렇게 기쁜 것은 없어. 또 누가 아무리 나를 속이고 그랬다 하더라도 그건 속인 게 아니야. 이익하게 속이는 거는 속인 게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 만약에 내 식구가 먹질 못해서 부황이 나가지고 먹을 거를 도둑질 했다 합시다, 그럼 그건 도둑질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물질세계에서는 몸을 붙들어 가지만 이 마음세계에서는 될 수 있으면 그거는 착한 효자라고 보고 바로, 부모니깐 자식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고 한다면 눈물이 날 지경이죠, 죄로 몰기 이전에.

전에도 이런 말을 종종 했는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소금을 요만큼 싸가지고 다녔죠. 그렇게 남한테 뭣을 달라 하기가 싫었습니다, 저는. 소금만 싸가지고 다니고 야채를 먹으면은 날콩만 한 움큼 가지면 됐고, 구태여 먹을 거를 싸 들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설법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도 공부하면서 알 양으로, 미리 좀 다 알았으면 하는 욕심이 있으시겠죠. 세상이 찰나찰나 돌아가는데, 지금 이렇게 화해서 돌아가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따라 나한테 닥치는 대로 자꾸 돌아가는데 무슨 욕심을 내고 있습니까? 그거를 체험을 하면 되지, 체험을 하고 자꾸자꾸 돌아가면 되지 그건 미리 할 수가 없어요.

미리 알고 있으면 벌써 그거는 과거로 돌아가기 때문에 알려고 애를 쓰지도 말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대기설법(對機說法)으로서 그냥 책을 놓고 내용을 뽑아가지고 하려면은 그게, 여러분 앞에 가고 옴이 없이 그것이 갑니까? 불이 켜집니까? 여러분과 나와 마음이 있고 역대 제불의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한자리요, 한통속이다 이거야. 그러니 그 한통속에서도 벗어나야 된다 이거야, 한통속에서도. 그래야 통을 굴리지. 원심력이 있다면 원통력을 발휘해서 통을 빠져나와서 그 통을 굴려라 이거야. 이것이 바로 오신통을 굴리는 방법이죠. 여러분이 어느 거든지 다 갖추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도, 두서없이 진리가 화해서 그저 두서없이 용도에 따라서 쓰이니까요. 여러분은 내가 옳다, 제가끔들 내가 하는 거, 이것이 그냥 옳다 하면서 가거든요. 그러니 제가끔 그냥 두서없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정연한 겁니다, 질서가. 사과는 사과대로 놓고, 배는 배대로 놨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오계(五戒)를 받았지만, 오계라는 이름 없는 이 도리를 공부한다면 천차만별로 돼 있는 것을 범하지 않으니 오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전체를 범하지 않는데 오계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이백팔십계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삼백오십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숫자로 하는 거는 그거는 지키는 것도 아니야. 그것도 다 못 지키는 건 물론 이름조차도 모르고.

그러니 우리가 지금 국내를 본다 하더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모든 것이나 또 우주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모든 우주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우리와 더불어 쫓기고 쫓는다는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가 불성을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처럼 아무리 과학자들이 그걸 보려고 그래도 그거는 못 봐. 어떠한 형체라면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어도 그것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거 천차만별로 찰나찰나 돌아가는 걸 어떻게 책정을 한단 말이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이것이 그냥 자유인데.

그래서 전에 탄허 스님이 없고 없고 또 없다는 뜻으로 '무무역무(無無亦無)'라고 썼듯이…. 없고 없고 또 없구나! 나는 이 말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뒷발자국도 없고, 앞의 발자국도 없고, 현재 떼어놓는 발자국조차도 없다라고 했죠. 그게 그 소리야. 찰나찰나 고정 관념도 없고 고정행도 없으니까. 이거 할 때 나라고 할 수 있나, 저거 할 때 나라고 할 수 있나. 이렇게 찰나찰나 바뀌어가는 거를 어떻게 내가 미리 좀 많이 알았으면 하고 그렇게 욕심을 두느냐 이거야. 하나하나 닥치는 대로, 내가 24시간 살아나가는 대로 24시간조차도 없는 거라. 밤낮도 없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동쪽이 서쪽이 되고, 서쪽이 동쪽이 되고 이렇게 뒤집혀서 돌아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동쪽이다 서쪽이다 하겠어.

그러니 유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이 도리를 공부해가지고 유식한 거를 거기에 포함해서 쓰세요. 그러면 좋지만, 우리 이 마음의 공부라는 거는 유식하고 학식이 높고 이름이 높고 그렇다고 해도 이 공부하는 데는 그게 아무 이익한 게 없어요. 모든 거 아는 것도 다 거기다가, 아는 것도 그놈이 하는 거, 모르는 것도 그놈이 하는 거, 잘되는 것도 그놈이 하는 거, 또 안되는 것도 그놈이 안되는 것. 그러니 안되는 것도 그놈이 해결할 거, 잘되는 거는 그놈에 감사하고, 그놈 그놈, 그놈 아니면 안 되죠.

여러분이 다른 걸 믿는다고 하나 허공을 믿겠습니까, 내 이름을 믿겠습니까, 역대 보살들의 이름을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없는데, 근본부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부터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운전수이니까 잘 끌고 다녀야 합니다.

그저 오늘 이렇게 두서없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나는 체계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 보는 대로 여러분이 알면 나도 알게 되고, 여러분이 모르면 나도 모르게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냥 찰나 생활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러니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잘, 조절해서 체계 있게 잘 생각을 하세요. 감사합니다.

(음성 공양이 끝난 후) 모두 한 부처이며 각각 자기 부처님 설법을 자기가 듣고 감사히 생각하면서 잊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걸 믿는다고 하나
허공을 믿겠습니까, 내 이름을 믿겠습니까.
역대 보살들의 이름을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근본부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부터 믿어야 됩니다.

※위 법문은 1989년 3월 19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국제붓다자비봉사단)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출가절 특집

출가는 팔정도 실천 해탈의 출발점

2월 29일은 출가절이다.

부처님이 사문유관 등을 통해 출가를 발심하고 실행에 옮긴 날로, 이 날은 부처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아와 의지를 표출한 날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결단이 바로 부처님의 출가이다.

독일 최초기 불자로서 '바바리아 주에서 가장 자비로운 판사' 였던 故 게오르게 그림(1868~1945)의 〈부처님의 가르침: 이성과 명상의 종교〉에서 발췌 한국어로 번역 소개한 〈출가의 길〉(고요한소리 刊)을 간추려 게재한다.

출가의 길

게오르게 그림(독일)

"디가여, 이들 좋은 가문의 세 젊은이가 집을 떠나 출가생활을 서원했도다. 만일 그 가족들이 이들 출가자들을 신심이 충만한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 가족들의 안녕과 행복에 길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중부〉 31경에서 자신을 추종해 출가를 결행한 세 젊은이들을 놓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출가를 지체시키는 외부적 환경이 아주 없을 수 없겠지만 출가의 주된 장해가 당사자에게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무엇보다도 출가자 본인이 출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야' 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의 뜻이 이미 모든 면에서 고상해져서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은 무엇 하나 그를 더 이상 전적으로 만족시킬 수 없게끔 되어 있고, 이에 다시 구경의 세계가 그에게 이해될 수 있는 형태로 비춰지자마자 곧 그를 강력히 사로잡아 이 속세의 소유물들이 모두 공허하고 무미건조하게 보여서 그를 더 이상 단단히 붙잡아 매는 족쇄가 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중부〉 66경에 다음의 일화가 나온다.

"어떤 부자가 있었다. 그는 많은 돈과 금은보화와 곡식과 논밭을 소유했다. 아름다운 부인도 여러 명이 있고 하인과 하녀도 많았다. 그는 자주 숲속에 가곤 했다. 그곳에서 손발도 씻고 공양을 마친 뒤 시원한 그늘에 앉아 평화로운 얼굴로 선정에 든 한 스님을 보았다. '아! 사문의 생활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할까! 아! 사문의 생활이야말로 얼마나 건강한 것일까! 아, 나도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고, 노란 가사를 걸치고, 출가수행을 하고 싶다' 그는 많은 금은보화의 곡식, 논밭, 목초지, 집, 농장, 그리고 하인과 하녀, 여러 명의 부인을 뒤에 두고 떠나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고, 노란 가사를 걸치고, 출가수행을 시작했다. 그 많은 재물과 여러 명의 부인도 그에게는 튼튼한 족쇄가 아니라 약한 족쇄, 무른 족쇄, 힘없는 족쇄였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런 경지에 이른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세속에 악착같이 집착하며, 속세를 떠나 참된 행복과 평화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은 기껏 해야 잠깐 스쳐갈 뿐이다. 불행한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현재의 자기 처지가 무가치하다는 사실은 단지 희미하게 느낄 뿐이다. 출가하려는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경전은 계속 이러한 경우의 예를 들고 있다.

"우다이여, 가령 여기에 몹시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그에게는 까마귀가 드나드는 낡고 볼품없는 오두막이 한 채, 낡고 볼품없는 침대가 하나, 볼품없는 곡식이 한 말, 그리고 볼품없는 한 아내가 있을 뿐이라고 하자. 그런 그가 동산에서 손발을 씻고 공양을 마친 뒤 시원한 그늘에 앉아 평화로운 얼굴로 선정에 든 한 스님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느꼈다. '아! 사문의 생활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할까! 아! 사문의 생활이야말로 얼마나 건강한 것일까! 아, 나도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고, 노란 가사를 걸치고, 출가수행을 하고 싶다!' 그러나 그는 출가수행을 할 수 없었다. 그의 보잘 것 없는 소유물이 그에게 튼튼한 족쇄, 단단한 족쇄, 질긴 족쇄였으며, 무른 족쇄가 아닌 고약한 족쇄였다."(〈중부〉 66경)

세속의 질긴 족쇄 풀어야만

행복 · 평화 찾아 출가 수행

승단은 수행장애 제거 하는 제도

재가자가 더 향상할 수도 있어

이로 비추어 볼 때 여래의 승단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만한 사람은 참으로 극소수일 뿐이며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뒤에 그 진리를 세상에 알릴 것인가 말 것인가 망설이셨다.

이것은 "흐름을 거스르는, 심오하고, 은밀하고, 미묘하고, 비밀스럽고, 추론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고,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중부〉 26경)

그러나 극소수이나마 고상한 사람들이 있으며 '저들마저 법을 듣지 못하면 길을 못 찾게 될 것' 을 생각하여 승가를 세울 결심을 하시게 된 것이다.

출가교단은 다른 것이 아니다. 팔정도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세속의 외적인 장애들을 미리 제거하는 제도일 뿐이다. 우리가 가능한 한 이 세속에서 그 장애들을 피하는 방법을 알면 알수록, 그 뿐만 아니라 그 장애들을 억제하게 되면 될수록 성공적 향상을 여기에서 실현시킬 수 있다. 그래서 때로는 세속생활을 계속 하면서 오히려 출가자보다 더 멀리까지 향상을 성취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라면 출가하는 쪽이 집에 머물러 있는 쪽보다 훨씬 용이하고 신속하게 향상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가정사와 사회적 의무에서 벗어난 홀가분한 상태라야 오로지 해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수 있다. 세속의 의무가 향상에 도움이 될 정도로 편안한 예외적인 경우라도 이번 생에 완전한 해탈을 이룰 수는 없으며, 해탈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도 얻기 어렵다. 따라서 해탈이라는 궁극목표를 지향하는 사람은 출가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

이들 출가자라는 선택된 사람들을 향해 일차적으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다. 이로 미루어 부처님이 출가를 팔정도 실현의 출발점으로 삼으셨다는 것, 그리고 팔정도 전 항목을 출가에 기초시켰다는 것은 더 이상 논의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기본적 선제조건을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팔정도 중 몇몇 단계를 각기 상황에 따라 가능한대로 닦도록 하셨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요컨대, 부처님께서는 출가가 해탈의 길을 실천하는 첫 걸음임을 누누이 강조하고 계시다.

社說

학교폭력 근절 불교계가 나서자

배움의 터전으로 푸른 꿈이 자라날 학교가 어린 영혼들의 두려움이 가득한 공간이 된지 오래이다. 연일 매스컴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건이 보도되고, 피어보지도 못한 청춘들은 자의반 타의반 하나 둘 꺾이고 있다. 살아남은 청춘들도 푸르러야 할 가슴마다 시커먼 멍 하나씩은 갖고 사는 것이 요즘이다. 중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불교계가 가만있어서는 안된다.

2월 21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이주호 교과부장관 예방을 맞아 "명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3일에는 7대종교지도자들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사회 각계의 관심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21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청소년 학교폭력 및 자살문제의 현황과 대안' 을 주제로 개최한 미래복지포럼은 고무적인 일이다. 학교폭력과 자살 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찾고자 마련된 행사에서는 "학교폭력 해결에 명상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불교계와 교육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불교적 이념에 의해 교육을 실시하는 종립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문제가 없다는 점도 학교폭력의 해답이 불교에 있음은 확실하다. 문제는 실천이다.

각 사찰 혹은 거점사찰에서 청소년을 위한 명상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사찰이 담당할 수 없는 지역은 법사를 파견해야한다.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중생들의 안락과 이익을 위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전도선언을 되뇌이고 실천할 때이다.

승보공양운동 확산을

조계종이 2월 29일 출가절을 시작으로 열반절까지 1주일을 참회발원 정진주간으로 선포했다. 매년 출가절~열반절 기간 용맹정진을 통해 부처님이 오신 뜻을 되새기고 있지만 올해는 승보공양운동이 눈길을 끈다.

승보공양운동은 재가자에게 출가자의 수행 · 전법 외호의 본분을 다하게끔 하는 운동으로 승려노후복지제도 정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조계종은 승보공양 후원의 밤 개최를 비롯해 승보공양 기금모금 동참, 노스님 간병하기 등을 캠페인으로 펼칠 예정이다. 또, 보다 많은 대중의 동참을 위해 승보공양의 의의 · 공덕 등을 설명하는 소책자까지 만들 것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조계종 교구 및 사찰별로 승보공양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조직적으로 전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번 기회에 사부대중이 승보공양운동에 동참한다면 종단은 재정 부담을 덜고, 재가자는 보람있는 신행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홍천 자명사에서는 단일사찰로는 최초로 비구니 노후수행관을 무보시로 운영하겠다고 나섰다. 자명사 주지 지명 스님은 "노스님 봉양은 불교계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공업(共業)이다. 내가 먼저 나서 그 짐을 진다는 심정으로 노비구니스님을 모시게 됐다"고 말했다.

스님의 남보다 한발 앞선 보현행의 뒤를 잇는 발걸음들이 그치지 않기를 기원한다. 재가자의 승보공양에 대해 응공(應供)할 수 있는 수행풍토가 승단에 우선 자리잡아야 함은 물론이다.

사부대중 칼럼

스님 왜 출가하셨습니까?



문종 스님

美 불광선원 총무국장

음력 2월 8일(2월 29일)은 싯다르타 태자가 성문을 벗어나 출가한 날입니다.

해마다 이 시기가 다가오면 저도 출가한 시절이 생각나곤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며 매일 여러 번 되뇌입니다.

어린시절 저는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사찰을 처음 가게 됐습니다. 그것을 인연으로 일찍이 절에서 살게 됐고, 출가를 했습니다. 은사스님은 제게 "부처님 은혜를 받으면 꼭 회향을 잘해야 된다"고 항상 강조했습니다. 당시 어린 저는, 은사스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제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또 사람들과 인연을 만들어 가면서 점점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절집에 들어오면 흔히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님은 왜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출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까지는 저는 어디 글귀를 읽고 기억나는 구절이 있어서 그것을 자주 인용하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무상해서 출가를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왜 인생이 무상하냐"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묻지 마세요. 괴롭습니다."

묻던 이도 이 말 끝에는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로 그 순간은 피해 갈 수 있었지만, 정작 그 말뜻 하나하나에 대한 깊은 통찰이 없었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너무 수박 겉핥기식이었던 것처럼, 제자신이 많이 부족한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출가를 하고 대중생활을 하고 또 홀로 만행을 하고 멀리 타국에서 나와 포교활동을 하면서도 꼭 한 가지 놓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의 마음가짐, 초발심일 것입니다. 저의 처음 그 다짐은 여지없이 따라다녀서 오늘 이렇게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관음사 • 법 명 : 거해(오재호)
• 주 소 : 부산 북구 만덕2동 859-13번지

• 사찰명 : 대경사 • 법 명 : 일월(이경호)
• 주 소 : 부산 사하구 하단1동 610-21번지

• 사찰명 : 미륵사 • 법 명 : 월영(홍매자)
• 주 소 : 울산 남구 무거1동 1251-3번지

위 사찰들과 위 인들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9일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義湘大師法性偈十波羅密圖
의상대사십바라밀도



法性圖所持者
成就一切萬法
법성도 소지자는
일체만법이 성취하고

消滅一切障碍
神鬼一切不侵
일체마장이 소멸하며
일체잡귀가 침범 못한다.

특허등록(30-0607637)



우주삼라만사 진리와 부처님 대승법이 모두가 법성도에 있습니다
수공한지에 회화나무 열매로 염색한 괴황지에 특수 제작함.
옛날부터 불경을 사경할 때 회화나무 열매로 염색
특히 염험한 부적 사경시 종이는 꼭 괴황지에 경면주사로만 사용
어떠한 부적보다 천만배 수승한 염험과 공덕이 있다.

액자용 부처님 점안 복작용 괴황지 판매합니다.

大方廣佛華嚴經
법성도십바라밀도 지극한 기도정성으로 제작
법 성 원

전 화 : 1688-7671 / 010-8258-9963
홈페이지 : www.bswon.com
은행계좌 : 837026-56-062884 (농협 이상경)

옻가네 옻오르지 않는 참옻의 명가
농업법인 (주)옻가네

피를 맑게, 아침을 생기있게…"참옻 덕 봤죠"

옻은 만성설사 · 변비 · 소화불량 · 위무력증 · 위하수증세 · 위염 · 위궤양 · 위암 · 수족냉증 · 자궁근종 · 생리불순 · 당뇨병 · 관절염 · 신경통 · 만성피로 해소와 정력 강화, 어혈제거, 혈액순환 등의 효과가 있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옻의 산 성분이 강한 항암 · 항산화 및 항균활성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됐고, 아토피와 당뇨에도 좋다고 조사됐다. 다슬기는 칼륨 · 나트륨 · 아연 · 망간 등 성분이 들어 있어 간에 좋은 작용을 한다. 조상들은 예부터 시름시름 기운을 못차리면 다슬기를 달여 간의 조직 원료가 되는 청색소를 공급해줘 간기능을 회복시켰다.



토종 참옻을 이용해
국내 최초로
상품화에 성공한
지용우 옻가네 대표

피로 회복 · 혈액 순환에 좋은 참옻
옻가네, 식품의약안전청 승인 받아
믿고 먹는 현대인의 건강 지킴이

옻추출물은 류머티즘관절염 치료뿐만 아니라 피를 맑게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희대 척추관절센터팀은 어혈과 염증을 풀어주며 피를 맑게 하는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류머티즘관절염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옻의 효능을 SCI급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경희대 한방병원은 "한방치료는 순환기능을 개선해 어혈을 제거한다"며 "어혈과 염증을 풀어주며 피를 맑게 하는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해 치료한다"고 설명했다. 여성에게 많은 류머티즘관절염도 옻을 이용하면 어혈 제거를 통해서 염증이 자연스레 소멸된다.

· 참옻다슬기진액

옻가네에서는 옻이 오르는 것을 극복하여 옻오름 염려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참옻제품을 선보였다. 국내에서 옻오르는 성분을 제거하고 옻의 유효성분만 그대로 유지되도록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옻가네가 유일하다.

몸에 좋은 참옻과 다슬기의 영양을 더한 옻가네의 '참옻다슬기진액'은 해독작용, 간기능 회복, 피로회복, 혈액순환, 노폐물 제거 등 다양한 기능으로 피로에 지친 현대인들을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옻가네에서는 옻나무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순수 국내산 참옻만을 사용하여 '참옻 발효진액' 등을 판매하고 있다.

· 참옻발효진액

옻나무는 세계적으로 600여 종 존재하는데 이중 한국 · 중국 · 일본 등 아시아에서 자라는 나무들만이 약재로 사용된다.

한국의 옻나무 수액은 우루시올 함량이 60%로 다른 나라에서 자라는 옻나무에 비해 함량이 10%정도 많고 약효도 뛰어나다. 특히 강원도에서 나는 옻이 유명하다.

· 홍삼참옻 위간보

옻의 효능을 업그레이드한 제품이 바로 옻가네의 홍삼참옻 위간보다. 위간보는 만성적인 속병을 다스리는데 효험이 뛰어난 참옻진액에 발기부전 치료효과가 있는 마카 성분과 유황오리를 함께 달여낸 고농축액으로 휴대용으로 간편한 파우치 포장제품으로 만들었다.

위간보의 주성분 옻은 만성 속병(만성설사 · 변비 · 소화불량 · 위염 · 위궤양 · 위암) · 수족냉증 · 부인병(자궁근종 · 생리통 · 냉증) · 당뇨병 · 관절염 · 신경통 · 만성피로에 좋고 정력강화와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속이 아프거나 숙취가 심한 경우, 멍이 잘 들고 뼈속이 시리다고 느끼는 경우, 입냄새, 생리불순, 생리통이 심한 사람, 소변량이 적고 잔뇨감이 있는 사람이 먹으면 더욱 좋다.

옻 산성분이 항암 · 항산화 · 항균활성이 있다는 최근 연구결과도 있다. 옻나무의 수피 및 목질부에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 및 전이를 억제하고 정상 세포로의 분화를 유도한다. 아토피 치료, 당뇨수치를 낮추는데도 효과가 좋다.

또 옻은 노폐물, 나쁜 피를 삭히는 살균작용으로 혈액 · 체액 순환을 돕고, 몸 안팎의 상처 · 염증이나 장부 · 혈관의 만성 질병을 낫게 한다. 여성 갱년기 증상 자궁건강에 좋고, 어혈을 풀고 강장효과가 있어 임산부들의 산후 관절시림 증상을 치료하는데도 많은 효과를 보았다.

· 식품의약청에서도 인정한 옻가네

옻가네 제품은 특허청의 특허와 식품의약품안전청(KFDA), 미국 FDA의 승인은 물론 최근에는 옻 안타는 참옻개발로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대상 대통령포장을 수상했기에 믿을 수 있다. 휴대용으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파우치 제품으로 출시돼 더욱 편리해졌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우르시올에서 추출한 MU2성분이 혈액암과 폐암, 위암 세포 등에 강한 억제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하기도 했다. MU2성분은 항산화 기능도 있어 치매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산 옻나무에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후라보노이드 성분은 혈관 형성을 억제함으로써 암세포의 증식이나 전이를 방지하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옻은 어혈을 제거하고 피를 맑게 하는 효능이 있고, 만성위염과 지방간 등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업법인 옻가네는 참옻을 이용해 옻닭 조리용, 한의원 치료용, 건강식품을 개발하는 농업법인이다. 대부분의 제품을 식약청 안전성 인증을 받았고 지적재산권 9건을 확보했다.

· 옻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

우루시올(옻의 주성분)은 대부분 옻나무껍질 주변에서 생성된다. 따라서 옻의 효능을 제대로 보려면 반드시 수피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일부 제품은 물이 아닌 고형분 함량이 낮은 경우도 있다. 옻 제품을 구입할 때는 고형분 함량이 높은 지, 수피가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참옻진액 제품을 선택하기 전에는 안전성이 검증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옻을 타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자주 먹는 것도 위험하다. 간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독성을 제거한 옻의 경우는 간에도 좋은 약이 된다. FDA승인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받은 옻가네의 제품은 독을 제거하면서도 약효는 그대로 지니고 있어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산 토종 참옻나무

소비자들이 옻가네 참옻제품을 신뢰하는 이유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대상
2011년 10월 13일

옻이 안타는 토종참옻 개발로
최고의 영예 대통령포장 수상했습니다

2011년 10월13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야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에서 최고 대상(산업포장)은 농업법인옻가네 지용우 대표가 영예를 받았습니다. 옻가네는 옻안타는 참옻을 국내최초로 상품화 하였으며 발효공법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개발로 국민 건강은 물론 농촌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한 공로로 영예의 대상인 산업포장을 수상하였습니다.

옻가네 토종참옻, 15년 역사 이래 꾸준히 국민의 사랑과 신뢰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 수상 | 사단법인 한국대학발명협회 하이브리드기업 확인서 | 2010 대한민국식품대전 최우수상 수상 · 식약청장상 수상



2010 서울국제발명전시회 금상 · 은상 수상 | ISO 9001 인증서 |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 FDA 인증서

국내에서는 식약청 (KFDA)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았으며,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FDA)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 미국식품안전청 FCS/SID제조업체등록, 공정과정등록 | 특허청

- KBS 아침마당 냉증, 가볍게 보지 마라 김달래 경희대 한의과 교수 2011.7.14
- MBC PD수첩 ○기적의 암○○제인가? 2011.6.7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내몸을 바꾸는 건강법- 체온건강법 2011.1.7
- MBC이재용 홍은희의 기분 좋은 날 2010.11.17
- KBS 6시 내고향 2010.2.16
- SBS 출발 모닝와이드 2009.10.27
- KBS 동의보감, 그 의학적 진실은? 2009.8.6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2006.6.19 2)"옻으로 건강을 다스린다" 2007.4.20
- KBS 환경 스페셜 악이 되는 독 2006.11.22
- KBS 무한지대 큐 돈이 되고 약이 되는 팔방미인 옻나무 2006.10.31
- KBS 싱싱 일요일 계절의 보석 2006.8.20
- 중앙일보 다양한 옻의 개선 효과 2010.9.9
- 동아일보 옻은 어혈제거, 만성간염, 간기능 개선 2008.10.27
- 한국경제 (작지만 강한기업)10년 묵은 체증 녹이는 참옻

폐경 10년만에 생리가 다시 시작 박○○ 1949년생 1월생 61세

저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살고있는 61세 여성 입니다. 2010년 소원 경인에 지인으로부터 옻가네 참옻진액을 소개받아 참옻진액 제품을 구입하여 복용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소화기능이 약해서 잘 체하고 고기나 멸가루 음식과 찬음식도 잘먹지 못하고 손발과 아랫배도 차거워 변비가 심했고 신경이 예민해서 깊은잠을 이루지 못하여 신경외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약 10년동안 약을먹고 잠을 잤은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3일정도 복용 했을때 아랫배가 빵빵해 지더니 2일째 부터 변이 정상적으로 많은양이 나오더니 속이 후련한 정도로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되고 속이 아주 편안해지고 입맛또한 좋아지고 나니까 뱃속에 항상 체했던 증상이 서서히 사라지고 3일정도 복용 했을때 폐경된지 10년만에 생리를 5일동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60봉은 다먹고 나니까 10년동안 꾸준히 수면제도 먹지않고 깊은잠을 잘수있고 아래는 고기나 멸가루 음식을 아무데로 가리지 않고 먹을수 있고 소화도 잘되고 변도 매일 잘볼수 있고 피로도 확 풀려서 몸이 아주 가벼워 진것 같습니다. 또다시 60봉을 구입해서 복용하고 있는중입니다. 이와 좋은제품은 만나기 힘들어 모든 건강이 다 좋아져서 정말 진심으로 옻가네 사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전신에 어혈이 돌아 무척 고생했었으나 김○○ 55세/주부

저는 동네이장님에서 어혈이 잘 풀린다는 옻가네 참옻진액을 소개받아 2010년 8월 7일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7년전 대형교통사고와 4년전. 1년전 심하게 넘어져 왼쪽 옆구리 갈비뼈와 엉치에 큰 타박상을 입어 전신에 어혈이 돌아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옻가네 참옻제품을 먹으면서 운동이 서서히게 몸이 돌고 서서히 쑤시고 저리고 아파서 병원에 가게서 진통주사까지 맞았지만 효과가 없었는데 꾸준히 한달을 복용한 결과 거짓말처럼 나았습니다.

하지 정맥에 있어 굵은 정맥이 튀어 나왔고 심했었이 수술하게 여겨 였었는데 10일 정도 복용하면서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필요하시면 궁금한 분들에게 직접 확인해 드릴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 참옻 상품화 성공
옻가네, 대통령 산업포장 수상

농업법인 옻가네는 지난 11월13일 제 14회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야 유공자 시상식에서 대상인 산업포장을 받았다.

지용우 대표는 옻 안타는 참옻을 국내최초로 상품화했으며 발효공법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개발 및 옻을 이용한 옻된장, 옻고추장 등의 개발과 옻순채취, 옻나무 재배보급으로 농촌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의 대상인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옻나무추출물은 어혈과 염증을 풀어주며 피를 맑게해주는데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류마티스관절염 예방 및 치료 등에 효능을 밝힌 연구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

특히 여성에게 많은 류마티스관절염 등의 염증성질환에 옻을 이용하면 어혈제거를 통해서 염증도 자연스레 소멸된다. 이밖에 농업법인옻가네는 지난해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을 수상하며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 공식지정 상품으로 선정되었다.

콩을 발효시켜서 청국장 이나 된장으로 먹으면 훨씬 더 몸에 좋듯이 토종 참옻도 발효시키면 몸에 훨씬 더 이롭다. 옻을 식품에 첨가하면 독특한 효과가 있다.

고기 특유의 누린내를 없애주고, 육질을 부드럽게 하며 지방을 녹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고기맛을 더욱 좋게 한다.

국내에서는 식약청(KFDA)에서 안전성을 인정한 검증받은 제품을 창업전문컨설팅 회사와 손을 잡아 전 제품을 무점포 50곳(중 · 소형 마트, 편의점, 건강식품판매점, 음식점 등)에 오픈하여 사업주 분들은 부담없는 금액으로 많은 시간의 투자없이 부업 및 투잡으로 최고의 사업으로 각광 받고 있다.

독성만 빼고 몸에 이로운 것만 담았습니다.

참옻식품의 **원조**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FDA)에서 인증받은 절대 **옻 안타는** 제품입니다.

무색소
무방부제 / 무과당
100% 국내산



(삼계탕은 1.5리터 한병으로 8마리 이상 가능합니다)
참옻발효진액 (1.5ℓ ×12병)
168,000원



참옻진액(일반형)
참옻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198,000원



참옻진액(고급형)
참옻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260,000원



참옻다슬기진액(고급형)
참옻다슬기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298,000원

고급형 구입시 선착순 500분 사은품 증정

참옻, 민들레, 인진쑥이 듬뿍! 신제품 토종참옻환 옻가네 16주년 기념 파격 사은품 증정

16 16th Anniversary 옻가네16주년기념



토종환 별도구입시 3개월분 69,800원

몸에 좋은 참옻과 민들레 거기에 인진쑥을 더해
가족의 건강을 간편하게 지킬 수 있는
토종참옻환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토종참옻환은 온가족이 간편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토종참옻에 신진대사 활성화, 면역에 도움을 주는 민들레에 항균 작용이 뛰어나 민간요법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인진쑥을 더해 만들어진 토종참옻丸을 옻가네 16주년 기념 사은품으로 하루 선착순 500분에 한하여 드립니다.

옻가네 옻오르지 않는 참옻의 명가
농업법인 (주)옻가네 제 2010-서울영등포-0212호

상담전화: 080-810-8100
• 주문하시면 2~3일내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